

#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

Knowledge Shar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Humanities

천정환, 박서현, 장문석, 박지훈, 류인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1-02

##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

Knowledge Shar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Humanities



#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

Knowledge Shar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Humanities

천정환, 박서현, 장문석, 박지훈, 류인태

연구 위키 URL: <http://www.klbooks.com/wiki/index.php/HumanitiesDataArchive>

**저 자**

천정환, 박서현, 장문석, 박지훈, 류인태

**연구수행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지문
성균관대학교	천정환		
제주대학교		박서현	
경희대학교		장문석	
중앙대학교		박지훈	
성균관대학교		류인태	
성균관대학교		안혜연	

## 요약

본 연구는 독과점적 지식유통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오픈엑세스(Open Access)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지식공유의 근원적 관계를 검토하고, 또한 지식 커먼즈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오픈엑세스 정책 및 지식공유 플랫폼의 예시와 그 구축·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연구진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떠한 플랫폼이 가능하며, 그러한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세부과제에서는 인문학적 지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지식공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식 변화와 결정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시민사회의 인식변화를 인문학의 의미와 가치의 새로운 존재 방식,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공유의 필요성, 인문학적 지식의 공동생산과 지식공유의 관계, 다성적 이야기로서의 인문학적 지식과 그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시민과 인문학자 간 공동작업의 가능성 등의 맥락에서 논의한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학술 지식 오픈엑세스라는 학계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을 검토한다. 지식공유 플랫폼은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에 근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 및 학회간 협의체가 지식공유 플랫폼 설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성 요소로 지식공유 플랫폼이 오픈엑세스 학술정보의 안정적 제공, 전주기 투고-출판 플랫폼, 학문분야별 학술정보 공유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하였다.

제3세부과제는 인문사회 논문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정부나 준정부기관만이 아니라 학회, 연구자들, 기자들, 교사들, 학생들,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그것은 개별 학회들의 오픈엑세스 전환이나 리포지터리(repository)의 구축을 넘어서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그러한 플랫폼의 구축 및 자립화는 총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남겨진 과제는 초기 자금의 확보이며 이에 정부나 준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제4세부과제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지식공유 플랫폼의 모델을 제안하고, 그 가능성을 이론적·기술적으로 설계한다. 지식에서 데이터로, 앎을 공유하는 형태의 전환, 소유와 기성(既成)에서 점유와 조립(組立)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공유 문화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 지식생산-유통-소비 및 인문지식 선순환 체계 수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분과 단위의 학회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지식 편찬 및 유통 체계가 '시민을 위한 지식 제공'의 일방적 프

로세스였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로 편찬되고 공유되는 지식의 공론장은 '시민에 의한 지식 확산'의 쌍방향적 프로세스로서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국가적인 오픈액세스 선언, 디지털집현전 사업 그리고 블록체인·NFT 기술 등의 출현 등 학술생산의 사회적·기술적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학문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지식 생산의 조건과 유통에 대한 정책 연구는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핵심어\_ 인문학, 지식커먼즈(지식공유), 시민참여, 공공인문학, 지식공유 플랫폼, 오픈액세스, 디지털 리터러시**

##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critically into the market-mediated and profit-oriented circulation of knowledge, explore the underlying relations between the humanities and knowledge sharing, search for the ways that ‘knowledge commons’—or the shared governance of knowledge—can be realized in the field of the humanities and, albeit partly, social sciences, and then recommend policies that provide public access to knowledge in those fields. In so doing, this research gives two possible examples in terms of Open Access (hereafter OA) policies and knowledge sharing platforms which can be launched in a foreseeable future. It also suggests the roles of governments and/or the structure of public-private governance for establishing those platforms.

The work consists of four projects which are mutually complementary. The first project is to justify the meanings and values of knowledge in the humanities. Building knowledge commons requires not only a change in the awareness of policy makers and their final decision, but further the consent which is manufactured in a civil society. For this reason, the first project places the *raison d’être* of the humanities, their new mode of existence and OA as a mode of knowledge commons in the context that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citizens—which have been thus far divided into expert people and lay people—mutually cooperate in producing and circulating knowledge. The second project examines both the issues in OA that have been debated in academic circles and conditions for building knowledge sharing platforms. In particular, this project highlights the participation of both researchers and citizens in those platforms that has been taken for granted. On this basis, it suggests the governance between the government, researchers, citizens and academic associations. Also, it calls for building multi-functional platforms that go beyond the extant types of OA repositories. In this context, it argues that the new platforms for knowledge sharing must provide not only repositories for an extant body of literature, but also journal websites, an online journal management system, production service for publishers,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the like.

The third project gives a more detailed business model to build and manage a platform

for sharing journal articles, pre-copy-edited articles and their pre-print versions. In particular, it indicates that the extant forms of OA models, such as gold OA and green OA, have radical shortcomings and, in turn, suggests an alternative business model that integrates, and goes beyond, the two existing models. Not only does the alternative model give incentives to academic associations in the humanities, but also allows researchers, non-academic intellectuals, students, a social enterprise and citizens to participate in governing such a platform and producing new bodies of knowledge. Also, it seeks to support transiting journals into OA publishing and to provide multi-functional services for academics and citizens. The fourth projec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knowledge sharing in a Wikipedia format and illustrates an example of Wikipedia for the humanities. This attempt reflects a phenomenon that the objects of knowledge sharing have been extended from ready made bodies of knowledge, such as journal articles, to raw data. In this context, the fourth project explores a change in the culture of knowledge sharing and preliminarily constructs a possible model for the system of data-based knowledge production-circulation-consumption in which citizens can also participate. In brief, it seeks to explore an entirely novel mode of knowledge system in the digital age that operates horizontally and multi-directionally, thereby enhancing the public values of the humanities.

**Keywords:** Humanities, Knowledge Commons, Knowledge Sharing, Public Humanities, Knowledge Sharing Platform, Open Access, Digital Literacy

## 정책 제안

### 1. 오픈액세스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정책 실천

- 한국연구재단 · 국립중앙도서관 등 2021년 8월의 정부 기관 등의 선언의 현실화 · 구체화
- 디지털집현전 사업 등과의 적실한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문사회과학자의 참여
- 학문분야별 자발적 오픈액세스 전환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마련

### 2. 기존 오픈액세스 플랫폼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정책 실천

- RISS, KCI, JAMS 등 공공기관 제공 플랫폼의 효율성 제고 및 영향력 확장
- 연구재단 지원 사업 관련성과의 오픈액세스화

### 3.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정책 실천

-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 및 학회지 편집인 및 학술정보 공유 협의회 구축
- ‘연구자 주도 + 시민 참여’의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 지원
- 정부기관 플랫폼과 ‘연구자 주도 + 시민참여’ 플랫폼의 안정적 연결책 마련

### 4. 연구자 문화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실천

- 학회 및 학술지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
- 양적 평가와 영어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
- 학술활동의 공공성과 연구자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 목 차

<b>1. 연구 배경</b> .....	15
1.1. 연구 배경의 두 가지 차원 .....	15
1.2. 학술생태계의 재생산 불능과 시민의 학문적 권리 침해 .....	17
1.3. 대안으로서의 오픈액세스 운동과 정책적 반영 .....	18
<b>2. 연구 목적</b> .....	21
2.1. 연구의 1차적 목적 .....	21
2.2. 연구의 세부 과제 .....	21
2.3. 연구의 확장적 목적 .....	22
<b>3. 선행 연구 검토</b> .....	25
3.1. 주요 선행 연구 .....	25
3.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26
3.2.1.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지암일기〉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	26
3.2.2.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 .....	27
3.2.3. 매체 발달과 인문학의 현대화 .....	28
3.2.4. ICT·인문사회 융합 활성화 방안 연구 .....	28
<b>4. 연구 구성</b> .....	32
4.1. 연구과제의 체계 .....	32
4.2. 연구의 추진 방법 .....	33

4.3. 연구 추진 과정 .....	34
4.4. 연구의 기대효과 .....	35
<b>5. 연구 내용 .....</b>	<b>38</b>
5.1. [제1세부과제] 시민을 위한 인문학과 지식공유의 이론적 기반 .....	38
5.1.1. 서론 .....	38
5.1.2.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에서 지식의 의미 .....	39
5.1.3. 학술지식 오픈액세스의 필요 .....	44
5.1.4. 국내 인문사회분야 오픈액세스의 역사와 과제 .....	46
5.1.5.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 공유의 과제 .....	53
5.1.6. 결론 .....	60
5.2 [제2세부과제] 지식공유 플랫폼과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 .....	61
5.2.1. 학술논문의 공공적 가치와 국내 학술지식 유통의 현실 .....	61
5.2.2.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 .....	62
5.2.3.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 및 현행 정부·기관의 지원 검토 .....	65
5.2.4.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 .....	69
5.2.5. 지식공유 플랫폼과 학술지식의 공공성 .....	75
5.3. [제3세부과제]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방안 .....	77
5.3.1.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의 특징과 필요성 .....	77
5.3.2. 학문자본주의, 지식기반경제, 그리고 오픈액세스 .....	82
5.3.3.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기존 오픈액세스 모델의 다양성과 문제점들 .....	88
5.3.4.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 .....	93
5.3.5. 남겨진 과제들 .....	95
5.4. [제4세부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지식 공공성 확대 방안 모색 - 데이터 기반 인문지식 공유 모델 구현 연구 .....	97
5.4.1. 인문학술 환경의 변화: 아날로그 지식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	97
5.4.2. 디지털 공공성: 학술 지식의 공유와 공론을 위한 새로운 토대 .....	98

5.4.3. 공공성 확대를 위한 1차 과제: 전문적 성격의 학술 데이터 편찬과 공유 .....	100
5.4.4. 공공성 확대를 위한 2차 과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지식모델 개발 .....	112
5.4.5. 제언: 지식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학술 데이터 개념의 이해와 확산 필요 .....	123
<b>6. 결론</b> .....	<b>127</b>
참고 문헌 .....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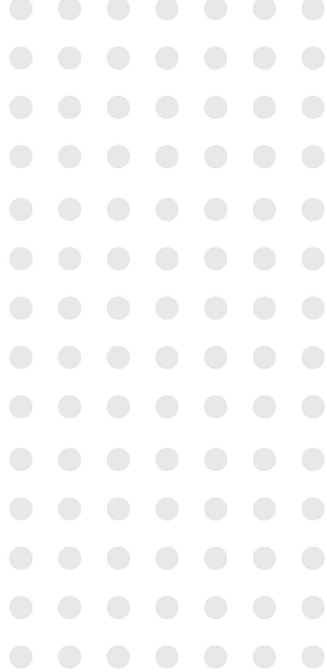
## 표 차례

〈표 3-1〉 주요 선행연구 현황	26
〈표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표 4-1〉 세부과제 별 연구 방법	33
〈표 4-2〉 문헌 연구 및 정책 연구 일정과 내용	34
〈표 4-3〉 플랫폼 구현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 파일럿 연구 일정과 내용	34
〈표 5-1〉 Linked Jazz: 연도별(2011-2017) 연구 활동과 내용	115

## 그림 차례

[그림 1-1] 세계경제와 국가전략의 변화에 대한 지식의 성격 변화 및 부작용들	16
[그림 1-2] 리포트와 논문 거래사이트 HappyCampus 홈페이지	17
[그림 4-1] 연구 과제들 간의 연관성	32
[그림 5-1] 〈한국어문학지식공유위키〉에 구현된 '민족문화사연구소' 정보 페이지 예시	73
[그림 5-2] 〈한국어문학지식공유위키〉에 구현된 '상허학회' 주관 학술행사 페이지 예시	74
[그림 5-3] 오픈액세스가 위치한 층위와 맥락들	79
[그림 5-4] 개인이나 연구자 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리포지터리들의 사례	88
[그림 5-5] 아카데미아에듀	89
[그림 5-6] SocArxiv	90
[그림 5-7] 한국학술지인용색인	92
[그림 5-8]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의 서비스들	94
[그림 5-9]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 사업단계	95
[그림 5-10] MediaWiki의 로고	101
[그림 5-11] 웹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 데이터 포맷: XML, RDF, JSON, CSV	101
[그림 5-12] 위키 기반 텍스트 데이터에서 웹 표준 형식의 데이터로의 변환 과정	102
[그림 5-13]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상위정보' 예시	104

[그림 5-14]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목차'와 '본문' 서술 예시 .....	104
[그림 5-15]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참고문헌' 예시 .....	105
[그림 5-16]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주석' 예시 .....	105
[그림 5-17] 미디어위키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확보한 Wiki XML 문서 예시 .....	106
[그림 5-18] Wiki XML 문서를 정형화된 XML 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Python 코드 예시 .....	106
[그림 5-19] 미디어위키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확보한 Wiki XML 문서 예시 .....	107
[그림 5-20] SQL을 통해 자동적으로 변환한 JSON 데이터 예시 .....	111
[그림 5-21] JSON 데이터 시각화 코드 예시: Sigma.js 라이브러리 활용 .....	111
[그림 5-22] 샘플 JSON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시각화 결과물 예시 .....	112
[그림 5-23] Linked Jazz 메인페이지 모습 .....	113
[그림 5-24] 뉴욕 Pratt Institute School of Information의 위치 .....	114
[그림 5-25] LOD를 네트워크 형태의 시각화 결과물로 구현한 웹페이지의 모습 .....	117
[그림 5-26] The Linked Jazz Transcript Analyzer의 모습 .....	120
[그림 5-27] Name Mapping & Curator Tool의 모습 .....	121
[그림 5-28] Linked Jazz 52nd Street의 모습 .....	121
[그림 5-29] ECCO!의 개념도 .....	122
[그림 5-30] LodLive의 모습 .....	123



# 1

## 연구배경



- 1.1 연구 배경의 두 가지 차원
- 1.2 학술생태계의 재생산 불능과  
시민의 학문적 권리 침해
- 1.3 대안으로서의 오픈액세스 운동과  
정책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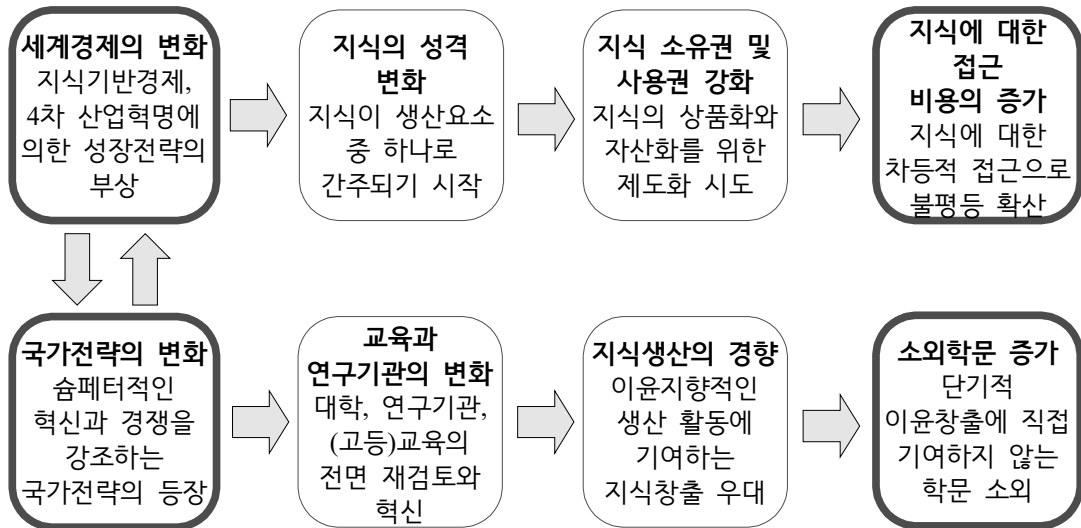
## 1. 연구 배경

이른바 포드주의적 산업화의 시대가 저문 이후, 지식을 새로운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지식 경제’가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자본 축적 원리가 되었다. 이 맥락에서 특히 최근에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 간 융합이 가져오는 성과들에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기업가(주의)적 혁신과 통섭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고, 그 해소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지식에 대한 경시가 그러한 부작용들 중 하나이다. 이에 오늘날 인문학적 성찰이 낳은 지적 산물들은—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적 가치로 손쉽게 재현되거나 전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마치 무용하거나 불필요한 것인 양 취급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학령 인구 절벽’의 문제로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인문학에 위기 상황이 전가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식의 상품화와 유통과정의 독과점화로 인해 지식에 대한 접근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학술지식, 특히 학술 논문의 유통과정에서 발견된다. 실제로 몇몇 국내의 상용DB업체들이 논문의 유통망을 장악하였고, 이에 심지어는 유수의 대학들조차 논문열람을 위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이러한 업체들은 학부생들의 과제물을 거래하는 업체에 논문을 되팔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표절을 조장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오픈 액세스 운동이 출현하여,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많은 학회들과 대학 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 1.1 연구 배경의 두 가지 차원

연구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그림 1-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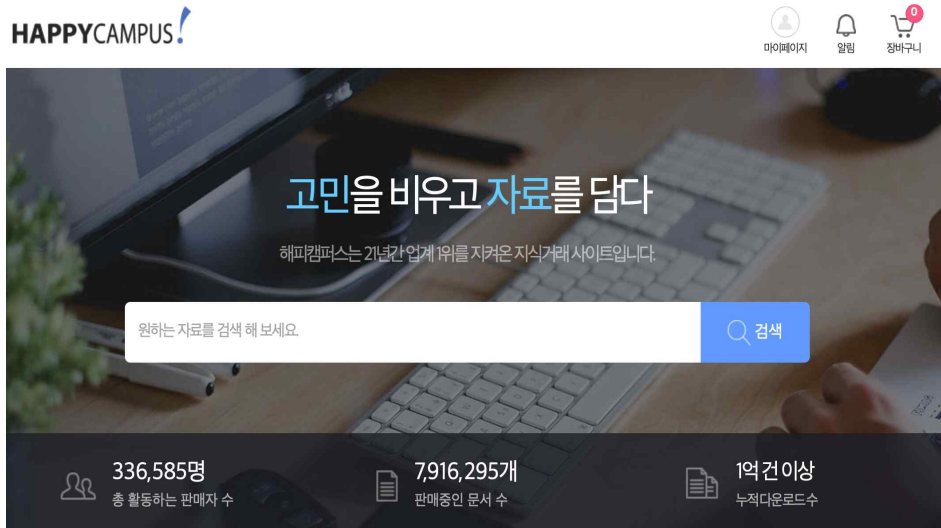
[그림 1-1] 세계경제와 국가전략의 변화에 대한 지식의 성격 변화 및 부작용들

첫째, 지식기반경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의 부상 이후, 지식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단기적인 이윤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인문(사회)학 분야의 기초학문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둘째, 소수의 상용DB업체들이 학술지식의 유통과정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지식에 대한 접근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술논문 가격의 결정권자의 위치를 점한 상용DB업체들은 학술논문 구독 비용을 일방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대학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KCI 논문의 공유를 위한 사이트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상용DB업체들은 학회에 대한 현금 지원 등을 통해 독점적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윤극대화를 위해 일부 상용DB업체들은 학술논문들을 학생들의 표절을 조장하는 리포트 거래업체에 재판매하기도 한다. 지식거래 사이트를 표방하는 이러한 업체는, 가령, “과제하면 생각나는 곳”, “고민을 비우고 자료를 답다” 등을 슬로건으로 제시한다. 즉, 이는 고민을 하지 않고도 남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이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연구자들의 논문이 학생들의 표절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2] 참조).



[그림 1-2] 리포트와 논문 거래사이트 HappyCampus 홈페이지

셋째, 연구자와 시민들이 분리되고 있다. 대학과 학계에서는 공공성과는 무관한 ‘업적쌓기용’ 지식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공공적 지식의 생산과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시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1.2 학술생태계의 재생산 불능과 시민의 학문적 권리 침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과 학술생태계는 병들고 재생산 불능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학문적 권리와 한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학술논문 구독비용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대학도서관들은 논문구독을 축소하거나, 때로는 상용DB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논문구독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입게 된다.

일부 상용DB업체들은 표절이라는 반교육적이고 반학문적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조장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표절에 대해 둔감해지게 하는 동시에, 스스로 사고하고 그 결과

를 학술적 기준에 맞춰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출판하기 위해 글을 쓰고 수차례 수정하는데, 출판의 일차적 목적은 ‘읽히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가 충분히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그 연구결과는 논쟁 혹은 논의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다. 나아가 논쟁과 논의의 중심에 들어섬으로써 연구결과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때, 학술논문의 독점 사용권 설정과 구독료 인상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가 읽힐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축소시키게 된다.

이상의 문제들은 교육과 연구 두 분야 모두에 폐해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지식정보로부터의 소외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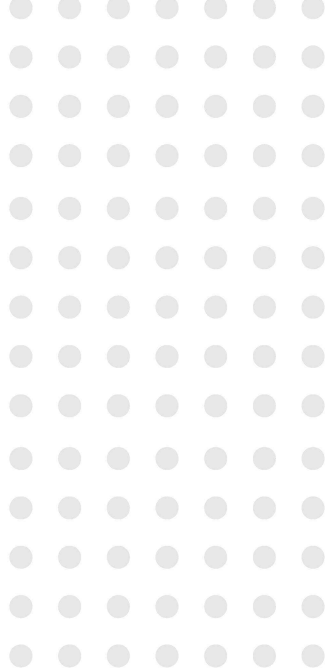
### 1.3 대안으로서의 오픈액세스 운동과 정책적 반영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오픈액세스 운동이 부상하고 있으며 부족하나마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2019년에는 지식공유와 오픈액세스에 공감하는 학술단체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약칭 지식공유연대)가 설립되었다. 현재 지식공유연대에는 약 40여개의 학회와 학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6월 17일 교육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등은 ‘오픈액세스 국가정책 포럼’을 통해서 오픈액세스 정책의 확대를 선언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출판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당국 일각의 인식은 낮고, 정부의 지원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 연구자 주체성과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인문학 지식 공공성 정책이 필요하며 그것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에서 구현될 것이다.



# 2

## 연구목적



- 2.1 연구의 1차적 목적
- 2.2 연구의 세부 과제
- 2.3 연구의 확장적 목적



## 2. 연구 목적

지식공유와 시민참여는 이제 인문학의 존립과 재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건이다. 본 연구는 독과점적 지식유통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지식공유의 근원적 관계를 검토하고, 또한 지식 커먼즈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오픈액세스 정책 및 지식공유 플랫폼의 예시와 그 구축·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연구진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떠한 플랫폼이 가능하며, 그러한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 2.1 연구의 1차적 목적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존재 요건으로서 지식 공유 및 공공성을 이론적·정책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독과점적 지식유통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데로 나아가는 지식공유의 방안을 모색한다.

### 2.2 연구의 세부 과제

이에 본 연구진은 세부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수행한다.

첫째, 인문학적 지식의 본성과 시민참여형 지식공유(커먼즈)의 중요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오픈액세스와 지식공유 플랫폼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의 지원방향 및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현재까지 지식공유는 주로 논문의 유통에만 주목해왔으나 본 연구진은 활자화된 논문의 유통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 지식생산에 활용되는 원자료의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과 사례를 검토한다.

### 2.3 연구의 확장적 목적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시민들이 지식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활용에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지원과 관리도, 상용DB가 주도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닌, 즉 정부·연구자·시민이 새롭게 협력적 주체가 되는 유형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한다.



# 3

## 선행 연구 검토



- 3.1 주요 선행 연구
- 3.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3. 선행연구 검토

####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일단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형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우선 지적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정책적 논의로 이동한 후, 지식공유 플랫폼의 사례들(출판된 논문의 유통과 원자료의 공유)을 두 가지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 특히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위키 플랫폼이 경우 사업의 방향과 방안만이 아니라 사이트를 일부 구현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초적인 ‘개발’의 과정이 포함된다.
-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 3.1 주요 선행 연구

본 연구는 시민이 참여하는 인문학과 지식공유 모델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세 키워드는 ‘인문학’과 ‘지식공유’ 그리고 ‘시민참여’이다. 세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아직 없다. 물론 ‘인문학’과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존재한다. 이에 3장에서는 이 연구들을 주요 선행 연구로 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를 확인한다.

인문학과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와 좀 더 관련한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다. 본 연구와 연관성을 가진 연구로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지암일기>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연구책임자 정지영 이화여대 교수)를 들 수 있다. 인문학 지식공유 모델로 위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본 연구는 유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실 이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설계의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다. 하지만 ‘시민 참여 중심의 위키’인가 아니면 ‘전문가 중심의 위키’인가를 기준으로, 본 연구와 이 선행 연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본 연구와 연관성을 가지는 연구들은 <표 3-1>과 같다. 이하에서는 각

연구의 연구목표와 방법론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표 3-1〉 주요 선행연구 현황

연도	제목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2016년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한국연구재단	정지영
2021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박숙자
2008년	매체 발달과 인문학의 현대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주연
2011년	ICT·인문사회 융합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 3.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3.2.1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지암일기〉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이 연구는 조선시대 유력 양반 해남 윤 씨 가문의 지암 윤이후(고산 윤선도의 손자)가 남긴 ‘지암일기’를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것이다. 지암일기는 농사·날씨·여행·시·음악·미술·조경·풍수 등 시대상을 풍부히 담고 있는 조선시대 생활사의 보고이다. 이 연구의 목표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옛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역사 분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조선시대 역사학 및 고문헌 연구자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전문가가 협업하여 지암일기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로 구축한 다음 시각화했다. DB구축과 시각화에는 위키, XML 등의 디지털 기술이 활용됐다. 이러한 활용은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고문헌 생활사 자료의 DB구축 및 시각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아날로그 미디어를 디지털 미디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 연구의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디지털화 작업은 일기에 서술된 내용 중 예컨대 사건·

인물·지명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텍스트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고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본 연구에 큰 참조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연구는 그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문서의 DB구축과 그에 따른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수행된 것이었다. 달리 말해 이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 시민이 참여하는 지식의 공동생산과 공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지식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위키가 활용되는 방식에서 그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불특정 다수의 아마추어 지식인들이 구축한 위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연구는 전문가들이 모여 구축한 연구사업 결과물로서의 위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본 연구의 연구설계의 참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연구의 근본적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3.2.2.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학술장의 변화를 위해 학술단체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학술지식 공유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학술단체 운영 방식의 변화를 확인하고 학술지 오픈 액세스 대한 학계의 요구를 확인했다.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학술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학술논문을 공공재로서 지속적·안정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학술지 지원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재제도 심사항목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실태조사와 심층면담이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학술장에서 특히 인문학 연구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공유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문학자와 같은 전문가로서의 연구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공유, 오픈액세스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출판된 논문의 오픈액세스로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오픈액세스를 시범적으로 탐색한 본 연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논문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주요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버전의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는 차별화 된다.

### 3.2.3. 매체 발달과 인문학의 현대화

이 연구는 인문학과 디지털 매체를 결합함으로써 인문학의 현대화를 모색한 작업들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함께 이 매체의 기반을 이루는 ICT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 디지털 매체와 인문학의 접목 현황을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을 검토하고, 디지털 매체와 인문학의 접목을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디지털 인문학의 국내 연구현황과 교육현황을 조사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이였다.

이 연구는 인문학과 디지털 매체의 결합에 대한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의 발달이 디지털 매체의 발달을 그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가능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라는 탐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 연구가 인문지식의 디지털화를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또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현황과 교육현황을 조사한 것은 유의미한 기여였다.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의 구체적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생산과 공유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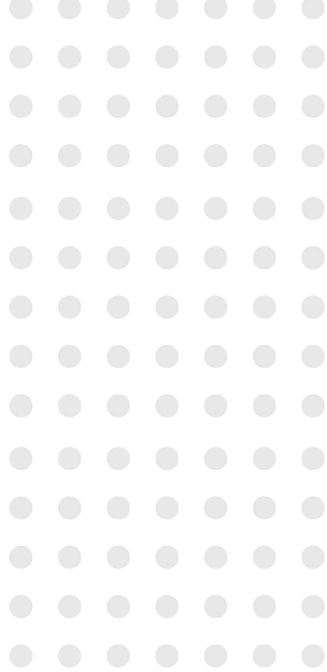
### 3.2.4. ICT·인문사회 융합 활성화 방안 연구

이 연구는 인문학과 ICT를 융합하는 연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융합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애플·구글·인텔 같은 주요 해외기업의 인문학과 ICT 융합연구, 미국 국립인문재단 디지털인문학센터, 일본 정보학연구소, 덴마크 아루스대 인터넷 연구센터 같은 공공부문의 인문학과 ICT 융합연구 등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인문학과 ICT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제안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였다.

10여 년 전에 수행된 이 연구는 ICT와 결합한 인문학 진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문학의 의미에 대한 성찰에 입각하여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지식공유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ICT와 인문학을 접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인문학자와 시민에 의한 지식의 공동생산과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표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문헌의 DB구축을 통한 시각화 구현</li> <li>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제시</li> <li>다른 고문헌 연구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문헌 연구자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DB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암일기 구조와 내용 분석, 데이터 추출</li> <li>추출 데이터를 DB로 구축</li> <li>시각화 콘텐츠 구현</li> <li>연구방법론 정리</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 19로 촉발된 학술단체 운영 변화 조사</li> <li>학술지 오픈 액세스에 대한 학계의 요구 분석</li> <li>학술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개선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태조사</li> <li>심층면접(FG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온라인 학술장의 기술적·윤리적·제도적 문제점 분석</li> <li>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 방안 제시</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학과 디지털 매체의 접목 현황 파악</li> <li>양자의 지속가능하게 접목 및 발전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li> <li>실태조사</li> <li>전문가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 분석</li> <li>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현황과 교육 현황 분석</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기술의 사회문화적 변화 분석</li> <li>정보통신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해외기업과 공공부문 그리고 국내 기업 및 기관의 융합연구 분석</li> <li>인문사회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li> </ul>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과 공유에 대한 철학적 검토</li> <li>인문학적 지식의 공유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li> <li>인문(사회)학 논문 공유 플랫폼의 구체적 구현 방안</li> <li>디지털 인문학을 촉진을 위한 위키 플랫폼의 구축 방안과 사이트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연구</li> <li>전문가 자문</li> <li>사업모델 구축</li> <li>컴퓨터 프로그래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공유를 위한 철학적, 정책적 논리 구축</li> <li>논문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관리 방안 제시</li> <li>지식생산의 원자료 공유 플랫폼 개발</li> <li>정부, 학계, 기타 민간 주체간 거버넌스 모델 제안</li> </ul>	



# 4

## 연구 구성



- 4.1. 연구과제의 체계
- 4.2. 연구의 추진 방법
- 4.3. 연구 추진 과정
- 4.4. 연구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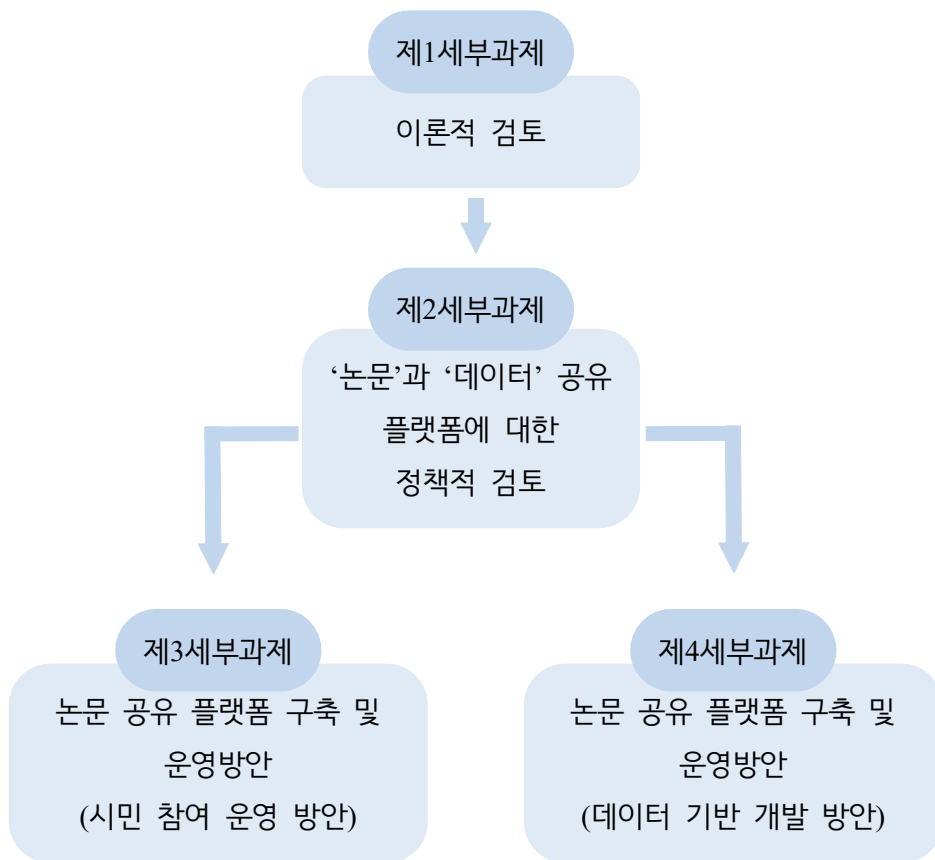




## 4. 연구 구성

### 4.1. 연구과제의 체계

본 연구과제는 네 가지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과제들은 [그림 4-1]과 같은 연관성을 갖는다. 제1세부과제는 인문학과 지식공유에 대한 철학적 검토이다. 제2세부과제는 이에 기반을 둔 정책적 검토이며, 제3세부과제와 제4세부과제는 논문공유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의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각각 다룬다.



[그림 4-1] 연구 과제들 간의 연관성

## 4.2. 연구의 추진 방법

서로 다른 세부과제들은 서로 다른 접근과 방법을 활용한다. 각 세부과제들에서 적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 세부과제 별 연구 방법

제1세부과제	문헌연구
제2세부과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제3세부과제	문헌연구, 해외사례연구
제4세부과제	1, 2, 3 과제의 연구방법 활용을 전제로 실제 개발 작업을 통해 기초적 수준의 플랫폼 모델을 기술적으로 구현

제1세부과제와 제2세부과제에서는 지식공유에 대한 철학적, 정책적 검토를 제시한 후, 제3세부과제에는 논문공유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제4세부과제에서는 실제 개발 작업을 통해 기초적 수준의 플랫폼을 실제로 구현한다.

### 4.3. 연구 추진 과정

- 문헌 연구 및 정책 연구 일정과 내용

〈표 4-2〉 문헌 연구 및 정책 연구 일정과 내용

연구내용	20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헌 및 해외사례 검토 등 세부과제 연구	■	■	■	■	■	
중간보고					■	
지식공유플랫폼 개발 전문가 초청 킬로쿼엄					■	
오픈액세스 전문가 초청 킬로쿼엄					■	
심포지엄 및 세부과제 연구 점검 및 통합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						■

-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 파일럿 연구

〈표 4-3〉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 파일럿 연구 일정과 내용

연구내용	20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초대상자료(학회 및 학술지) 선정과 수집	■	■				
기초 데이터 모델링 작업		■				
데이터 모델링 기반 기초 데이터 구축진행 (XML 데이터 구축)			■			
데이터 모델링 기반 기초 데이터 구축진행 (데이터 연계 웹페이지 구현)				■		
구축 데이터 대상 학술지식 네트워크 구현					■	
구축 데이터 구현 및 최종 정리						■

#### 4.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인문학의 새로운 존재 조건에 따른 공공성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디지털 기반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담론 개발을 통해 인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환기한다.

둘째, 정부, 학술단체들 및 연구자들, 민간사업주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학술 논문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논문 유통의 독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과 연구 부문의 폐해 극복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셋째, 학술 지식과 시민사회의 담론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문학 지식의 생산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술지식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권리 충족을 위한 방법 제시한다.

넷째,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급격한 기술적 환경에 부합하는 인문학 지식의 생산, 유통, 활용 체계의 제안한다.



# 5

## 연구내용



- 5.1. [제1세부과제] 시민을 위한 인문학과 지식공유의 이론적 기반
- 5.2. [제2세부과제] 지식공유 플랫폼과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
- 5.3. [제3세부과제]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방안
- 5.4. [제4세부과제]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지식의 공공성 확대 모델 제안: 데이터 기반 인문지식 공유 플랫폼 개발 방안 검토



## 5. 연구내용

### 5.1. [제1세부과제] 시민을 위한 인문학과 지식공유의 이론적 기반

□ 지식공유 플랫폼은 초기 구축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식 변화와 결정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제1세부과제를 통해 본 연구는 인문학적 지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지식공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 관리자와 시민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한 담론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문학의 의미와 가치의 새로운 존재 방식
-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공유의 필요성
- 인문학적 지식의 공동생산과 지식공유의 관계
- 다성적 이야기로서의 인문학적 지식과 그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시민과 인문학자 간 공동작업의 가능성

#### 5.1.1. 서론

2018년 4월 문헌정보학분야 학회들의 오픈액세스 출판 선언과 함께 시작한 국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운동은 이듬해 결성된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연대’(이하 지식공유연대)의 오픈액세스 운동으로 이어졌다. 결성 이후 지식공유연대는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한 국가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비판하고, 소속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실천하며,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오픈액세스 운동을 전개해왔다.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지식 공유 방안을 검토하는 본 연구는 그동안 (전문가로서의) 연구자가 중심이 된 오픈액세스 운동을 변형하고 확장함으로써 시민이 지식 공유 실천의 주체가 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오늘날 오픈액세스가 왜 운동의 과제로서 제기되는지를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의 양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사회적 생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식의 인클로저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특히 학술지식의 인클로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학술지식 중에서도 특히 인문지식의 오픈액세스가 필요한 이유를 인문학자와 시민에 의한 인문지식 공동생산이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공동생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에서 지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 5.1.2.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에서 지식의 의미

#### 5.1.2.1 비물질적 생산수단으로서의 지식

인지자본주의, 지식기반경제 등으로 불리는 오늘날의 경제체제에서 지식과 정보, 데이터 등은 사회적 생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지식은 사회적 생산을 위한 수단, 즉 생산수단이다. 사실 이미 지식은 생산수단 중 하나인, 고정자본으로서의 기계발전의 토대였다. 다시 말해 생산수단 발전의 원천으로서 지식은 본래 생산수단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이와 달리 오늘날 지식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핵심적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에는 지식·정보·데이터·코드·이미지·아이디어와 같은 비물질적 생산수단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이 비물질적 생산수단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비물질적 생산’의 경향을 가지는 이유이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이 비물질적 생산의 ‘경향’을 가진다는 것은 1차 산업, 2차 산업 같은 전통적인 물질적 생산이 오늘날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생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예컨대 스마트폰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물질적 생산수단에 의하여 물질적 생산도 변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기반경제와 같은 개념은 비물질적 생산의 경향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을 특징짓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물질적 생산으로의 변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후 비물질적 생산은 사회적 생산 전체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대량생산공장에 도입된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컴퓨터화 그리고 이에 뒤따랐던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혁명이 노동 자체의 성격을 변화 시켰다.<sup>1)</sup> 이 변화는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 양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네그리 외 1997, 158쪽; 박서현 2012, 226쪽 참조.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네그리에 따르면 자동화와 컴퓨



먼저 시간적 측면에서 노동시간과 삶의 구분이 경향적으로 점점 더 흐려지게 됐다. 비물질적 생산의 경향 속에서 지식이 생산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결과, 생산물이기도 할 때—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의 구분에 입각하여—사회적 필요노동을 중심으로 생산된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법칙은 위기에 빠진다. 가치법칙의 위기는 비물질적 생산물인 지식이 무한히 복제가능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기 있는 앱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생산비용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앱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데 들인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비물질적 생산에서는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 나아가 여가시간의 구분이 점점 더 흐릿해지는, 노동시간과 삶시간이 겹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sup>2)</sup>

공간적 측면에서 비물질적 생산은 사회적 생산의 중심을 대량생산공장에서 사회 자체로, 혹은 도시 자체로 이동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경향'이 무엇인지 확인하자. 맑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던 19세기 후반 영국 인구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그러나 맑스는 농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자본론』을 집필하지 않았다. 오히려 맑스는 막 태동하여 점점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던 대공업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분석했다. 그것은 대공업의 생산주기에 농업생산이 종속되는 식으로, 사회적 생산에 있어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힘을 '경향적으로' 독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대량생산공장이 사회적 생산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물질적 생산의 핵심적 장소는—대량생산공장이 아니라—온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 생산의 주체들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도시가 비물질적 생산의 핵심적 장소로서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도시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생산의 산물들과, 나아가 사회적 생산의 장소인 도시 자체를 누가 전유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핵심적 이유이다.

#### 5.1.2.2 지식 커먼즈의 수탈과 재전유를 둘러싼 싸움

위 문제는 도시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수단이자 생산물인 지식 자체를 누가 전유할 것이며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비물질적 생산에서 핵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터화는 개인적·대중적 노동거부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었다.

2) 이것이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삶시간이 겹치게 될 때, 노동과 삶이 겹치게 될 때 투쟁의 초점은 노동의 안정성이 아닌 삶의 안정성, 즉 삶 자체의 안정적 재생산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지식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비물질적 생산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식은 생산적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 ‘커먼즈’(commons)이다. 사회적 협력의 수단이자 결과인 지식이 커먼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지식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커먼즈로서의 지식, 지식 커먼즈의 자유로운 공유와 배타적 전유를 둘러싼 싸움이 비물질적 생산의 핵심적 문제로 제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 커먼즈의 자유로운 공유가 사회적 실천의 과제로서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지식이 단순히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게 체화된 채로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산수단으로서의 지식이 주체에게 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력은 직접적으로 주체적이라는 점에서 비물질적 생산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생산력은 모두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을 체화한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을 통해 지식 커먼즈가 혹은—지식 커먼즈의 주체적 성격을 주목한다면—‘일반지성’(general intellect)<sup>3)</sup>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동시에 배타적 전유, 인클로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통의 부’로서의 지식 커먼즈의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지식기반경제는 지식 커먼즈의 수탈과 재전유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 커먼즈의 수탈은 일반지성의 심화와 확대를 가로막는 것이며—지식이 생산적 주체에 체화되는 한에서—주체,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을 사용하는 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과 지식을 체화한 주체들—자본의 관점에서는 인적자본—의 발전이 없다면 지식기반경제는 지속될 수 없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자본이 모순적 위치에 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식을 생산수단으로 사용하여 다시금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활동의 확대가 자본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본은 생산활동의 결과를 수탈함으로써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생산 확대의 족쇄가 된다. 생산된 지식, 공통의 부가 새로운 생산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데, 공통의 부의 자유로운 공유를 가로막음으로써 사회적 생산 자체의 확대를 가로막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협력을 통해 생산된 부를 수탈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자본이 오늘날 처해 있는 모순적 위치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학술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가로막음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학술논문 유통업체인 상용DB업체가 바로 이 모순적 위치

3) 맑스 2000, 382.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맑스는 증기기관이나 컨베이어벨트가 인간의 손으로 창출된 인간 두뇌의 기관이자 대상화된 지력으로서 ‘일반지성’의 표현물이라고 말한다. 비물질적 생산은 지식을 체화한 주체들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지식 커먼즈, 일반지성이 생산되고 다시금 주체들에 체화됨으로써, 일반지성을 대상화—즉 ‘객체화’—된 지력이 아닌 직접적으로 ‘주체적인’ 지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자본 중 하나이다.

### 5.1.2.3. 지식에 대한 인클로저 수단으로서의 저작권과 학술지식의 상품화

저작권과 특허권, 지적 재산권 등이 지식에 대한 인클로저의 수단이다. 물론 저작권이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아울러 새로운 지식 생산에 저자가 기여한 부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이 협력적으로 생산된 공통의 부로서의 지식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기반이 됨으로써 공통의 부를 수탈하고 사회적 협력의 심화와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저작권에 입각한 공통의 부의 수탈이 오늘날의 자본의 자기 증식 방편 중 하나라는 점이다. 오늘날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의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특히 지식에 대한 인클로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저작권에 입각하여 지식을 사적 소유의 대상인 상품이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 일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술논문, 학술보고서와 같은 학술지식도 그 예외가 아니다. 즉 지식 일반과 마찬가지로 학술지식도 상품화, 자산화되어왔다.

학술지식의 상품화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계기는 해외 거대 출판사들의 학술지 시장 장악과 그에 따른 학술지 구독료 상승이었다. 엘스비어(Elsevier), 스프링거(Springer), 톰슨 로이터(Thompson Reuters) 같은 거대 출판사들은 본래 인쇄본 학술지를 출판하여 대학도서관 등에 공급해왔다. 그런데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달은 인쇄본 학술지를 출판하는 대신 PDF 같은 디지털 출판물 형태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식으로 출판문화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도 인쇄본 학술지를 구독하는 대신 거대 출판사가 발행하는 디지털 출판물 형태의 학술지를 패키지로 구독하는 식으로 구독방식이 변화됐다.

인쇄본 학술지 게재 논문과 디지털 출판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논문은 경제학적 의미의 재화 분류에 비춰보더라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sup>4)</sup> 전자는 원리적으로는 누군가가 사용할 경우 다른 누군가의 사용을 배제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용분이 감소할 수도 있

#### 4) 자원의 분류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경합 (감소)	사유재(private goods) PC, 도넛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 도서관, 관개시스템
비경합 (비감소)	회원재(club goods) 신문 구독, 놀이방, 탁아 시설	공공재 또는 공개재(public goods) 유익한 지식, 석양

오스트롬 외 2010, 35쪽; 최현 2016, 27쪽 참조.

는 재화이다. 물론 도서관이 이와 같은 사유재로서 학술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최근 학술지의 경우 대여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고 복사만 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학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을 금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PDF 같은 디지털 출판물 형태의 논문은 원리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누군가의 사용분이 감소하지도 않는 재화이다.

사실 디지털 출판물 형태의 논문은 비배제적·비감소적 재화일 뿐 아니라 더 많이 더 널리 사용될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출판물 형태의 논문이 비배제적이고 비감소적인 경제학적 의미의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논문의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하다.<sup>5)</sup>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바탕으로 하여 출판사가 그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막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작권이 학술지식에 대한 인클로저의 핵심적 수단이었던 이유였다.

물론 해외에서만 학술지식에 대한 인클로저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저작권을 수단으로 학술지식에 대한 인클로저가 진행된 것은 국내도 마찬가지였다. 국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였다. 그리고 채 10년도 되지 않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학술지 게재 논문들이 온라인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을 수단으로 학술지식에 대한 인클로저가 진행된 것은 한국 역시 해외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외와는 다른 방식으로 학술지 출판·유통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도 상이하게 전개됐다.

해외에서는 거대 출판사가 학술지의 출판을 포함한 유통, 아카이빙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던 반면 국내에서는 학회가 학술지를 출판하고 유통은 누리미디어나 한국학술정보 같은 상용DB 업체의 학술논문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 달리 말해 디비피아(DBpia)와 같은 학술논문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용DB업체는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아닌) 학술논문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와 국내의 학술지 출판·유통 방식의 차이는 학술지의 출판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내 학술논문 유통업체 플랫폼에서 논문이 '상품'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즉 학술논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로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 수단이 다름 아닌 저작권이었다. 사실 국내 학술지들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심지어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

5) 실제로 거대 출판사는 디지털 출판물 형태 학술지들에 패키지 구독을 대학 도서관에 요구했다. 구독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미 1990년대 후반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학술지 구독이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운동이 일어난 배경이었다.

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 규정이 강화되었고, 특히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저자에게 요구하는 학회들이 늘어나게 됐다.

논문 저자들은 소속 학회 발행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해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학회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저자에게 요구했던 것은 실은 학회와 유통 계약을 맺은 상용DB업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상용DB업체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학회와 학회 출판 학술지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상용DB업체의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혹은—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을 근거로—대학 도서관과 구독료 협상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학회는 상용DB업체로부터 배타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보상은 학회 운영에 도움이 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은 저작권의 양도가 학술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가로막는 장애와 같은 것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 5.1.3. 학술지식 오픈액세스의 필요

#### 5.1.3.1 연구자들의 자율적 협력과 학술지식의 공공성

저작권을 통해 학술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가로막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상용DB업체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자본이 처한 모순적 위치를 잘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수익 창출을 통한 자기 증식을 위하여 지식에 대한 인클로저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술지식 생산의 확대가 상용DB업체의 자기 증식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학술지식의 생산이 무엇보다 더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들 즉 연구자들의 자율적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작업과 같은 직접적 협력과, 생산되는 지식의 질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동료평가에서 지식의 공동생산을 위한 연구자들의 자율적 협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생산된 지식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연구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통의 부, 커먼즈로서 연구자들은 공통의 부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연구를 통해 그것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는 다시금 새로운 공통의 부로서 향후 더 나아간 연구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공통의 부의 자유로운 공유를 가로막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상용DB업체는—과거에 자본이 해오던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은 채—연구자들의 자율적 협력을 통해 생산된 사회적 부를 수탈한다. 이것이 논문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환경을 조성해야하

는 우선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상용DB업체와 구독료 협상을 체결한) 대학 도서관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학술논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논문을 마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소속 대학이 상용DB업체에 구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흡사 무료인 양 논문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들의 경우 학술지식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 연구자의 경우 연구를 위해 학술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학술지식이 연구자들이 협력적으로 생산하는 공통의 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소속 여부를 떠나 공통의 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달리 말해 독립 연구자도 공통의 부를 생산하는 데 기여해왔을 뿐 아니라 공통의 부의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이를 더 확대하고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논문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학술지식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예술 등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서 해당 분야의 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건강한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학술지식이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학술지식이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공유를 통해 새로이 생산되는 지식의 질이 심화되고 양이 확대되어 지식의 공공성을 더 키워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학술지식의 혜택을 연구자와 시민이 누려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술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연구자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사회의 변화,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연구자들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학술지식의 성격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술지식의 오픈엑세스는 인문학만이 아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전체 학술지식에 해당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픈엑세스가 인문학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자.

### 5.1.3.2 인문학 지식공유의 의미

인문학은 문학과 역사, 철학 등 인간의 정서·활동·정신의 표현·기록·분석으로서, 인간의 문화와 인간 자신에 대한 비판적·체계적 앎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문학 역시—다른 학술지식과 마찬가지로—연구자들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심화되고 확대되는 앎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는 인문학자들의 연구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인문지식이 인간 자신과 인간이 속해 있는 문화·역사·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이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문지식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우리 자신의 자기 변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인문학자만이 아닌 일반 시민도 인문학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지식이 상용DB업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될 때 인문학은 일종의 지식 상품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익이 시민이 인문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문학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민의 자기 성찰, 자기 변화의 토대가 되는 인문학의 가치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성찰과 변화가 예컨대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기초가 되고 이로부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의 토대를 다시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의 가치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폐적 가치를 넘어서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이 단기적 이윤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역사를, 세계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이해해온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지식은 직접적 효용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근본적 의미의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문지식의 공공성 즉 인문학이 시민의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의 토대가 됨으로써 시민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인문지식이—다른 학술지식과 마찬가지로—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사용분이 감소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의 사용을 배제하지도 않는 경제학적 의미의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점, 결국 인문지식이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라는 점이 그것이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문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는 인문학자들의 사회적 협력을 통한 새로운 인문지식 생산의 심화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심화와 확대는 인문지식의 공공성의 심화와 확대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1.4. 국내 인문사회분야 오픈액세스의 역사와 과제

##### 5.1.4.1 국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운동의 역사

이와 같이 인문지식의 자유로운 공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유가 실제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문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막는, 정반대의 경향이 우세했다고 말하더

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전술했듯 국내 학술논문 유통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해온 몇몇 상용DB업체에 의해 학술논문이 상업적으로 유통되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학술논문 유통 서비스를 시작한 상용DB업체들은 초기 판촉을 위해 중소규모 대학 도서관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혹은 무료로 논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상용DB 업체는 논문이 대학 도서관에서 필수자원이 되었을 때 구독료를 올렸다. 이로 인해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소규모 대학 도서관에서 상용DB업체가 제공하는 학술정보 서비스를 구독하기 어려워졌다.<sup>6)</sup> 이후 대학 도서관과 상용DB업체 사이의 구독료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구독료 인상으로 인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에서도 상용DB업체들이 제공하는 학술정보 플랫폼 사용이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6년에 서울대·경희대·부산대 등에서 누리미디어가 제공하는 400여종의 학술지의 구독을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대신 제공하는 학술지 수가 적은 서비스로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누리미디어와 계약 자체를 종료했다.<sup>7)</sup> 그리고 201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컨소시엄과 누리미디어·한국학술정보의 공동구매 구독료 협상이 결렬되어 재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sup>8)</sup> 또한 2019년 초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누리미디어 사이의 구독료 협상이 결렬되어 2020년 초까지 대략 1년간 전국 10개의 국공립대학에서 디비피아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국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국내 오픈액세스 실천은 이미 2000년대 후반 의학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의학분야의 경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설립되어 Korea Med Synapse라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의학분야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실천해오고 있다. 하지만 의학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학회들이 다수 존재하는 인문사회분야에서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오픈액세스 운동은 2018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4월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을 포함하는 문헌정보학분야 학회들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을 발표했다.<sup>9)</sup>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들은 발행 학술지들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에 성공했다. 2019년 8월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들을 포함하여 한국고전문학회·한국여성문학학회 등 주로 국어국문학 분야의 학회들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자의 집, 인문학협동조합, 문화/과학 등 진보적 학술단체들이 지식공유연대를 결성했다. 결성

6) 정경희 2008, 379쪽 참조.

7) 최예린 2016; 황순민 2016 참조.

8) 최성희 2018 참조.

9)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외 2018 참조.



이후 지식공유연대는 소속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들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에 성공하는 동시에 인문사회분야 오픈액세스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지식공유연대가 주도하는 인문사회분야 오픈액세스 운동은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넘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지식 공유 방식에 대한 모색과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형되고 확장된 새로운 오픈액세스의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식 오픈액세스와 관련하여 연구재단 즉 국가가 주도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1.4.2 연구재단 주도 오픈액세스 정책의 의의와 한계

오픈액세스 운동의 시작을 알린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선언에서는 오픈액세스를 모든 이용자가 동료 심사제 학술지(peer reviewed journal)에 수록된 논문이나 아직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출판 전 논문(pre-print)을 경제적·법적·기술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검색해 읽고, 인쇄하거나 내려 받고 색인 작업을 위해 링크를 거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무료 이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오픈액세스를 실천하기 위한 두 가지 보완적 전략으로 셀프아카이빙(그린 오픈액세스 모델)과 오픈액세스 학술지(골드 오픈액세스 모델)를 제안하고 있다.<sup>10)</sup>

골드 오픈액세스 모델과 그린 오픈액세스 모델에 비춰보면 연구재단이 재단의 홈페이지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재단 등재학술지의 원문 공개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sup>11)</sup>을 오픈액세스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오픈액세스를 논문 출판을 전후하여 원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무료로 이용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연구재단의 위 정책을 오픈액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 Chan et al, 2002 참조.

11) 이 정책은 2010년에 시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처리규정 34조는 공적 자금이 지원된 연구성과의 이용·확산 및 활용에 대한 것인데(교육부 학술진흥과 2018 참조) 처리규정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공적 자금이 지원된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활동 결과물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34조 2항)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34조 3항). 처리규정은 학술활동 결과물을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즉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적 수준(예: A&HCI, SSCI, SCI(E), Scopus 등)학술지, (전문)학술저서로 제시하고 있다(30조 2항). 연구재단은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처리규정이 지정한 전문기관이다(9조). 정리하면, 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에서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것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연구재단의 홈페이지가 바로 KCI이다(박서현 2020, 13-14 참조).

KCI에 원문 공개를 유도하는 연구재단의 정책은 재단이 실시하는 학술지 등재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 31일 공고된 ‘2021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에 따르면 정량평가에서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은 정량평가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다.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에서 중요한 것은 논문 원문이 학회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지의 여부이다. 특기할 것은 학회가 KCI에 원문공개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문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sup>12)</sup> 물론 이는 재단이 학술지 등재제도를 통해서 KCI에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원문 공개를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한국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초의 국공립대학교서관협의회와 누리미디어 사이의 구독료 협상 결렬도 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에서 이용해온 누리미디어의 자료는 누리미디어가 제공하는 2200여종의 학술지 중 800여종이었다. 이 800여종의 학술지에 최근 3년 이내 실린 논문의 90% 정도를 KCI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sup>14)</sup> 이것이 국공립대학교서관협의회와 누리미디어의 구독료 인상을 협상이 결렬되는 배경이 되었다. KCI가 불

12) 2021년도 학술지평가 재인증·계속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항목	배점
신청 자격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P/F
	2. 논문당 심사위원수	P/F
	3. 연구윤리	P/F
	4. 논문 투고 다양성	P/F
	5.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조건부 P/F
체계 평가 (정량)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2.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KCI 등록포함)	13
	3. 논문게재율	5
	4. 편집위원장의 안정성	4
	5. 인용지수	4
	5개 항목	30
내용 평가 (정성)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2.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15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10
	4.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15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5
	6.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6개 항목	70
	(가점) 학문분야 특수성의 학술적 가치	최대 3점
계	100	

한국연구재단 2021, 26쪽.

2021년도 학술지평가 재인증·계속평가 평가항목 중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평가기준

충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미디어의 디비피아에 대한 대안이 되었던 것이다.<sup>15)</sup>

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점점 더 많은 논문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전문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 공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시민도 KCI에 원문이 공개된 논문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접근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이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부재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5.1.4.3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인문학 지식 공유의 필요

먼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보기로 하자. 인문학의 최근 화두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이해는, 인문학 공동체가 현재 주안점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확인에 입각

점수	평가기준
13	①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②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원문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1	③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분 이상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9	④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분 이상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7	⑤ 원문이 외부기관(영리업체 포함)을 통해 최근 3년분 이상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6	⑥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분 이상 유상으로 제공될 경우
5	⑦ 원문이 외부기관(영리업체 포함)을 통해 최근 3년분 이상 유상으로 제공될 경우
3	⑧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외부기관(영리업체 포함)을 통해 최근 1년 ~ 2년분이 유·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⑨ 초록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외부기관(영리업체 포함)을 통해 최근 1년 ~ 2년분이 유·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⑩ 학술지를 국회도서관 등 납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0	⑪ 원문 또는 초록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외부기관(영리업체 포함)을 통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2021, 40쪽.

13) 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2009년 4월 연구재단의 전신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은 국내 학회에 ‘학술지 게재논문 원문서비스 여부 검토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학진에서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상용DB 업체들은 학진이 학회를 평가·관리·지원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사업을 말살하려고 한다면 맹렬히 반대했다. 상용DB업체의 반대와 학진의 연구재단으로의 통합 등의 이유로 당시 학술논문 오픈액세스를 추진하려했던 학진의 시도는 무산되고 만다(우지숙 외 2010, 223~224쪽; 박서현 2020, 15쪽 참조). 이후 연구재단은 등재제도 학술지 평가항목에 학회 홈페이지에 원문을 공개하거나 KCI에 원문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오픈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14) 김해건 2019 참조.

15) 박서현 2020, 17쪽 참조.

하여 인문지식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화두에 비춰서 시민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 시민에게 이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 지식 공유가 가능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의 여부 이전에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연구재단의 오픈엑세스 정책이 지식 공유의 범위를 은연중에 전문적인 연구자 즉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한다면 재단의 정책에서 학술지식 특히 인문지식의 자유로운 공유가 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는 힘들다.<sup>16)</sup> 그런데 인문학의 공공성 즉 인문학이 시민의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의 토대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한다면, 시민의 욕구·필요에 부응할 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물음을 제기하는 시민의 역량이 발전할 수 있는, 인문학 지식 공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인문학 지식 공유의 필요는 다름 아닌 '인문학'의 특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역사, 철학이 우리 자신의 정서·활동·정신의 표현·기록·분석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은 우리에게 제기되고 우리 스스로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적 성찰은 전문가로서의 인문학자가 전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으며 또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향유와 배움을 통해서 시민들은 인문학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를, 역사를, 문화를 새로운 문제들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 자신의 삶을 새로이 성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 공동체 안에서 인문지식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그에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인문학적 '체험'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색이 중요한 것은 인문학자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시민들과 무관한 어떤 무엇이나 아니라 인문학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인문학자와 함께 저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민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체험이 필요

16) 이러한 고려의 부재는 등재학술지 게재 기준에 맞춰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식이 생산되고 이러한 지식이 순환하는 현재의 학술생태계의 부정적 일면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부재는 사회에 대한 학술지식, 특히 인문학의 기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속에서 시민의 욕구·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 공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은 부재한 채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식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현재의 지식 생산·공유 문화의 부정적 일면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이 문제가 연구재단의 오픈엑세스 정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년 전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다페스트 오픈엑세스 선언에서 제시되는 오픈엑세스 규정에서도 오픈엑세스는 전문가의 운동이자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시민의 욕구·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문학 지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최근 화두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에 입각하여 시민들이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분석·연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축적하며 공유하는 새로운 지식 공유가, 나아가 이러한 표현·축적·공유를 통해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지식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지식 공유의 전제는 시민이 이미 출판된 논문, 이미 생산된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을 인문학의 최근 화두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현하며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존재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지식 공유의 전제이다. 시민들이 그들 자신에게도 중요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문학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공동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점, 그리하여 시민이 인문지식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식 공유는 시민과 인문학자에 의한, 지식의 공동생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철학적 문제가 탁월한 사상가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자신에게도 중요할 수 있는, 시민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제기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인문학 지식 공유가 필요하다. 인문학의 최근 화두를 중심으로 시민과 인문학자의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문제제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공유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시민의 문제제기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과 관련하여 인문지식을 공동 생산하는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는 인문학자와 시민에 의한 인문지식 공동생산의 작동방식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기존 논의를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요약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논문과 같은 선형적 글쓰기와는 달리 비선형적 글쓰기, 의미의 망을 만드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예컨대 위키피디아와 유사하게 원문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논문의 키워드를 인터넷상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에 링크를 걸거나 논문의 키워드의 의미와 쓰임이 다른 논문에서는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보여주는 등의

17) 아날로그 환경의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 차이

	아날로그 환경의 글쓰기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
글쓰기의 성격	선형적/맥락적 글쓰기	비선형적/조합적 글쓰기
발신자의 역할	완성된 정보 발신	미완성의 의미 발신
수신자의 역할	발신 정보의 정확한 수신	자신의 맥락에서 정보의 재구성
의미의 형태	고정적	플랫폼화(가변적)
의미의 완결성	완결성	가변성 및 조합·확장 가능성
논리 구조	직선	모자이크, 망
작업의 형식	개인 작업	공동 작업

김지선 외 2021, 374쪽.

의미망을 만드는 비선형적 글쓰기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인문학자와 시민에 의한 인문지식의 공동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지식이 본래 사회적 협력, 공동생산의 산물임을 상기한다면 위와 같은 글쓰기는 인문 지식 생산에 있어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자 인문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시민이 인문지식의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 공유는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문지식 생산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전통적인 인문 지식 생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는 것, 나아가 인문지식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 5.1.5.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 공유의 과제

#### 5.1.5.1 디지털 인문학 문해력 증진

시민이 인문지식의 공동생산에 참여하려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만이 아닌 인문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울러 인문학적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고 이러한 물음제기로부터 스스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역량은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진 인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시금 새로운 디지털 인문지식을 구현하는 ‘디지털 인문학 문해력’(digital humanities literacy)이다.

물론, 이러한 문해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의 적으로 오픈액세스 자체는 확대되고 있으며<sup>18)</sup> 특히 국내에서는 2021년 8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이 ‘오픈액세스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오픈액세스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도 전문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오픈액세스를 넘어서는 지식 공유에 대한 내용까지 담기지는 않았다.<sup>19)</sup>

중요한 것은 인문지식의 공동생산을 위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새로운 지식 공유가 현실적

18) 예컨대 해외에서는 본래 2020년까지 참여 기구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술 출판물을 오픈액세스 학술지나 오픈액세스 플랫폼에서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Plan S에 대한 논의가 2018년 9월 시작되었다. 영국 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프랑스 국립연구센터(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 등이 참여하는 Plan S를 거친 논문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출판 논문의 3.5%에 해당한다(Dodds, 2019, 349쪽 참조).

19) 이현건 2021 참조.

의 오픈액세스 운동의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 과제는 무엇보다 더 최근 유네스코에서 그 권고안이 채택된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의 이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학술 지식을 모두에게 개방하여 학술 협력을 증진하고 그 혜택을 시민이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사이언스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시민이 지식의 공동생산에 참여하고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sup>21)</sup>

문제는 시민이 어떻게 지식의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아울러 시민의 문해력이 증진되지 않는다면 지식의 민주화는 결코 가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의 문해력을 증진하는 정책과 시민이 지식의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1.5.2 새로운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은 원문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공함으로써 2차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플랫폼은 원문과 함께 유사논문이나 인용지수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예컨대 특정 분야의 특정 시기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 화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아울러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링크 작업, 색인 작업을 통해 논문들에 대한 입체적 이해와 함께 지식의 공동생산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공동생산은 링크 페이지, 색인 페이지와 같은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축적하고 공유하는, 그 자체 지식 축적, 지식 공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 생산의 과정이 동시에 지식 축적의 과정이자 공유의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식의 공동생산이자 공유의 플랫폼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인문학 지식 공유 플랫폼은 위키피디아의 운영 원리, 운영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시민 모두가 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에 관한 규칙이 존

20)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안'이 논의된 이후 권고안이 2021년 11월 개최된 제41차 총회에서 채택됐다.

21) UNESCO 2021, 2-3쪽; 신은정 외 2021, 50쪽; 박서현 2021, 54-55쪽, 61쪽 참조. 오픈사이언스의 견지에서 오픈액세스는 오픈사이언스의 일환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가 없다면 지식 개방을 통해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한다.<sup>22)</sup> 그리고 이러한 규칙에 입각하여 페이지가 업데이트됨으로써 지식이 더 심화되고 확대된 형태로 생산될 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고 공유된다. 업데이트는 특정 개념이나 사건, 인물에 대한 전체적 정보만이 아닌 예컨대 특정 인물의 일대기 안에 등장하는 세부 인물들에 대한 정보, 특정 인물이 교육받은 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은 데이터로 전환된 논문의 원문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는 위키피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구현함으로써 지식의 2차, 3차, 4차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논문에 등장하는 개념이나 사건, 인물의 정보를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연결시킴으로써 논문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서 원문의 특정 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독립적 페이지를 구성하는 활동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하는 논문들의 경우 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 22) 위키피디아의 다섯 원칙

###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입니다.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항목은 다른 백과사전이나 전문 사전, 혹은 연감 등에 실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단순한 정보를 쌓아놓는 수집품은 아닙니다. 다른 책이나 자료의 내용 전체나 신문 기사, 선전이나 광고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위키백과는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글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글에는 다수 의견과 고려될 가치가 있는 소수 의견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위키백과의 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BY-SA) 3.0에 따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CC-BY-SA 3.0과 호환되지 않는 문서를 위키백과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 위키백과에서는 다른 사용자를 존중합니다.



비록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위키백과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다른 사용자를 공격하거나, 싸잡아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 편집이 치열할수록 더 냉정해지세요. 필요 없는 편집 전쟁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손보고 의견을 나눠야 할 569,044개의 글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포용합시다.

### 위키백과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다섯 원칙 말고 다른 규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문서의 내용을 고치고, 옮기고, 바꾸셔도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서의 이전 판은 모두 보존되어 있으므로 실수로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쓴 내용 역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지선 외 2021, 387쪽; 위키백과 2019.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이에 대해 논평하면서 관심이 같은 시민들이 소통을 이어가고 축적하는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공동생산은 논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시각의 표현이자, 바람직하게는 시민들 사이의 소통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정리하면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은 원문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동시에 데이터 큐레이션(Data Curation)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큐레이션은 새로운 연구 물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데이터의 접근 환경을 구성하는 데이터 조합이자 보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25)</sup> 지식의 공동생산에의 시민 참여는 이와 같은 큐레이션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데이터 큐레이션이 구현되는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과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1.5.3 커먼즈와 국가의 협력체계 구성

이처럼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시금 위키피디아의 운영 원리, 운영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이 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히 재원이 있다고 위키피디아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자율적 협력이 위키피디아가 발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형태로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그것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플랫폼의 운영은 연구자가 중심이 되고 시민이 협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중심이 되고 시민이 협력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플랫폼의 운영을 위한 연구자와 시민 그리고 국가의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연구자와 시민으로 이루어진 커먼즈와 국가의 협력(public-commons partnership)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경계할 것은 이러한 플랫폼이 일단 한 번

23)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은 아마도 전문가들이 모여 구축한 연구사업의 결과물로서의 위키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마추어 지식인들이 구축한 위키(김지선 외 2021, 391쪽 참조) 중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마추어 지식인들이 구축한 위키에 좀 더 가까운 위키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자가 출판한 논문들이 토대가 되고 이 논문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2차적으로 생산한 페이지들이 축적되고 공유되는 형태로 인문학 지식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말이다. 인문학 지식 공유 플랫폼은 위키피디아와 함께 지식의 공동생산과 축적, 공유를 구현하는 지식 커먼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지식의 공동생산이 시민들 사이의 소통의 축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소통의 과정 속에서 원문의 의미 등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윤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25) 홍정욱 2015, 57 참조.

구축되면 충분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사실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구축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형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을 예컨대 2년간은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수정하며, 5년째 정식 플랫폼을 오픈하지만 다시금 계속해서 연구자와 시민에게 피드백을 받아 플랫폼을 수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한 것은 새로운 오픈액세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곧장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커먼즈와 국가의 협력체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물론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오픈액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거버넌스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공동생산하면서 새로운 지식 생산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필요와 욕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 5.1.5.4 저작권 문제의 해소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인문학자가 출판한 논문이 지식의 공동생산의 토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논문 저작권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논문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논문에 나오는 개념·사건·인물 등에 대해 링크를 거는 것부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논문을 활용하여 2차적으로 생산한 페이지들이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에 축적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원리적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가 존재한다. CC BY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표시할 경우 2차 저작물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며 CC BY-NC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표시할 경우 2차 저작물을 허용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고, CC BY-SA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표시할 경우 2차 저작물을 허용하지만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나 그보다 이용허락 범위가 넓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며, CC-BY-NC-SA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표시할 경우 2차 저작물을 허용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나 그보다 이용허락 범위가 넓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다. 달리 말해 CC BY나 CC BY-NC, CC BY-SA, CC BY-NC-SA 라이선스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sup>26)</sup>

물론 원리적 차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적으로는 확인했듯 인문사회분야 학회에서 논문 저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관행은 학술지 게재 논문이 상용DB업체 플랫폼에서 상품으로 팔리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서, 논문 저자가 그런 오픈액세스 즉 디지털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논문을 셀프아카이빙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 관행이 철폐될 필요가 있으며, 상용DB업체가 지급하여 학회 운영에 활용하는 저작권료 수입을 연구재단이 보조하는 식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예컨대 저작자를 표시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는 CC BY-NC-ND 라이선스를 사용함으로써 논문을 오픈액세스화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하역금 CCL 중 하나를 적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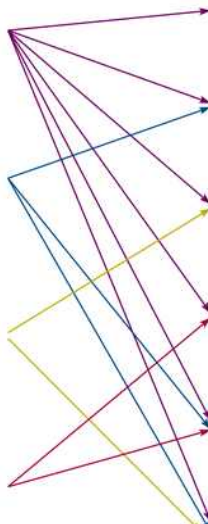
2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용허락조건 (4 종류)

-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거나 다른 창작물에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  내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를 붙여야 합니다.

CC 라이선스 (6 종류)

-  저작자 표시 (CC BY)
-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CC 라이선스.

영리 목적으로 2차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개방성(openness)의 원리가 이전 연구에만 적용될 경우 이후에 생산되는 지식을 사적 소유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Bloemen, et al, 2015, 17쪽 참조).

게 하고 저자가 논문을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셀프아카이빙함으로써 오픈액세스를 실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저작권의 양도 자체가 아니라 학술지식에 대한 오픈액세스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존재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문화가 오픈액세스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픈액세스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학회에서 저작권을 양도받되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발행함으로써 저자를 포함한 누구나가 논문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 공유 방안은 논문의 원문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 생산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식이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지식도 어떤 저자의 순수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생산되지 않는다. 공통의 부로서의 기존 지식에 힘입어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덧붙임으로써 공통의 부를 확장시키는 것이 지식 생산의 과정이다. 달리 말해 기존 지식, 공통의 부에 힘입지 않고 생산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저자가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로 인하여 저작권을 저자가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과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소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학문의 공동체가 형성한 기존의 지식, 공통의 부에 입각하여 확대되고 심화되는 새로운 공통의 부라면, 공통의 부의 발전에 대한 저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포함하는 공통의 부의 소유 자체를 학문의 공동체의 것으로 할 수는 없을까? 학술지식 중에서도 특히 인문지식, 논문 형태로 출판된 인문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연구자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진단이 타당하다면 인문학 논문에 대한 저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시민에 의한 2차적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지식에 대한 소유는 (이제 시민까지 포함한) 연구자-시민 공동체 전체가 가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저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식의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시민의 기여도 인정하지만 지식 생산물에 대한 권리는 연구자-시민 공동체가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식으로, 지식 생산물을 커먼즈로 만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이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저자의 기여에 대한 인정과 저작물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등치시키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논문의 원문을 자료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저작권의 문제가 비

로소—해결되는 것이 아니라—‘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저작권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학술지식 공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저작권 양도와 관련하여 다시 생각해본다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신 저자가 CCL 중 하나를 적용하게 하는 식으로 지식 공유 문제를 접근하는 것 역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의 기여에 대한 인정과 저작물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등치시키는 문화의 변혁이 그리고 이와 함께 지식의 공동생산을 위한 지식 공유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로의 변화가 선행해야 한다. 저자가 논문을 2차적·3차적·4차적 공동생산의 원천으로 사용되는 데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용이 시민과 사회에 대한 학술지식의 기여로 인정되는 문화가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논문 실적을 소위 업적으로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현재의 학술 평가 문화의 변혁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5.1.6. 결론

시민이 참여하는 인문학 지식 공유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저 이러한 플랫폼이 있다고 시민이 인문지식의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생산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인 디지털 인문학 문해력이 증진되지 않는다면 시민이 인문지식 공동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주체됨은 공동생산의 토대가 되는 논문이 자유롭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학술지식 공유 문화가 먼저 형성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나아가 새로운 지식 생산에서 저자가 행한 기여를 지식 생산물에 대한 소유의 권리로 받아들이는 문화의 변혁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변혁 속에서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커먼즈와 국가의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학술지식을 포함한) 지식의 인클로저를 통해, 사회적 협력으로 생산된 공통의 부, 커먼즈를 수탈하는 오늘날의 자본에 맞서 커먼즈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지키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 공유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일 것이다.

## 5.2 [제2세부과제] 지식공유 플랫폼과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

□ 제2세부과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술지식 오픈액세스 문제와 플랫폼의 문제를 연결하여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연구현장에서의 오픈액세스 문제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2절에서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에 기반해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한국 학술논문의 형식 및 유통 구조
-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 및 현행 정부·기관의 지원 검토
-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 : 오픈액세스 전환 및 학술정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 전주기 투고-출판 시스템 플랫폼, 학술 지식을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과 공유하는 플랫폼
-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 구축, 학회간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

### 5.2.1. 학술논문의 공공적 가치와 국내 학술지식 유통의 현실

학술지식은 특이성은 무엇보다 그것이 ‘공통의 부’라는 점에 있다. 연구자는 선행 학술 논의를 소화하고 기존의 논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논의를 제시하면서 연구자 공동체에 기여한다. 이 점에서 학술지식은 연구자 개인의 성과이기보다는 앞선 여러 연구자들이 구축한 학술지식의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과를 덧붙이는 ‘공통의 부’로서 공공성을 갖는다.<sup>27)</sup> 현재 한국의 학술지식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체제를 중심으로 일정한 제도적 체제에 근거하여 생산되고 있다. 학술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는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편집간사 등 다양한 주체와 학회, 연구재단 등 다양한 장치가 개입하며, 이 점에서 학술지식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인문사회 학술계는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제도적 기준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자발적 동의로 구조화되어 있다. 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제도적 근거는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가

27) 박서현 2020, 745쪽 참조.

시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술지식의 공공성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한국 학술계에서는 등재지 논문이 학술지식 유통의 단위로 공인받고 있으며, 그것이 업적 측정의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이 점에서 현재 한국 인문사회계 학술계에서 학술논문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인가, 나아가 현재의 논문 유통의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세부과제에는 이러한 한국 인문사회 학술계의 현실에 유의하면서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5.2.2.에서는 현행 학술지식 유통의 문제를 진단하며, 5.2.3.에서는 현재 학계의 중요한 이슈인 학술논문 오픈액세스와 정부기관의 지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5.2.4.에서는 앞선 고찰에 근거하여서, 연구자,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5.2.2.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

### 5.2.2.1.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

현재 한국 인문사회 학계는 논문을 중심으로 학술지식을 유통하고 있으며, 그 논문은 대부분 웹상에서 PDF 파일의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 본 세부과제에서는 현재 학술지식의 유통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이며(5.2.2.1), 또 하나는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이다(5.2.2.2.).

먼저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논문 파일은 학술지식 유통을 독과점한 몇몇 상용학술정보업체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료이자 제한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PDF 파일 중심의 학술지식 유통의 구조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시기에 구조화되었으며 당시 유통 구조의 변동은 몇몇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주도하였다. 웹환경에 익숙하지 못했던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그 스스로 학술논문의 웹서비스를 주도하기보다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매뉴얼과 계약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었다.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중심이 된 PDF 파일의 제한적 유통 구조를 한국연구재단 역시 추인하면서, 당시 구조화된 유통의 구조와 형식은 25년 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중심이 된 학술지식 유통 구조에서 논문 유통은 상용학술정보업체의 플랫폼이 유료로 독과점하고 있다. 학술지식이 유료로 유통되는 현재의 구조에서 업체가 과도한 이득을 가져가지만 학술지식의 생산자인 연구자는 실제 유통과정에서 소외되며, 결과적으로 학술지식은 공공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3-4년 사이 연구자 스스로 공공성을 갖추지 못하였던 그동안의 학술지식 유통을 성찰하면서 연구자 문화를 개혁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재인식하고 학술지식의 구체적인 단위인 학술논문 PDF 파일을 보다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엑세스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재단 및 공공기관 역시 오픈엑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그러한 움직임의 타당성을 인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 전환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학술지식 유통의 구조가 25년간 구조화되고 고착되면서, 연구자 스스로 대안적 학술지식 유통의 구조와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연구자들은 현재 학회가 상용학술정보업체에 논문을 제공하고, 상용업체로부터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는 구조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상용학술정보업체의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에서 학술지식을 유통하는 것이 가능한가, 플랫폼에서 PDF 파일의 형식 이외의 어떤 형식의 학술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나아가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연구자 이외에 어떤 주체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대안적 학술지식 유통의 구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현재의 구조와 다른 구조를 상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의 구조 외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인문사회 학회의 이사들은 특히나 그 이전까지 익숙한 상용학술정보업체가 구축한 학술지식의 유통 구조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sup>28)</sup> 학회 학술논문의 오픈엑세스 전환을 논의하면서 학회들은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제공하였던 저작권료를 포기하는 것과 상용학술정보업체의 논문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려하였다. 현재로서 학회는 저작권료를 포기할 경우, 선정률이 높지 못한 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 외에 별다른 지원의 방법이 없으며, 상용학술정보업체의 플랫폼을 포기할 경우 사용이 상당히 불편한 연구재단의 KCI 사이트 이외에 대안을 갖추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안 상상의 곤란이 현재의 구조 외부로 나아가는 두려움과 겹치면서, 학회들은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폐쇄적인 학술지식 유통구조에 머물고 있다.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주도하면서 구조화된 현재의 학술논문의 ‘유통’은 연구자를 소외하고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현재의 구조 외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자 문화를 구축하고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형성하는 데 지식공유 플랫폼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8) 박숙자 외 2021, 125.



## 5.2.2.2.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

다음으로 '학술논문'의 유통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재 학술지식은 기본적으로 '학술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제도 및 대학의 업적 평가 체제에서 논문을 기본적인 단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문은 기본적으로 인쇄본 학술지에 수록된 것을 전제로 한 글쓰기 형식이며, 선형적이고 완결적이며 일방에서 발신하는 형식의 지식이다. 그런데 학회는 대개 학술지 논문을 웹 플랫폼을 통해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술지식의 유통은 기본적으로 이미 웹환경의 유통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통환경은 온라인화 되었으나, 그곳에서 유통되는 학술지식의 형식이 여전히 '논문'인 상황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학술지 논문은 학술지 인쇄를 전제로 한 글쓰기로 공동의 부로서 학술지식의 공공성에 근거하되 한 사람의 혹은 몇 사람의 저자가 긴 시간 공들여 완결한 선형적인 글쓰기이며,<sup>29)</sup>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정은 그 글쓰기에 완결된 형식을 부여한다. 그리고 PDF 파일 형식은 완결된 논문을 편집 및 수정 불가능한 형식으로 고정하여 웹에 유통하는 것이다.

PDF 파일 중심의 학술논문 유통은 연구자와 시민의 역할과 위치를 고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의 구조에서 연구자는 학술지식의 생산 및 발신을 담당하며, 시민은 연구자가 이미 완성하여 생산한 학술논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읽는 소비 및 수용을 담당한다. PDF 파일 형식의 논문 유통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정하여, 학계의 지식이 시민사회와 선순환하는 것을 가로막고 다른 한 편 학계와 시민사회의 담론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된다.

이 점에서 현재의 '학술 논문' 중심의 학술지식 유통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다운로드'에서 시민의 '참여'로, 연구자가 '완결'한 지식의 '발신'에서 시민과 '협업'하는 지식의 '공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학술지식 생산 및 유통이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이 지향해야할 바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PDF 파일' 중심의 학술지식 유통에서 벗어나 '위키(Wiki)'를 활용하여 연구자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학술지식 유통의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정리되고 완결된 '지식'에서 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데이터'로 유통되는 학술지식의 성격을 진화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식의 진화와 변모는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상과 함께 모색해야할 과제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학술지식은 연구재단과 대학에서 논문 중심의 업적 평가 아래에서 생산 및 유통되고 있기

29) 정과리 1998. 177쪽; 김지선 외 2021, 374쪽.

때문이다. 논문만을 성과로 인정하는 현재의 보수적인 학술지식 유통은 새로운 학술적 형식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새로운 학술형식 유통 구조의 계발을 위해서는 연구자 문화의 개혁과 학계의 새로운 공론화와 승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새로운 지식공유플랫폼을 통해 그러한 지식 유통을 뒷받침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술지식의 ‘유통’(5.2.2.1.) 문제와 ‘학술지식’의 유통(5.2.2.2.)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이중 후자인 ‘학술지식’의 유통 문제는 제3세부과제 및 제4세부과제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제2세부과제에서는 학술지식의 ‘유통’ 문제를 오픈액세스 전환이라는 학계의 쟁점과 관련하여 검토하면서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 5.2.3.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 및 현행 정부·기관의 지원 검토

#### 5.2.3.1.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 및 그 쟁점

최근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재인식하고 연구자들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면서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발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계에서는 2019년 8월 29일 40여 개 학회와 독립 연구자들이 모여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선언하였으며 2020년 7월 17일 창립총회로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를 정식 발족하고,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통해 학술제도 개혁과 지식공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움직임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각종 평가지표에 오픈액세스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각 대학 도서관 등 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도 오픈액세스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각 학회 개별 역량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기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학회원의 지지와 다른 학회의 연대와 조연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학회는 학술지식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면서 학회원들의 동의와 지지에 근거하여 오픈액세스 전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회는 지식공유연대 등의 학회 연대 및 이미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같은 학술 분야의 학회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오픈액세스 전환을 격려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픈액세스 전환을 준비하는 학회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을 마주하게 된다. ① 오픈액세스 이후에도 안정적인 논문 제공이 가능한가, ②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제공하던 저작권 수입의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①의 문제는 지금까지 학술지식의 유통을 각 학회 스스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상용학술정보업체에서 전담했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학술논문을 웹에서 제공할 때, 파일 제공 외에 파일의 아카이빙, 메타데이터 정리, 파일의 안정적 제공 등이 함께 필요하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회는 이 업무를 모두 상용학술정보업체에 일임하였다. 학술지 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출판할 경우, 학회가 그 업무를 학회가 감당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학술정보의 제공 문제는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학회는 ①의 문제를 한국연구재단의 KCI 플랫폼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학회는 적지 않은 곤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구축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에는 학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②의 문제는 현재 인문학 및 사회과학 계열 학회들이 영세한 재정 상황 아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각 학회는 학술지 논문의 유통을 상용학술정보업체에 일임하고, 상용업체는 학술지 논문을 독과점하여 유통하여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학회에 저작권료로 지급하고 있다. 상용업체가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학회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따라서 학회가 학술지 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경우, 상용업체로부터 수령하던 저작권료가 사라지게 된다. 저작권료는 학회가 생산한 학술지식의 저작권에 대한 수입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용학술정보업체는 독과점 구조 위에서 학회의 지식이 공공성을 가지지 못한 채 유통 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술지식의 유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조화와 이에 근거한 학술지식의 저작권 보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 기관에서 오픈액세스 전환 학회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그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국가라이센스, 공공기관 및 대학도서관의 저작권료 보전 등 다양한 시각의 모색이 추후에 필요하다. 이것은 저작권료를 보전한다는 재정적인 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학 및 사회과학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② 저작권료의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으며, 현재는 ① 학술 지식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현실적 소요 및 학술지식의 특성을 잘 반영한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학회의 실제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학술지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 학술지식에 대한 학회의 주체성 회복, ㉡ 비가시화된 노동의 가시화. 우선 ㉠ 학회의 주체성 회복은 오픈액세스 전환의 중요한 의미이다. 오픈액세스 전환은 상용학술정보업체의 저작권료를 포기하는 것이며, 논문을 제

공하는 사이트를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25년 간 학회가 상용학술정보업체에 일임하였던 학술 지식의 관리 및 유통을 학회가 책임감과 주체성을 가지고 감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체성 회복의 문제는 ㉠ 비가시화된 노동의 가시화에 근거하여 가능해진다. 오픈액세스 전환은 연구재단 등재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 존재했으나 가시화되지 않았던 학회의 그림자 노동을 가시화하였다. 학술지 출판은 학술지 원문 PDF 파일 외에 학술논문의 메타정보가 필요하며, 학술지 논문 및 학술정보는 등재지 제도 하에서 편집위원회 및 간사들이 수행하였던 각종 그림자 노동 및 학술지 출판의 과정에 근거하여 생산된다.<sup>30)</sup> 하지만 오픈액세스 전환 이전까지 학회는 학술지식 및 정보의 유통 관리를 상용학술정보 업체에 일임하였기에 그 노동을 가시화하지 못하였다.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은 정보 관리 업무를 가시화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2020년 오픈액세스 전환을 진행한 한국어문학 분야의 한 학회는 이 과정을 “여럿이 편집간사가 되”는 과정으로 정리하였다.”<sup>31)</sup>

문제는 실제 오픈액세스 전환의 과정에 대한 매뉴얼 및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기존 공공 플랫폼의 불편함이다.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학회는 기존의 상용업체가 담당하였던 학술정보 관리 및 유통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회는 업체에 일임하거나 부정확하게 관리하였던 학술논문의 메타정보, 학술지 원문 파일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sup>32)</sup> 하지만 학회는 오픈액세스 전환 비용을 오롯이 감당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아직까지 전환과정의 매뉴얼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활용 가능한 기존의 공공 플랫폼은 불편하다. 이는 결국 학회의 노동을 증가시킨다.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 학회는 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학술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이때 학술정보 관리의 주된 대상은 학술논문 파일과 학술논문의 메타정보이다. 현재 등재지 제도에서 학회는 연구재단의 KCI 사이트에 정규논문 및 비정규논문의 파일 및 메타정보를 업로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KCI 사이트에 업로드 한 학술 논문 파일 및 메타 정보는 학회 스스로 생산한 것이기에,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 학회는 KCI 사이트를 통해 논문 파일과 메타 정보를 기본으로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학술지식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KCI 사이트에는 문제가 있다. KCI 사이트에 가장 많은 학술 논문과 정보가 업로드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KCI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등재제도 관리 플랫폼이기 때문에 검색의 효율이 높지 않다. 또한 KCI 사이트를 관리하는 연구재단 역시 이 사이트가 학술 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다. 서평, 좌담 등 비정규논문의 업로드 및 제공, RISS 연계 등은,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지속

30) 박숙자 외 2020, 789쪽.

31) 이해령 2020.

32) 반재영 외 2020.

적인 요청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KCI 사이트와 RISS 등 타 사이트의 연계가 때때로 불안정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는 학술정보 서비스 플랫폼이기에 KCI 사이트보다는 검색이 안정적이며, 보다 많은 학술정보가 집적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KCI와 RISS를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RISS 플랫폼에 직접 논문 및 학술정보를 업로드 하여 학술지식을 제공할 경우, 학회는 KCI와 별도의 양식으로 파일 및 메타정보를 RISS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이후 학회는 스스로 KCI에 업로드 한 논문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로 연동이 잘 되면서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회에서는 직접 파일의 연결 및 제공을 확인하고, 메타정보에 오류가 생길 경우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학회는 ① 학술지식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학회는 KCI 및 RISS 등 공공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각 플랫폼은 검색 기능, 연결의 안정성, 파일 및 정보 업로드 방식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오픈액세스 과정에서 학회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공기관의 학술플랫폼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 플랫폼의 보완과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은 단순히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편리함을 증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학술 공공성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

#### 5.2.3.2. 현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검토

현재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학회의 오픈액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현재 공공기관의 지원은 중복되거나 혹은 편중되어 있다. 예컨대 2020년 다수의 기관은 학술논문 제공 플랫폼을 지원하였지만, 이것은 중복 지원이면서 동시에 기능상 큰 차이가 없어서 학회에 크게 유용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현재 투고 시스템이 무척 불편하고 불안정한 한국연구재단의 JAMS 하나인 것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지원은 비대칭적인 중복지원이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은 학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학회의 실무자들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 거듭 공문을 발송해야 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사무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논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KCI 사이트와 RISS 사이트가 각기 요청하는 메타정보 양식이 다르기에 학회 실무자들은 엑셀 작업을 기계적으로 반복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오픈액세스 전환 업무과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매뉴얼이 부재하다. 결국 학회의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인해서, 학회는 자신의 역할로 혹은 다른 학회의 연대 가운데에서 오픈액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KCI, RISS, JAMS 등 기존의 공공기관 플랫폼을 학계의 요청을 반영하여서 플랫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픈액세스 표준화 매뉴얼을 구축하여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2.4.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

##### 5.2.4.1.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의 세 주체와 세 가지 조건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연구자, 정부, 시민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의 조건은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이다.

- ① 연구자의 요청에 기반한 지식공유 플랫폼
- ②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이 합당하게 분배된 플랫폼
- ③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연구자의 요청에 기반한 플랫폼이어야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서 요긴하게 사용된 플랫폼이어야 하며,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 5.2.4.2. 학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경의 조성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와 학회 외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도서관 등 다양한 학술 주체가 각기 그 역할을 균형 있게 분담할 때, 학술지식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2021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6개 주요 학술기관은 오픈액세스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선언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한 편으로는 디지털집현전 사업 등과의 적실

한 연계가 필요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 및 논의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구자-기관-시민'의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원스톱 오픈액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픈액세스 과정에서 학회는 여러 기관에 동시에 연락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무 업무가 과도하게 발생하며, 신속한 오픈액세스 전환 및 지원이 어렵다. 위의 거버넌스에 근거하여 학회가 오픈액세스에 긴요한 지원을 받고 전환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로서 '원스톱 오픈액세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위의 거버넌스는 학회의 현실적인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학계가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업무는 데이터 정비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이지만 이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은 전무하다. 오픈액세스 전환 및 학술논문의 제공 과정에서 실제 학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자-정부-시민' 거버넌스의 구축은 오픈액세스 전환의 현실적인 필요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연구자 문화의 개혁 및 학술 지식의 공공성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는 학회 및 학술지 지원 정책 개혁, 양적 평가와 영어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 학술활동의 공공성과 연구자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학회와 연구자 또한 스스로 연구자 문화를 개혁하고 학술 지식의 공공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연구자 문화 갱신을 위한 학회의 부서 운영 및 학회 연대가 필요하다. 우선 학회는 학술 지식 관리 담당자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오픈액세스 전환 이전까지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술지식의 생산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후 학술지식의 관리와 유통은 상용학술정보업체에 일임하였다.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에는 학술지식의 관리를 담당할 담당자 혹은 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명목만 존재하였던 정보이사, 혹은 홍보이사 등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학회는 학회 연대를 통해 학술 지식의 공공성을 모색할 수 있다. 학술 분야별 학회의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학술 분야별 여러 학회들이 연합하여 공동의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회의 편집이사들이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를, 학회의 정보이사 및 홍보이사 등이 '학술정보 공유 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학술지식의 관리 및 활용을 논의할 수 있다.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는 학술지의 투고 형식, 출판 윤리 규정을 공론화할 수 있으며, '학술정보 공유 협의회'에서는 학술정보의 관리 방법, 학술행사의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와 '학술정보 공유 협의회'의 논의에 근거하여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5.2.4.3. 지식공유 플랫폼의 요소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에 탑재해야 할 구성 요소 역시 연구자, 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이라는 세 주체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연구자의 요청을 반영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오픈액세스 학술정보의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학회는 데이터 작업 및 관리를 위한 업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학회에서 스스로 업로드 한 학술논문 파일과 메타 정보가 있는 KCI 사이트와 연동하여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을 안정적이면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학회의 학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KCI 플랫폼은 관리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 등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하며, RISS 플랫폼의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 및 메타정보의 업로드가 필요하다. 새로운 오픈액세스 플랫폼은 현재 공공기관의 플랫폼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학회의 학술논문 및 학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연구자의 다양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연구자의 셀프아카이빙 기능이 그것이다. 현재 연구자 개인은 한국연구재단의 KRI 사이트 등 규격화된 업적 정리 형식에 자신의 성과를 정리해야 한다. 연구자의 필요에 근거하여 연구업적을 자율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연구성과를 정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셀프아카이빙 기능을 플랫폼에 추가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의 재원을 합당하게 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전주기 투고-출판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플랫폼은 논문 투고 플랫폼으로서 JAMS, 논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KCI, KOAJ, RISS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각 플랫폼의 기능은 불균질하며 학회가 각각을 관리하기에는 노동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KCI, RISS, JAMS 등 기존의 공공기관 플랫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논문의 투고에서 출판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투고-출판 시스템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랫폼은 앞서 언급한 학문 분야별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논의에 근거하여서 구축해야 한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은 학술행사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팬데믹 이후 학술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적지 않은 학술 행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대면/비대면 병행 진행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온라인 학술대회는 지역 및 국가의 지리적 시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유효한 학술 행사의 형식의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대회를 비롯한 학술행사의 형식 자체가 웹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하는 것에 비해, 학술대회 정보 공유 및 홍보는 여전히 웹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술대회의 홍보는 각 학회의 회원 주소록을 기반으로 한 안내메일 발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학회의 총무이사 및 총무간사가 서로 연락하여 협조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때로 중복홍보가 되면서도 홍보에서 소외되는 연구자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회원주소록에 기반한 홍보에서 학문 분야별 구독 서비스로 학술정보의 공유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술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또한 쉽게 학술 행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 시스템을 지식공유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웹환경의 학술행사는 기존의 대면 학술대회와 달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다. 대면 학술대회는 일회적으로 진행되고 기록 또한 어렵지만, 온라인 학술대회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화상, 음성,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며 나아가 학술행사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학술행사 아카이브를 시민에게 공유하여 그것을 학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공의 부'로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서 온라인 연구 윤리 및 CCL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식공유 플랫폼에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술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을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라는 조건에 유의하여서 구축해야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연구자의 요청이 반영된 플랫폼으로서 오픈액세스 전환 및 학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합당하게 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전주기 투고-출판 플랫폼,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학술지식을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연구자, 정부, 시민 세 주체의 요청을 반영한 지식공유 플랫폼은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 5.2.4.4. 한국어문학 학술정보 공유 체계의 구축

본 세부과제는 앞서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체적인 요소 중 하나로 학문분야별 학술행사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학술행사 정보 공유 시스템을 플랫폼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세부과제에서는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술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어문학 분야의 4개 학회 상허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구보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등의 총무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 등은 협의하여 표준화한 학술행사 정보 공유 양식을 작성하

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 공유 양식을 바탕으로 회원주소록 발송이 아닌 구독 서비스의 기초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 상허학회 홍보이사 이은지(서울대), 민족문화사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유승환(부산대), 한국여성문학학회 연구이사 배하은(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학술정보를 아카이빙하는 공동의 공간으로는 <한국어문학지식공유위키>를 활용하였으며, 표준화한 학술행사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학회 페이지를 작성하고, 학술 행사 페이지를 작성하였다.

<http://www.klbksk.com/wiki/index.php/Minmunhak>

**Minmunhak**  
한국어문학 지식공유 위키

민족문화사연구소  
<https://www.minmunhak.com/>

소개글 [편집]

“안녕하세요, 민족문화사연구소입니다.  
1990년 창립한 이래로 약 30년 동안 과거와 현재의 민족문학을 견결한 민중적 입장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연구, 비평함은 물론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대중 속으로 환원시키는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학술 행사 [편집]

**2021년** [연월]

**2021년 춘계**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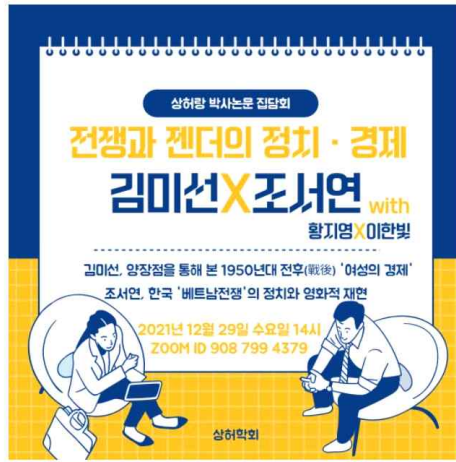
일시	행사	행사 내용 및 페이지 링크
2021.04.30 (15:00-17:00)	04월 서평회	아시아, 제3세계, 다른 루트(Route)를 상상하기【문학】
2021.05.21 (15:00-17:00)	05월 서평회	이광수와 저우웨이현의 '만남'【문학】

**2021년 하계** [연월]

일시	행사	행사 내용 및 페이지 링크
2021.06.04 (16:00-18:00)	06월 토크쇼1	경계를 넘는 '본단', 경계를 넘는 '연대'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문학】
2021.06.25 (14:00-16:00)	06월 토크쇼2	17세기 일본에서의 조선본 『演義桃佐松輪船漁然典』 수용 상상【문학】
2021.07.09 (15:00-17:00)	07월 토크쇼	한국 재미나눔SF의 시작을 읽다【문학】
2021.08.06 (14:00-16:00)	08월 좌담회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 - 제국 일본, 조선을 말하다【문학】
2021.08.20 (14:00-17:00)	08월 석박사논문 집담회	송태규, 『황진이』에 관한 기억과 그 변모 상상 연구, 신발, 『고려가요와 조선 전기 약장의 약국계 수수관계』【문학】
2021.08.27 (14:00-16:00)	08월 박사논문 집담회	왕창남, 민위향과 한국【문학】

[그림 5-1] <한국어문학지식공유위키>에 구현된 '민족문화사연구소' 정보 페이지 예시  
[http://www.klbksk.com/wiki/index.php/Minmunhak\\_BookReview202104](http://www.klbksk.com/wiki/index.php/Minmunhak_BookReview202104)  
[http://www.klbksk.com/wiki/index.php/Sanghur\\_Colloquium20211229](http://www.klbksk.com/wiki/index.php/Sanghur_Colloquium20211229)

## 상허학회 상허랑 2021년 12월 집담회 전쟁과 젠더의 정치·경제



상허학회 상허랑 2021년 12월 집담회 안내 페이지입니다.  
참석하시는 회원 여러분 모두 서료를 존중하고 반드시 연구윤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개된 발표문과 토론문 등 학술 저작물의 무단복제를 엄격히 금합니다.

### ● 모시는 말씀

“ 이번 집담회에서 다루는 김미선 선생님의 「양장점을 통해 본 1950년대 전후(戰後)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와 조서연 선생님의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은 각각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 이후 젠더적 측면에서의 경제적·정치적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있는 논문입니다.

두 논문은 전쟁 이후를 다루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를 넘어 지금 두 상흔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결과에 주목할 것인가를 짚어주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황지영 선생님(충북대)과 이한빛 선생님(연세대)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국가 폭력, 여성 주제, 기억의 재현과 정치 등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허학회 운영위원회 김미연(전남대), 송아름(연세대), 정한나(연세대), 최진석(성균관대), 홍덕구(포스텍) 올림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12월 29일(수) 14:00~16:00
- 장소: Zoom회의 ID 908 799 4379 / Zoom 회의실 입장

### ● 참가자

- 발표자: 김미선(이화여자대학교), 조서연(서울대학교)
- 토론자: 황지영(충북대학교), 이한빛(연세대학교)

[그림 5-2] <한국어문학지식공유위키>에 구현된 '상허학회' 주관 학술행사 페이지 예시

학회 페이지는 학회가 진행한 다양한 학술 행사 정보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페이지로 구축하였다. 학술행사 페이지에는 일시, 장소(온라인 회의실 접속 주소), 프로그램, 행사 사진, 후기, 온톨로지 설계에 기반하여 표준화한 인문지식 데이터 등으로 구성하였다. 학술행사 페이지는

대면 행사 및 인쇄를 전제로 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대체하는 학술정보 웹 페이지이다. 연구자와 시민은 학술행사 페이지를 통해서 행사 정보와 발표문과 토론문 등 학술 자료를 동시에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학술행사의 자료는 CCL를 명기하여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규약(protocol)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학회 페이지와 학술행사 페이지를 하나의 플랫폼에 체계적으로 누적하여 구축할 경우, 학술행사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각 페이지를 낱알의 개별 페이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RDB 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술행사 정보공유를 위해 학회별 회원 주소록 기반 메일 발송에서 정보 구독 서비스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현재 학술대회 정보 발송은 학회별로 메일링리스트 발송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중복 발송과 연구자 소외가 발생한다. 이것을 플랫폼의 학술 분야별 구독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연구자가 분야별 메일링서비스를 구독하고, 플랫폼의 관리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다. 회원주소록 기반 발송을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은 중복 발송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학문 분야별로 학술 행사 구독 서비스를 개설하여 관심이 있는 시민이 정보를 구독하여서 학계 및 학술 담론에 보다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술행사 정보 공유는 학회 사이의 업무 간소화를 넘어서 학회의 학술 행사 정보 및 학술 행사의 자료를 안정적으로 아카이빙하고, 그것을 시민에게 공유하여서 학회의 지식이 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2.5. 지식공유 플랫폼과 학술지식의 공공성

오픈액세스 전환은 학술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 오픈액세스 전환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2021년 8월 한국연구재단·국립중앙도서관 등 6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오픈액세스 선언을 현실화해야 하며, 정부의 디지털집현전 사업과도 적실히 연계해야 한다. 또한 학문 분야별로 그 특성에 유의하여 학회의 자발적 오픈액세스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한국 학계의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오픈액세스 모델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관 오픈액세스 플랫폼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학회는 현실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한국연구재단의 KCI 및 JAMS 등 공공기관 제공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플랫폼의 기능은 중복되거나 효율이 높지 못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제공 플랫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연구재단 지원 사업에서 오픈액세스를 보다 적극 장려해야한다.

오픈액세스를 계기로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기존의 상용학술정보업체 중심의 학술정보 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 공공성을 모색해야 한다. 지식 공공성의 구축을 위해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 및 학회지 편집인 및 학술정보 공유 협의회를 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은 오픈액세스 전환 및 학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전주기 투고-출판 플랫폼, 학술지식을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플랫폼과 새로운 학술지식 공유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은 기존 플랫폼의 불편함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연구자 문화의 개혁을 유도하고 연구자와 시민이 함께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모색하는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과 동시에 학회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학회 및 학술지를 보다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 양적 평가와 영어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그리고 학술활동의 공공성과 연구자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5.3. [제3세부과제]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방안

□ 제3세부과제는 인문(사회)학 분야의 논문 유통과 관련된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체적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 기존 학회들과 연구자들에 대한 유인 방안
- 논문 유통과 관련된 지식공유 플랫폼의 실현가능한 형태와 기능들
- 해당 플랫폼의 초기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계획
- 중장기적 자립화 방안
- 시민들의 참여 방안
- 일반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방안 등

#### 5.3.1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의 특징과 필요성

제3세부과제는 인문사회분야 논문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논문공유 플랫폼은 지금까지 국내외에 존재하는 오픈액세스 방안들이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모델들과 다음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북미와 유럽의 경우 오픈액세스는 주로 개별 학술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대학이나 연구자 개인에 의해 혹은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민간기업들에 의해 ‘리포지터리’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중앙정부가 대규모의 리포지터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과 달리 본 연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분야의 사회적 기업, 인문사회분야의 학회들, 독립연구자들을 포함하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 출판사들, 그리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은 특히 그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정부 대 시장’, ‘공공 대 민간’, 혹은 ‘국가 대 자본’이라는 전통적 이분법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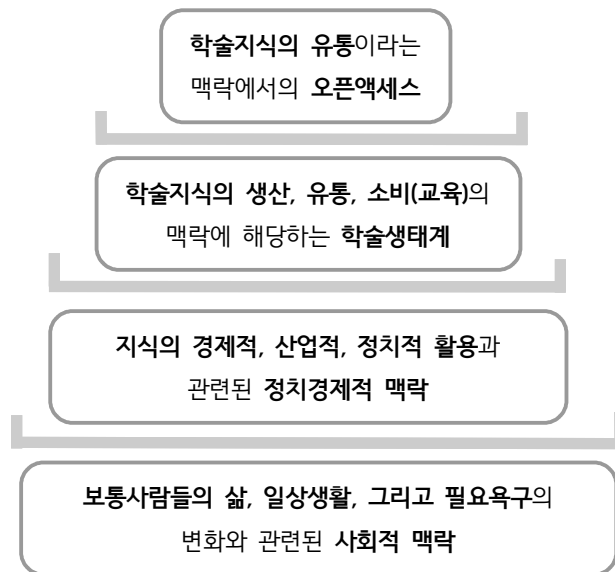
둘째, 위에서 암시된 것처럼, 많은 경우 오픈액세스, 특히 정부나 대학 그리고 연구자 개인들에 의해 실현된 그런 오픈액세스는 리포지터리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한다. 일단 개별 연구자들 혹은 소수 연구자 그룹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이트별로 제공되는 기능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최소한 자신들이 작성한 문헌이나 수업계획서, 교육자료들에 제약 없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다. 정부나 대학에 의해 운영되는 리포지터리들은 논문에 대한 검색과 다운로드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지사항과 이용자수 그리고 인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다. 끝으로 리포지터리라기보다 플랫폼에 가까운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는 위의 것들 이상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들에 의해 운영되는 '아카데미아에듀(academia.edu)'나 '리서치게이트(researchgate.net)'는 가입자들에게 개별 홈페이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 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 연구자 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 관심 분야나 저자의 논문이 새롭게 업로드 되었을 때 메일로 알려주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유료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어느 나라에서 누가 나의 논문을 다운로드 받았고 어느 문헌이 나의 논문을 인용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은 리포지터리를 넘어서는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그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의 민간기업에 의해 무료 혹은 부분적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들 이상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학술논문의 검색과 다운로드 그리고 서지사항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포지터리만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넘어 국내 인문사회학회들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홈페이지, 회원관리, 논문투고와 심사, 학술행사와 학회지의 홍보, 메일링 리스트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큐레이팅, 학술행사와 출판물에 대한 홍보와 논평을 가능하게 하는 논의의 장, 연구자들 간 탈 학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회와 연구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플랫폼의 단계적 구축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여기서 제안되는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은 오픈엑세스에 대한 1차적 구분, 즉 '골드 오픈엑세스냐 그린 오픈엑세스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즉, 우리가 제안하려는 것은 양자 중 그 어떤 것도 아닌 새로운 모델의 오픈엑세스에 해당한다.

셋째, 이러한 차이는 현재의 문제 상황, 즉 학술논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적 이윤추구와 오픈엑세스 간 대립의 문제를 따로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오픈엑세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의존하고 있는 관점과

일정하게 다른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의 사안들이 각각 논의된 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일단, 한편으로 오픈액세스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기존의 국내 논의들은 그 문제를 보다 깊고 넓은 맥락들 속에서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령, 기존의 논의들은 학술지식의 유통과 관련된 오픈액세스보다 깊은 층위에서 보다 넓은 맥락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안들, 즉 ① 학술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 교육, 그리고 연구자들의 재생산 등의 문제와 관련된 학술생태계의 문제나 ② 그보다 깊은 층위에서 더 넓은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변화의 문제, 즉 학술지식의 산업적이고 정치적인 활용과 관련된, 따라서 정부/국가와 산업/경제, 그리고 학술지식과 고등교육을 연계하여 논의해야 하는 층위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③ 앞의 두 층위보다 깊은 수준에 위치하는 사회변동의 문제, 예컨대 사람들의 삶이나 일상생활, 그리고 필요욕구의 변화와 지식 간 관계의 문제들과 오픈액세스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오픈액세스의 맥락들에 대해서는 [그림 5-3] 참조).



[그림 5-3] 오픈액세스가 위치한 층위와 맥락들

때문에 기존의 논의에서 오픈액세스의 문제는 그저 오픈액세스의 문제로만, 즉 학술논문의 유통과정에서 횡행하고 있는 독과점적 이윤추구에 대한 반경향으로서만 다뤄진다. 하지만, 학



술지식의 유통과정에서의 독과점이나 오픈액세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즉 여타의 사회적 맥락들과 괴리된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오픈액세스의 문제만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의 범위, 나아가 그 대안에 대한 상상의 범위까지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기존의 논의에서 초점은 주로 ① 논문의 유통시장에서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가격결정자로 군림하려는 소수 기업들의 독과점적 이윤추구에 대한 문제제기, ② 오픈액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거들, ③ 오픈액세스의 세부원칙들과 그러한 원칙들을 구현할 기술적, 법률적, 그리고 비용의 문제들에 맞춰지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논의구조 속에서 ④ 상상되는 오픈액세스 모델은 크게 ‘골드 오픈액세스’로 간주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나 ‘그린 오픈액세스’로 간주되는 리포지터리에 불과하다. 이 상황 속에서 오픈액세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될 것처럼, 각각은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기존의 시도들은 최악의 경우 막다른 길에 도달하거나 최선의 경우 오직 제한된 효과만을 산출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적 수준에서만 그 문제를 다루는 경향을 갖는다. 가령, 해외논문들의 유통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출판업체들에 대한 대응과 국내의 몇몇 상용DB업체들에 대한 대응 및 그 대안을 전략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동시에 학문분과들 간의 차이나 각각의 특수성들에 대해 둔감한 논의들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학술논문 일반 혹은—오픈액세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에게 논문공유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들이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이는 암묵적으로—최근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대학영어강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어로 된 원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어로 논문을 출판하는 경향이 여타 분야에 비해 좀 더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과학기술과 의학분야의 논문들을 기준으로 사고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사회과학 내에서 좀 더 실용적이라고 간주되는 학문분야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나 사회적 생활과 관련하여 좀 더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생산을 추구하는, 아울러 현재에도 많은 경우 우리말로 지식이 생산이 되고 유통되며 소비되는 분야인 인문사회분야를 철저히 주변화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제 이상의 두 사안들을 종합하면 오픈액세스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국내 논의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인문사회분야의 지식공유 플랫폼이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지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논의는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자연과학, 공학, 의학분야의 학술논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리포지터리의 당위성과 그것의 구축에 필요

한 기술적, 법률적, 그리고 비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때문에 이러한 논의 속에서는 학술 유통과정의 독과점화와 오픈액세스가 위치한 심층의 맥락들이, 나아가 여타 학문분야의 특수성들이 동시에 주변화 된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자들이 볼 때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 나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적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의 맥락, 나아가 정치경제적 혹은 사회적 변동의 맥락에서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자들과 학회가 처한 특수한 위기들과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 수준의 리포지터리의 구축은 심지어 학술논문 유통의 독과점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가령, 그린 액세스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상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강제할 것인가 권유할 것인가’이다. 물론, 이러한 이분법 자체가 현재의 논의가 갖는 문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 연구자들은 지식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거나 참가를 독려할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두 선택지 모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포괄적 강제는 반발을 낳을 것이고 자발적 참여유도는 미약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을 낳는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결과물을 사적으로 전유하여 심지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적 자금이 투입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무료인 것은, 나아가 무료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반발도 가능하다. 인문사회라는 특수한 분야에 주목하는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그것은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가장 공적 지원이 적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서 기원한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결국에는 인문사회분야에서의 논문공유는 여타의 분야와 비교할 때 최소의 효과만 얻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로 과거 이뤄진 한 연구에서 인문사회분야는 오픈액세스가 가장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판명되기도 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의 개별적 전환과 리포지터리의 구축이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의 탈피를 촉구한다. 나아가 국내 인문사회분야의 특수성과 그 심층의 맥락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새로운 대안모델에 대한 상상을 시도하고 그러한 상상의 실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 아래에서는 이 절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학술논문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적 이윤추구를 포스트-포드주의적 지식기반경제의 출현 및 학문자본주의의 부상과 변화라는 맥락 내에 위치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지식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현상, 즉 학술지식의 허구적 상품화가 사회전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출현과 확산을 그러한 지식상품시장의 일반화에 반하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함의한다. 첫째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필연성이다. 시장주의적 조처에 따르는 사회의 반작용, 즉 그 이중적으로 발생하는 두 경향을 감안하면 오픈액세스 운동은 당연한 것이 된다. 둘째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다양성이다. 사회로부터 시장의 이탈은 사회의 자기보호를 야기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보호가 항상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상의 두 가지를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오픈액세스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오픈액세스를 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3절에서는 오픈액세스의 다양성을 다룬다. 여기서 우리는 현존하는 오픈액세스 모델의 몇 가지 사례들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4절은 한국의 인문사회분야의 특수성과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실천방안을 다룬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향후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 5.3.2 학문자본주의, 지식기반경제, 그리고 오픈액세스

이 절에서는 두 가지의 작업이 수행된다. 첫째, 이 절에서는 학술지식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적 이윤추구의 문제를 학문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의 부상과 변동이라는 맥락 내에 위치시킨 후, 그러한 학문자본주의의 변화를 다시 정치경제적 변화의 맥락, 특히 포스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이라는 맥락 내에 위치시킨다. 둘째, 이 절은 그러한 맥락들 내에서 독과점적 학술지식 유통과정에 대한 대항으로 등장한 오픈액세스 운동을 지식의 허구적 상품화에 대한 반경향, 즉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중 하나로 해석한다. 이러한 논의는 학문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된다.<sup>33)</sup> 1990년대 후반 등장한 학문자본주의는 최초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분야의 교수들의 행태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출현했다. 이후 이 개념은 그 범위가 확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 대학연구들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방식을 다루기 위한 개념, 즉 대학과 교수진들의 (준)시장적 행위들을 해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진화했다. 이 맥락에서 개념을 제시한 슬로터와 레슬리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이후 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의 축소를 학문자본주의의 등장 요인으로 간주한다.<sup>34)</sup>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학문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아울러 보다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다. 슬로터와 레슬리 등이 규정한 학문자본주의는 대학 혹은 고등교육의 구조조정

33) 한국에서 academic capitalism은 학문자본주의, 대학자본주의, 아카데미 캐피털리즘 등으로 번역 혹은 음차되고 있다(고부용 2016; 채석진 2019).

34) Hackett 1990; Slaughter and Leselie 1997, 2001; Slaughter and Rhodes 2004.

과 시장경제 그리고 정부 간의 관계를 조망하게 해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개념의 외연이 한 차례 확대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한다는 단점을 갖는다.<sup>35)</sup> 실제로 슬로터와 레슬리의 학문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오직 신자유주의와만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경제체제가 아니다. 때문에 슬로터와 레슬리가 학문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은 사실 학문신자유주의(academic neoliberalism)라 명명될 수 있는 무엇에 가깝다. 이렇게 학문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부상 이전에도 존재했었다는 점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학문자본주의의 변화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자본주의적 영리기업에 비교하는 통찰은 최소한 20세기 초반에도 존재했다. 가령,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주제로 한 1919년의 강의에서 막스 베버는 당대 독일 대학의 주요 자연과학 연구소들과 의학 연구소들을 “국가-자본주의적 기업들”로 명명한 바 있다<sup>36)</sup>. 하지만, 베버는 어떤 맥락에서 당대 과학기술과 의학을 연구하는 대학연구소들을 국가-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명명했는가? 그러한 기업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나아가 그것은 학문자본주의의 현재적 형태, 즉 학문신자유주의라 불릴 수 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대학과 학문분과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학(university)은 중세시대, 특히 12세기 무렵 유럽의 몇몇 도시 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아울러 당시의 대학은 문법, 수사학, 변증법, 산수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과 같은 기초과목의 바탕 위에 주로 법학과 신학 그리고 의학 등의 과목을 학습하고 연구하기 위한 학생들의 학문공동체라는 형태를 취했다.<sup>37)</sup>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대학의 출현은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하필 12세기 서유럽과 남유럽의 일부 도시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및 학문공동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12세기는 로마의 멸망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혼란이 수습되어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던 시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업과 무역의 확대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던 시대에 속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다방면의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법학과 신학, 그리고 의학이라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발적 학습공동체로서의 중세 대학은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도시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다<sup>38)</sup>. 한편, 권력에 대한 대학의 종속이나 학문적 자유를 위한 대학의 투쟁은 대

35) Jessop 2018 참조.

36) Weber Max 2004, 3쪽.

37) 신승환 2012, 108-109쪽.

38) 남기원 2021, 참조

학이 최초 등장한 시기부터 중요한 문제로 다루졌다. 특히, 이 시기의 대학은 국가와 교회의 갈등관계 속에서 때로는 권력에 의해 통제되었지만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하였다<sup>39)</sup>.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 프랑스 파리의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이러한 중세시대의 대학들을 상징한다면 근대적 대학의 이상은 독일의 베를린대학을 통해 표출된다. 이러한 이상은 1887년 생리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의 베를린대학 총장 취임사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오늘날 독일 대학에서는 유물론적 형이상학의 어떤 극단적 단정도 또 다윈의 진화를 논거로 하는 어떠한 대담한 사유도 교황의 완전무오성에 관한 극단적 신격론과 같이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강의할 수 있다”<sup>40)</sup>. 이러한 대학 이념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고등교육 및 학문이념을 따른 것이었다. 고등교육 시설에 대한 훔볼트의 사고는 몇 가지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학문의 순수한 이념을 강조하며 학문을 학문 그 자체로 추구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학교와 고등교육 시설로서의 대학을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는 “기존 기성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고 “고등교육 시설은 학문을 항상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러므로 항상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sup>41)</sup>.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그는 대학을 순수한 학문의 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훔볼트의 이념은 정부나 사회로부터 학문적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이념 하에서 교수들은 사회에서의 일상생활과 괴리된 채 연구에만 몰두해야 하는 인물들로 제시된다. 오늘날 우리가 상아탑이라 부르는 대학의 상은 이러한 근대 대학의 이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훔볼트는 대학교수의 임명을 전적으로 국가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역설적 주장은 교수들 간 파벌에 따르는 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독일 대학들은 여러 근대적 학문의 융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sup>42)</sup>.

한편, 이러한 근대 대학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추가로 지적되어야 한다. 하나는 학문분과체계의 분화이다. 16세기 중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 17세기를 거치면서 철학으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과학이 분리된 사건이나 17세기 들어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에 의해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철학으로부터 분리된 일,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대략 100년 남짓한 시

39) 신승환 2012, 108-109쪽.

40) 이광주 1988, 58에서 재인용.

41) 이광주 1988, 64에서 재인용.

42) 이광주 1988, 63-66쪽 참조.

간을 거치면서 사회과학 내에서 정치[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현대적 분과체계들이 수립된 역사를 여기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sup>43)</sup>. 또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를 거치면서 좀 더 현대적 의미의 전문과학자 집단이 출현하고 생물학이 독자적 학문의 명칭을 확보했으며, 이론과 실험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물리학이 정립된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경험적인 현상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이론과 시험이 득세했다는 점과 이러한 경향이 과거 유럽 내에서 좀 더 전통적인 학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16-17세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근대 과학, 18-19세기를 거치면서 수립된 현대적 의미의 과학의 영향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정이 두 번째의 사안과 연관된다. 즉, 그것은 훔볼트에 의해 제시된 근대적 대학의 이상과 달리 당대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학문들이 당시 북대서양 국가들 간 산업경쟁과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은 과거 해상무역의 경로를 놓고 벌였던, 즉 상업적 우위의 확보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열강들 간의 경쟁이 이제 산업적 패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유럽 내에서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대학 간 관계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한편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미국 자연과학과 의학분야에서 이뤄진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상기한 것처럼 대학은 최초 중세 남유럽과 서유럽의 일부 도시들에서 탄생했다. 나아가 19세기 중반 이후 출현한 근대 대학의 이상과 새로운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의 모델은 독일의 베를린에서 제시되고 실천되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이 되면 과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네덜란드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이후 네덜란드가 영국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미국의 산업적 패권과 그러한 산업적 패권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및 의학분야의 발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아울러 과학기술이나 의학분야에 한정하더라도 학문적 지식생산의 중심지는 미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에 이르면 미래에는 미국의 과학이 유럽의 그것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Tocquville)은 1835년 출판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과학을 세 가지, 즉 순수하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과학, 응용과학에 가까운 과학, 완전한 응용과학으로 구분한 후, 미국의 경우 후자의 두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기적이고 이윤을 밝히며 산업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과학적 활동이 우세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sup>44)</sup> 여기서 현대적

43) 정치경제학의 역사, 특히 철학으로부터 정치경제학의 독립에 대해서는 Marx 1859/1987, 292쪽 이하를, 프랑스 혁명이 이후 100여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이뤄진 사회과학 분과학문체계의 제도화와 성립에 대해서는 Wallerstein et al. 1996 1장 참조.

의미의 과학의 정립과 과학자 집단의 출현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 하면, 아울러 토크빌의 주장처럼 최소한 미국에서는 19세기 초부터 금전적이고 산업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과학적 연구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학기술이 사회적 필요나 산업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의 경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북대서양 선진 자본주의 경제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들 내에서도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과학기술은 그것의 현대적 형태가 출현한 시점부터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토크빌 본인은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학적 연구가 취하는 형태로 간주했지만 좀 더 상세히 말하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와 결합된 자본주의 사회, 즉 자본주의적 유형의 국가에서 과학적 연구가 취하는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학문자본주의는 늦어도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절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베버의 주장은 이러한 토크빌의 예언적 암시가 타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베버는 독일대학들과 미국대학들, 특히 각 대학들에서 이제 막 학문적 경력을 시작한 독일의 사강사와 미국의 조교를 비교한다. 하지만, 베버에 의하면 동시에 독일의 학문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미국화가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베버는 독일대학들과 미국대학들의 전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자연과학과 의학분야의 주요 대학연구들은 이미 미국식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베버에 의하면 그러한 연구소들은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대규모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될 수 없는, 또한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국가-자본주의적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정부-산업-대학 간 연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초, 그리고 학문은 학문 그 자체로 다뤄져야 한다는 근대대학의 이념을 제시하고 구현하려 했던 독일에서도 20세기에 초에는 그러한 현상이 주류를 이룬다고 봐야 한다. 한편, 베버는 이러한 대학의 미국화에 대한 흥미로운 예언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학술기관의 미국화가 독일 대학의 학문 전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러한 변화가 과학기술이나 의학을 넘어서는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은 이미 20세기 초반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2017)이 실용적, 실증적 학문사조의 부상과 확산이 가치와 의미를 묻는 전통적 유럽학문의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학문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산업이나 정치적 목적 하에 이용되고 이러한 경향이 여타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경향도 20세기 중후반 이후 출현한 게 아니다.

44) Tocquville 1835/2010, 775-784쪽 참조.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학문자본주의는 몇 가지의 새로운 특징들을 갖는다. 일단, 이러한 학술생태계의 변화는 북대서양 포드주의 국가들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들어 포드주의, 특히 그것을 뒷받침하던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 운영방안은 당시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포드주의적 노동과정, 축적체제 그리고 조절양식 등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상상이 바로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 ‘지식기반경제’, ‘신경제’ 등이며, 이러한 경향은 ‘창조경제’,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신조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지식을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한다. 나아가 지식의 생산요소화는 지식의 상품화를 전제한다. 하지만, 원래 지식은 시장매개적이고 이윤 지향적 과정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용어를 차용하며 이는 지식이 허구적 상품(fictitious commodity)이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sup>45)</sup>.

지식이 마치 독자적인 생산요소인 것처럼 간주되고 전체 사회 혹은 전체 경제가 그러한 생산요소에 기반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및 판매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학술생태계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초 과학기술이나 의학분야에서 응용사회과학분야로, 나아가 이제 인문학적 지식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인문학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산업적으로 응용가능한 지식의 창출, 가령 각종 미디어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활용될 콘텐츠의 생산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원래 인문사회학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기능, 인간적 삶과 사회의 재생산 그리고 사회변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고찰의 기능을 주변화 시킨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인문사회학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삶, 나아가 해당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학술지식의 유통 과정에서 발견되는 독과점적 이윤추구와 그에 대한 반경향으로서의 오픈액세스는 이러한 맥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가 그것의 허구적 상품화를 중심으로 하는 맥락 내에 있다. 이 맥락에서 오픈액세스는 시장매개적이고 이윤지향적인 원칙의 학술생태계에도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반경향의 일환으로서 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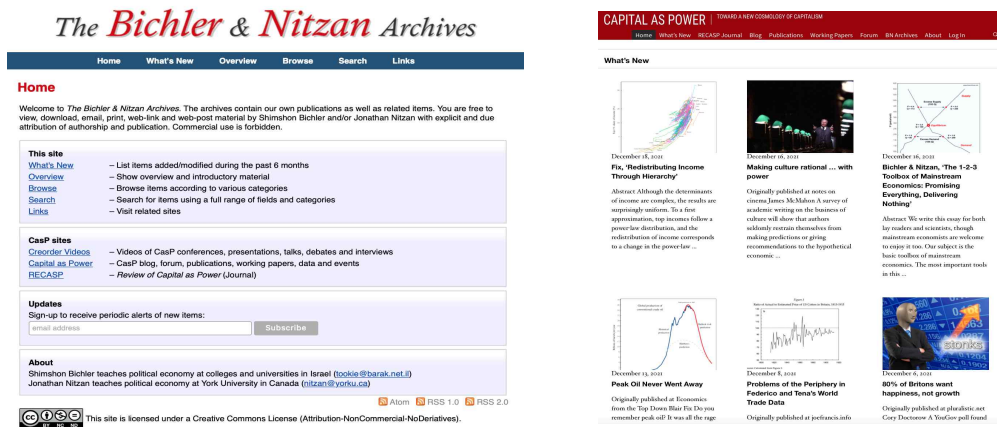
---

45) Jessop 2007 참조.



### 5.3.3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기존 오픈엑세스 모델의 다양성과 문제점들

하지만 오픈엑세스의 원칙과 모델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들은 일차적으로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별학술지들이 오픈엑세스의 원칙을 수용하여 논문을 공개하는 골드 오픈엑세스이며 둘째는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리포지터리의 형태를 갖는 그린 오픈엑세스이다<sup>46)</sup>. 여기서 골드 오픈엑세스의 모델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고하는 연구자측이 논문 발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에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오픈엑세스를 시행하는 해외의 학회지들은 오픈엑세스가 적용된 논문의 인용지수가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오픈엑세스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한 비용의 문제로 인해 선뜻 오픈엑세스의 형태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아가 과도한 비용의 청구로 인해 일부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약탈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림 5-4] 개인이나 연구자 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리포지터리들의 사례

리포지터리의 구축으로 대표되는 그린 오픈엑세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sup>47)</sup>. 일단 개인이나 일군의 연구자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몇몇 리포지터리의 형태들은 그린 오픈엑세스 모델은 상당히 형태로 그린 오픈엑세스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이스라엘과 캐나다의 정치경제학자들인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와 조나

46) 김선겸 외 2019 참조.

47) 리포지터리의 유형에 대해서는 정경희 2010 참조.

단 닛잔(Jonathan Nitzan)이 운영하는 아카이브(bnarchives.yorku.ca)나 그들이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capitalaspower.com)가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인 ‘권력으로서의 자본 접근법(capital-as-power approach)’ 혹은 권력자본론과 관련하여 각종 연구결과물들, 교육자료, 수업계획서, 경영정보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한다. 때문에, 그린 오픈엑세스를 추구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개별연구자들 혹은 연구자 집단들이 이런 유형의 아카이브와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안의 문제는 위와 같은 아카이브와 사이트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작성한 논문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원하는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택한다. 가령, 이들은 영리기업들에 의해 운영되는 ‘아카데미아에듀(academia.edu)’나 ‘리서치게이트(researchgate.net)’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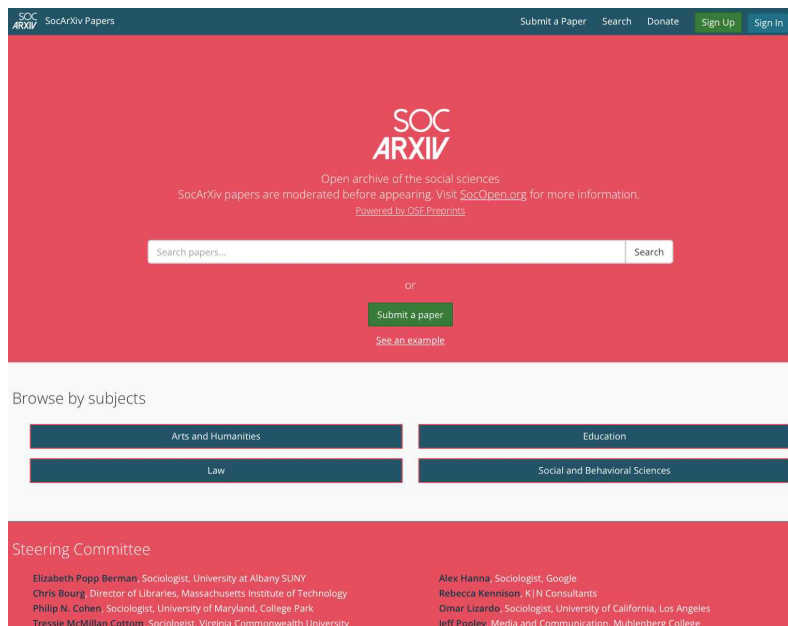
The image shows two parts of the Academia.edu website. On the left is a landing page with a blue header and a white background. It features a large blue button that says 'Download 28 million PDFs for free' and a 'Sign Up' button. Below this, it says 'Join 171 million academics and researchers' and shows two icons: one for 'ACCELERATE YOUR RESEARCH' and one for 'GROW YOUR AUDIENCE'. On the right is a user profile for Norman Fairclough. It includes a profile picture, a bio, a 'FOLLOW' button, and a list of papers. The first paper is titled 'CDA as "dialectical reasoning": from normative critique towards action, by way of explanation' and has 20 views. The second paper is 'Analyse et évaluation de l'argumentation dans l'analyse critique du discours (CDA) : délibération et dialectique des Lumières' and has 72 views. The third paper is 'Practical reasoning in political discourse: The UK government's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in the 2008 Pre-Budget Report' and has 2 views.

[그림 5-5] 아카데미아에듀  
(왼쪽은 플랫폼의 홈페이지, 오른쪽은 개인연구자에게 제공되는 리포지터리와 광고)

이러한 플랫폼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연구자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홈페이지, 연구자들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 기능, 그리고 연구자들의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디지털 리터러

시가 없는 연구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때문에 현재 아카데미아에듀의 경우 1억 7,000만 명가량의 등록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2,800만개 이상의 PDF에 대한 접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영리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들의 일차적 수입원은 페이스북 등이 그러한 것처럼, 광고이다.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들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과거 한국에서 프리첼(freechal)이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갑작스러운 유료화이다. 실제로 두 플랫폼들 중 좀 더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카데미아에듀는 몇 년 전 회원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연구자들의 반발을 낳았다.

이 논란의 과정에서 혹자는 다시 개인이나 연구자 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의 리포지터리들의 구축을 요구했고, 다른 이들은 학계가 운영하는 분야별 리포지터리를 옹호했다. 이 맥락에서 북미와 유럽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집단 이메일 토론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리포지터리가 메릴랜드대학이 운영하는 SocArXiv(<https://osf.io/preprints/socarxiv>)였다. 이는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arXiv([www.arxiv.com](http://www.arxiv.com))의 인문사회과학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6] SocArXiv

이 사이트는 코넬대학이 운영하는 과학기술분야 플랫폼 arXiv가 그러한 것처럼 논문의 pre-print를 공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리포지터리의 문제는 연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나 의학 등의 분야에서 출판 전 원고의 공유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그것은 논문의 투고, 심사, 수정, 그리고 출판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응용사회과학, 나아가 인문사회학의 분야는 이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아카데미에듀나 리서치게이트에 올라오는 논문은 많은 경우 과거 작성되었던, 하지만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헌들이다. 나아가 SocArXiv가 연구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보다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플랫폼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SocArXiv은 사실상 연구자들에 의해 외면 받고 있다.

한편, 이상의 리포지터리들이나 플랫폼은 하나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상기한 사이트들은 사실 게재된 학술논문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논문의 pre-copy-edited 버전 혹은 pre-print 버전을 공유한다. 때문에, 특히 해당 문헌을 직접 인용해야 하는 경우, 그것을 인용하는 연구자들은 다시 소속기관의 도서관을 경유하거나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게재된 논문을 봐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맥락에서 그린 오픈엑세스에 해당하는 리포지터리들, 나아가 영리기업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는 사실 골드 오픈엑세스의 문제, 즉 학술지들의 오픈엑세스의 전환과 연동되어 있다. 요컨대, 학술지들의 오픈엑세스 전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리포지터리는 계속해서 제한된 효과만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은 상당히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그것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대한 원문공개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의 구축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이러한 시도는 국내 논문들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아울러 국내대학도서관들과 상용DB업체들인 누리미디어의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최근 등장한 새로운 문제, 가령 국내의 상용DB업체들이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회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하여 오픈엑세스의 흐름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실제로 국내의 상용DB업체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공개된 논문을 해당 업체에 독점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 일부 학회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학회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회들은 홈페이지 제작이나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구재단 중심의 논문공개로부터 이탈하기도 한다.



[그림 5-7]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참조하는 학술지가 다시 상용DB업체를 통해서 유통되면 연구자들은 다시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계약조건의 비공개 의무 및 계약조건의 발설에 따르는 법적 책임 부과로 인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문사회분야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 5.3.4 인문사회분야 지식공유 플랫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골드 오픈액세스와 그린 오픈액세스가 갖는 문제점들, 최근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둘러싸고 몇몇 학회들과 상용DB업체들 간의 계약, 나아가 학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인문사회분야의 지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그러한 플랫폼은 최소한 다음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는 연구와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논문, 단행본 초고, 학술행사 발표문, 수업계획서, 기존 문헌 정리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그린 액세스의 리포지터리, 나아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 홈페이지 기능과 유사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골드 오픈액세스에 해당하는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지원한다. 이 지점에서 각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학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다. 상기한 것처럼 인문사회분야의 학회들은 학회의 운영에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상용DB업체들은 바로 이 점을 공략하고 있다. 때문에 인문사회분야 개별 학회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해서는 지식공유 플랫폼이 학회의 운영(회원모집, 회비모금안내, 학술행사 홍보, 그리고 특히 논문의 투고와 심사를 위한 서비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학회 및 학술지 홈페이지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횡단분과학문적(transdisciplinary) 연구를 실천하고, 탈분과학문적(post-disciplinary) 연구를 지향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각종 학술생사나 출판물, 채용 등에 대한 정보교류의 창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출판물의 홍보를 원하는 출판업계 그리고 연구자들을 채용하려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결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플랫폼은 현재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http://www.hibrain.net))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는 연구자 채용 정보 기능에 출판물의 홍보 기능을 결합하여 재정적 자립화를 도모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이윤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연구자-학회-출판업계-대학-연구소의 연계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일선 교사나 기자들의 지식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학술지식의 수요가 높은 교사와 기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식의 유통 및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은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도 가능하다. 현재 상용DB업체들은 학생들의 리포트를 사고파는 업체에 되파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표절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반교육적 행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에서는 학술논문의 검색, 논문 및 리포트 작성방법, 상호논평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인문사회 논문공유 플랫폼은 시민들의 지식 습득 플랫폼으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특히, 지식큐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연구성과물, 학계의 동향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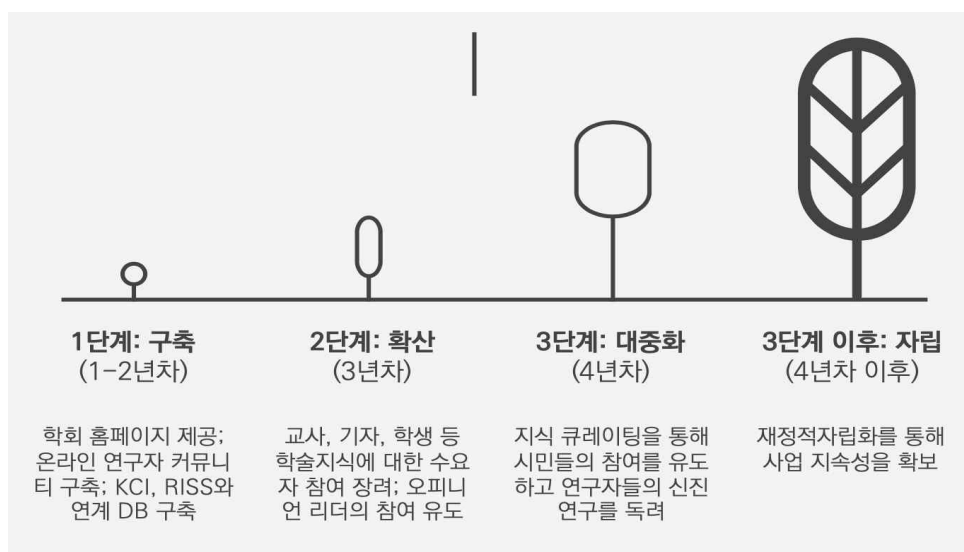


[그림 5-8]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의 서비스들

이러한 지식공유 플랫폼은 오픈액세스의 원칙적인 이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기보다 한국 인문사회학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제시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서비스가 처음부터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플랫폼의 자립화를 위해서 초기의 펀딩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그림 5-9>가 보여주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로 플랫폼 사업이 그러한 것처럼-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인문사회분야 학회들과 연구자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해 학회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와 연구자 커뮤니티 제공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을 KCI나 RISS와 연계하여 DB를

구축한다. 2단계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교사나 기자 그리고 여타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나아가 연구자, 교사, 학생들의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학술지식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학생들의 참여까지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의 공고화를 시도한다. 3단계는 대중화이다. 연구자, 교사, 기자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면 이후 지식큐레이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나아가 연구자 및 시민들과의 상호교류 그리고 학문분과를 넘어서는 연구자들 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연구를 독려한다. 4단계에서는 재정적 자립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3단계까지 완성된 플랫폼에 출판사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들이 출판물을 홍보하거나 채용공고를 게재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재정적 자립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림 5-9]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 사업단계

### 5.3.5 남겨진 과제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은 그 나름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안되는 지식공유 플랫폼은 학회들, 연구자들, 교사 및 기자들, 학생들, 일반 시민들, 사회적 기업, 출판사,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맥락에서 그것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준)정부기관 주도적 오픈액세스와 차이를 갖는다. 한편, 그것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학술지인용서비스와 연동될 것이지만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들 이상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의 구축은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남겨진 과제는 자립화 이전 초기의 플랫폼 구축 및 확산 등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 방안 중 하나는 정부의 지원이다. 즉,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오픈액세스를 위한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하는 민간분야의 지원이다. 즉,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가치의 창출을 지향하는 본 사업에 동조하는 이들로부터 마중물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단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픈액세스를 추진하는 복수의 연구자 단체들이나 학회들에 의해 이러한 초기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간 분야에서 먼저 사업 자금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사업 자금의 확보와 관련하여 민간과 공공의 지원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에 정부나 준정부기관의 차원에서도 인문사회 지식공유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 5.4. [제4세부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지식 공공성 확대 방안 모색 -데이터 기반 인문지식 공유 모델 구현 연구

□ 제4세부과제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지식공유 플랫폼 모델을 제안하고, 그러한 플랫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해 모델링 작업을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연구단 외부의 개발 인력들과 협업한다.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을 위한 인문학에서 시민에 의한 인문학으로의 공공성 확대 방안
- 순환하지 않는 학술 지식의 생산과 소비 체계.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지식 콘텐츠의 소비 현황에 대한 이해 필요
- 지식(Knowledge)에서 데이터(Data)로, 앎을 공유하는 형태의 전환
- 소유와 기성(既成)에서 점유와 조립(組立) 기반의 지식공유 문화 유도
- 데이터 기반 생산-유통-소비의 인문지식 선순환 체계 제안

##### 5.4.1. 인문학술 환경의 변화: 아날로그 지식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 5.4.1.1 순환하지 않는 학술 지식의 생산과 소비 체계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학술 지식 또한 영상을 매개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영상으로 만들어져 유통되지 않는 지식은 세상에 없는 지식으로 여겨지는 풍조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급 학술 지식을 얇은 수준의 콘텐츠로 둔갑시켜 가볍게 소비하는 풍조가 확대되는 것도 문제지만, 미디어에 의해 소비되는 콘텐츠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학술 지식의 전통적 위상을 계속 고수하는 연구자들의 경직된 태도 또한 문제이다. 소비의 형식이 아니라면 대중이 학술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술 지식이 생산되는 환경과 그러한 지식이 다시 연구자와 대중들 사이에서 소비되는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지식유통 체계를 진단하고 혁신할 필요

가 있다.

#### 5.4.1.2 지식(Knowledge)에서 데이터(Data)로, 앎을 공유하는 형식의 전환

디지털 환경에서 미분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이 산업에서 생활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과 같은 정부의 아젠다는 새로운 산업구조 형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학술 영역 또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문사회 방면의 학술 활동은 전통적으로 ‘지식’을 다루는 데 주력해왔지, 일부 분과를 제외하면 ‘데이터’를 다루는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경우 연구 결과물로서 특정한 지식을 글쓰기 형식의 논문으로 발표·유통하는 학술 활동은 점차 그 자리를 잃고 축소되어 갈 것이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간행된 학술논문이 더 이상 읽히지 않는 양상이 지속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유심히 보아야 할 점은, 논문이 다루는 지식을 검증하는 과정에 대중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글쓰기 형식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학술 활동이 빨리 전환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이나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학술 환경은 도태될 것이다.

#### 5.4.2. 디지털 공공성: 학술 지식의 공유와 공론을 위한 새로운 토대

##### 5.4.2.1 소유와 기성(既成)에서 점유와 조립(組立) 기반의 지식공유 문화로

아날로그 환경에서 간행되는 학술지 중심의 지식 편찬 및 유통 시스템은 최초의 지식 생산자(연구자 및 학회)가 해당 지식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특정 지식이 고정 불변적 형태로 유통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지식의 내용은 곧 해당 지식을 다루는 학술 영역(field)의 방법론적 형식과 불가분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개별 학술 분과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여러 방법론적 형식을 익히는 것이 지식을 다루는 출발이자 전문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학술 환경의 지속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뉠 분과의 전문성을 인준하는 안정적 시스템으로 수용되어 왔으나, 한편으로 분과 중심 학술 활동의 진입 장벽을 높임에 따라 분과 간의 지식이 유통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온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공유 문화의 확대는 그러한 아날로그 환경의 학술 풍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끔 유도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지식은 특정한 주체(연구자, 학

회)에 의해 소유된 것으로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식을 다루고자 하는 여러 사용자에 의해 점유되어 자유롭게 활용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확정되고 고정된 것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조립 가능한 데이터의 형식으로 분절되어 다루어지기에, 특정 지식이 다루어지는 맥락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동시에 그 오류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언제나 상정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디지털 기반의 지식공유 형식이 아날로그 환경의 학술 문화에 끼칠 영향력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게끔 한다.

#### 5.4.2.2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확대된 인식: 다중 참여 및 집단 지성

기술 발달에 따라 산업과 사회가 점차 모듈화 되어 가는 과정은 기존의 공공(公共, public) 개념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로서 ‘공동적(共同的, common)’, ‘공개적(公開的, open)’, ‘공유적(共有的, sharing)’ 속성이 더욱 유기적으로 얽혀 들어가는 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넷(Net) 또는 웹(Web)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간이자, 무엇이든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공유함으로써 소통하는 공간이다. ‘민중(民衆)’이나 ‘대중(大衆)’과는 다른 공동의 주체로서 ‘다중(多衆)’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개체(the individual)’이지만, 디지털 환경에 ‘접속(access)’함으로써 동시에 ‘공동체(communitiy)’로 기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주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중의 참여는, 민중이나 대중의 참여 양상과 달리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이자 놀이가 된다. 무언가를 얻거나 소비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자연스럽게 놀이로 인지되는 양태는, 다양한 모듈이 종합된 사회 내에서 개체에 의한 역할 수행의 가치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넉넉히 알려준다. 지식 생산과 유통 또한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소수의 생산자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지속된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와 지식은 교환되지 못한 채 대부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식 공공성에 대한 확대된 인식은 곧 집단 지성의 역할이 가능한 지식 생산과 유통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 5.4.2.3 디지털 데이터: 연구자의 전문 지식 활동과 대중의 능동적 참여가 만날 수 있는 매개

디지털 환경이 본질적으로 내포한 ‘모듈화’의 특성은 오픈소스(open source)에서 두드러진다. 단일 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에 의해 개량되고 재배포되는 소스코드의 양상은, 고정된 중심 지식의 ‘부속’으로서의 모듈이 아니라 ‘조립’을 통해 점차 그 모습을 구체화해 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지식에 대한 간접적 인상을 드러낸다. 불변

하는 정답이자 고정된 사유로서의 인문 지식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운데 유연한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문 지식 특유의 외연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디지털 환경이다.

인문학자가 생산한 지식의 ‘부산물’ 또는 ‘부속’으로서 기능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방적 지식 전달 가운데 흥미를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인문학자가 생산한 지식이 ‘조립’ 가능한 형식, 즉 ‘데이터’로서 세상에 나올 때 그것을 함께 조립해 나갈 시민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소통의 과정이 곧 능동적 참여자로서 시민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순간이다. 오픈 데이터로서 인문지식의 유통 가능성은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등 웹상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지식플랫폼 환경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지식 공공성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 5.4.3. 공공성 확대를 위한 1차 과제: 전문적 성격의 학술 데이터 편찬과 공유

##### 5.4.3.1 연구자 중심의 기초 데이터 구축과 웹 표준 기반의 데이터 편찬 프로세스 마련 필요

기초 학술 데이터를 온전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술 지식을 직접 다루는 연구자들이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의 지식 활동이 반영되지 않은 학술 데이터, 즉 소위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루는 용역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술 데이터는 그 쓸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형태 또한 고정적이다. 수없이 많은 연결 고리를 통해 끝없이 확장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 지식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지식이 내포한 본연적 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다루는 나의 인문 지식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연구자에 의해 구축된 기초 데이터는 그것의 확장성(extensibility)을 반드시 내포할 수밖에 없다.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식으로서의 생생함은 여타 다른 지식과의 연결고리가 풍부해 질수록 더욱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적 형식으로 지식을 디자인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웹 표준 형식의 데이터 편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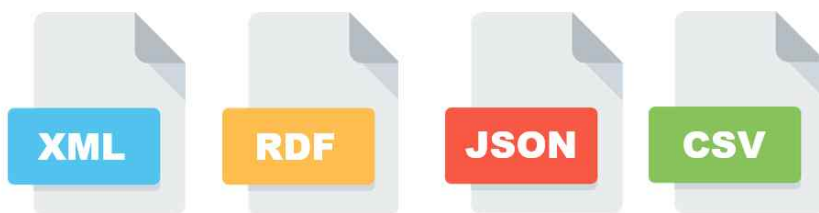
위키(Wiki)는 위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위키 엔진, 위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불리는 위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웹 브라우저에서 마크업 언어인 위키 문법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그림 5-10] MediaWiki의 로고

위키 문서는 일반적으로 위키 문법(Wiki Syntax)이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된다. 마크업 언어는 텍스트에 태그(Tag) 등을 이용해 문서의 형식과 서식을 지정하는 언어이다. 위키 문법은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언어인 HTML보다 간편한 마크업 언어를 제공한다. 따라서 위키 문서를 작성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문서 편집에 접근할 수 있다.

아날로그 환경의 ‘논문 쓰기’가 지식(knowledge) 공유를 표방한다면, 디지털 환경의 ‘정보 기술(記述)’은 데이터(data)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위키는 데이터 설계 및 편찬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효과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sup>48)</sup>



[그림 5-11] 웹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 데이터 포맷: XML, RDF, JSON, CSV

XML과 RDF 포맷의 데이터는 시맨틱 웹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웹 언어이자 데이터 포맷으로서, 해당 데이터를 웹환경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시맨틱 웹 기반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SON은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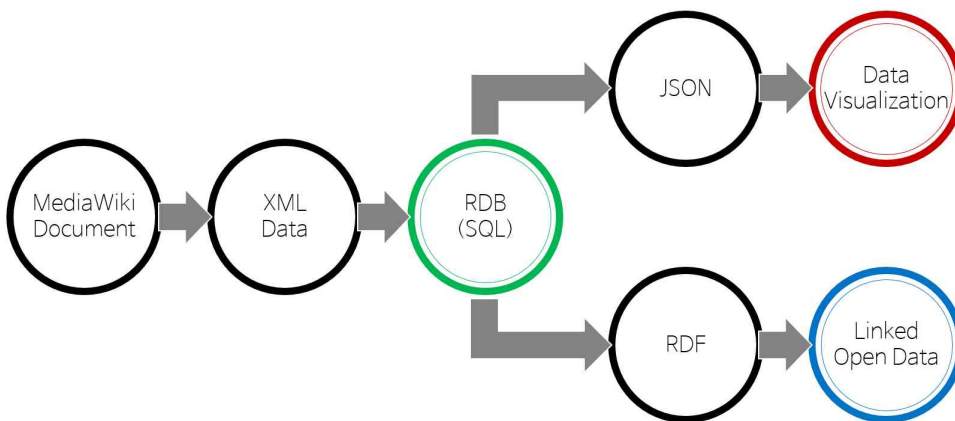
48) 김지선 외 2021, 394쪽.

데이터 객체를 속성·값의 쌍 형태로 표현하는 형식이다.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언어이며, 텍스트로 기술하여 사람도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다. CSV는 쉼표(comma)를 기준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저장한 데이터를 말한다. 엑셀과 같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집·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보편적 데이터 포맷이다.

학술 지식을 XML, RDF, JSON, CSV와 같은 웹 표준 형식의 데이터로 정리·가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곧,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 지식 공유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에 해당한다.

#### 5.4.3.2 프로세스: 위키 텍스트에서 웹 표준 데이터로의 변환 모델

위키를 기초 플랫폼으로 삼아 학술 논문을 텍스트 데이터로 구축한 다음 해당 텍스트 데이터를 XML, CSV, JSON, RDF 등의 웹표준 데이터로 가공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자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 정리된 결과를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심도를 반영하기에는 연구 기간과 비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에 일종의 실험적 시도로서 파일럿 성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스키마의 정교함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인문사회 방면의 지식 공유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서 확대하고, 그것을 매개로 연구자 집단 더 나아가 시민들이 해당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채널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5-12] 위키 기반 텍스트 데이터에서 웹표준 형식의 데이터로의 변환 과정

### ① 대상 자료 수집: 국어국문학 계열의 여러 학회에서 간행한 학술지 수록 논문

데이터 구축 자료로 활용할 학술논문은 국어국문학 계열의 여러 학회들이 간행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상허학회의 『상허학보』, 구보학회의 『구보학보』, 민족문화사연구소의 『민족문화사연구』, 반교어문학회의 『반교어문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의 『서강인문논총』, 국제어문학회의 『국제어문』, 한국여성문학회의 『여성문학연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의 『한국학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의 『대동문화연구』 등 10여개 학회 및 학술지가 그 구체적 대상이며, 논문 목록 링크([http://www.klbksk.com/wiki/index.php/HumanitiesDataArchive#논문\\_데이터](http://www.klbksk.com/wiki/index.php/HumanitiesDataArchive#논문_데이터))를 통해 개별 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위키 텍스트 데이터 구축

위키 텍스트 데이터 구축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중심으로 여타 국어국문학 유관 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어문학 지식공유 위키(<http://www.klbksk.com/wiki>)를 활용하였으며,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위키 페이지 구축은 논문의 기본적인 형식을 기준으로 유관 정보를 함께 정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위 메타데이터로 통칭되는 논문의 상위정보와 목차 및 본문 그리고 참고문헌 및 주석을 모두 기술하였다. 아래는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19, 상허학회, 2007.’을 대상으로 한 위키 페이지 구축 예시이다. url은 <http://www.klbksk.com/wiki/index.php/HDAA0001> 이다.



**상위정보** [편집]

'문화론적 연구'의 핵심 인식과 전망:  
Recognition and Perspective of 'the Cultural Studies'

계열명	2007.02	학술지	상허학보 <sup>한국학중앙연구원</sup>	계열번호	19	쪽수	011-048	발행기관	상허학회 <sup>한국학중앙연구원</sup>	
지자	청원 <sup>한국학중앙연구원</sup>	참여지자수	1인	영어영석	주저자	ISSN	DOI	10.22936/sh.19..200702.001	식별자	SP0001
RISUrl	<a href="http://www.riss.kr/link?id=A104965467">http://www.riss.kr/link?id=A104965467</a>			WikUrl	<a href="http://www.kibsk.com/wiki/index.php/HDA0001">http://www.kibsk.com/wiki/index.php/HDA0001</a>					
주제어	문화론; 근대문학의 종언; 인문학의 위기; 정상성; 국문학; 대중문화									

(초록) 이 글은 '문화론적 연구'가 처한 현재의 자리를 점검하고 '국' '문학' 이 낳은 새로운 연구와 글쓰기를 더욱 급진화하는 제안을 목표로 한다. 본질적으로 '문화론적 연구'는 문학이 지식체계와 문화전반에서 지니는 지위 및 역사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취하며 '국' '문학' 의 정상성 규범에 대해 성찰한다. 한국 근대문학은 크게 보아 세 축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정치적 계몽주의 문학, 내면성의 문학과 모더니즘소설, 그리고 대중적 낭만주의문학. 이 각각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고 중단된 상황이 소위 '근대문학의 종언'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근대문학'이 생산한 '문학적인 것'을 재고하고 미학주의에 대해 반성하여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문학이 인간과 삶을 위해 기능하도록 재-규범화하는 것이다. '문화론적 연구'는 문학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오늘날 문학연구와 문학은 '양극화'라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윤리적으로 이 해하고 교육과 문화의 불평등에 대해 성찰하게 해야한다. 문화의 큰 위력은 양극화에 대한 버리케이드로서, 여기에 개입하고 연대할 방법을 찾고 미와 윤리의 긴장과 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화론적 연구의 임무이다. 문화론적 연구의 제1국면은 근대성 연구에 정향된 '국' '문학' 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화사로서의 문화론으로의 진입까지이며, 제2국면은 제1국면 연구의 인화-확장과 문화사의 재구, 그리고 문화적-담론적 실천으로서 구성되는 단계이다. 즉 '문화론적 연구'는 새로운 '국문학사'나 '문화사' 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여기'의 문화-정치의 현실과 결속할 것이다.

[그림 5-13]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상위정보' 예시

**목차** [편집]

1. 서론
2. 문학사의 전회와 '문화론적 연구'
3. 근대 문학주의와 문화적 합성에 대한 성찰
4. 문화사로서의 '문화론적 연구'와 문화연구로서의 '문화론적 연구'
5.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 [편집]

**본문1: 서론** [편집]

(<sup>한국학중앙연구원</sup>▶<sup>1</sup>)이 글은 (상허학회) 2006년 가을 심포지움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역사적 전환과 창조적 모색"에 제출되었던 것으로서, 심포지움에서 제기된 논의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개고한 것이다. 원래 필자의 발표는 심포지움의 '총론'이 아니었음에도, '문화론적 연구'라는 명칭이 가진 포괄성<sup>[1]</sup>과 제1발표로 제출된 사정 때문에 총론인 것처럼 읽히고 관심과 (<sup>한국학중앙연구원</sup>▶<sup>2</sup>)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상허학회) 심포지움에서 제기된 비판 가운데에는 오독과 편견에 기초한 부당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제기와 심포지움 자체는 유익했다. 특히 이번 (상허학회)의 심포지움의 '성과'의 하나는 '문화론적 연구' 내부의 섬세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드러낸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문화론적 연구'의 지향점은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조건 때문에 심포지움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서론을 충분히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의 의고를 개고하여 '문화론적 연구'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1) 정상성과 '국문학'

학문의 '정상성'(<sup>한국학중앙연구원</sup>▶<sup>3</sup>norm)에 대해 지적<sup>[2]</sup>해은 흥미로운 예를 들어 말한 적 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 학계에서 "당신이 취를 쳐주를 분석한다면 당신은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결을 분석한다면 비교문화학에 속한 것"이라 한다. 오늘날 미국의 철학과는 인지주의와 뇌과학이 주도하고 있고, 전통적인 의미의 철학은 비교문화-문화연구학과와 영문학-불문학 등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은 논의를 확대하여 비단 미국 철학계 뿐 아니라 철학사 전체를 볼 때, 늘 다른 분과학문들이 철학의 '정상적(규범적)' 역할을 떠맡거나, 또는 철학 자신이 여타의 학문적 때로는 심지어 비학문적 실천과 분야의 과제를 맡아왔다는 점을 말한다. 철학 '고유'의 공간이란 원래 없다. 지적은 이 논의를 마지못(<sup>한국학중앙연구원</sup>▶<sup>4</sup>)으로 다음과 같이 뼈아프게 한 마디를 덧붙인다. "가장 케케묵고 강단적이고 적실성이 없고 죽어 있는 '철학'<sup>[2]</sup>만이 온전히 철학의 '정상적 역할'을 했다.

[그림 5-14]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목차'와 '본문' 서술 예시

**참고문헌** [편집]

**연구논문** [편집]

- 『FOCUS』 '문학의 시대' 이후의 문학비평: 이광호·류보선·김형중·김영찬, 『문학동네』, 2006 가을호.
- 고훈준연, 『근대문학의 종언, 그리고 '소설'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글쓰기들』, 『작가와 비평』, 2006년 상반기.
- 권보드래, 『'공숙사'와 문학의 질서』, 『현대소설연구』, 2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권성우, 『문학을 넘어서는 문학의 길』, 『문학수업』, 2005년 봄.
- 박현호, 『'문학' '문' 없는 시대의 문학연구』, 『역사비평』, 7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년 여름.
- 유중호, 『문학의 전략—무라카미 [村上] 현상을 놓고』, 『현대문학』, 2006. 6.
- 이경훈, 『오딧세우스의 변명』,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천정환,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연구에 대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04. 11.
- 하정일,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비평과 전망』, 8호, 2004. 6.
- 황중연, 『무엇이 한국문학의 보람인가—문학평론가 백낙청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131, 2006년 봄.
- 황중연, 『문학의 역사학 이후』, 『현대문학』, 2006년 8월.

**연구서적** [편집]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 2006.
- 김동식, 『'공숙·문학·문화사', 『거울과 미로』, 천년의시각,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06.
- 박지향, 『외 편, 『해방전후사의 개인적』, 책세상, 2005.
- 슬라보예 지젝, 『김지훈』, 『신체 없는 기관—틀리츠와 결과들』, 도서출판, 2006.
- 와타나베 히로시, 『윤대석』, 『정중의 탄생』, 강, 2006.
- 조성연, 『대중문화와 정견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 토드 기틀린, 『남재일』, 『무한 미디어』, 휴먼 앤 북스, 2006.
- 토머스 L. 프리드먼, 『김상철』, 『세계는 평평하다』, 창, 2005.

[그림 5-15]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참고문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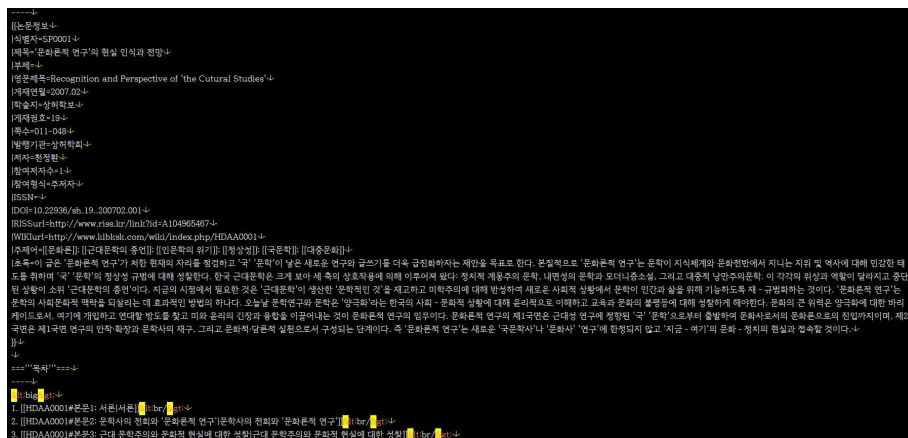
**주석** [편집]

1. ↑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 (문화론)는 영미의 cultural studies를, '문화론적 연구'는 상허학회 실패지음 논제의 하-위 '문화론적 (한국문학)연구'를 가리킬 때 쓴다. 당가 내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 문화론적 연구는 흔히 '공숙 (문학) 연구'와 별기되게 나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숙'이라는 말이 지난 소저론적 부임스 때문에 필자는 가끔씩 이 용어를 피하고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지닌 '문화'를 택한다. '문화론적 연구'는 '문화연구'와 정연성을 갖기 때문에 '절대'나 '탈식민주의적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경훈·권보드래와 같은 연구자는 '공숙'을 '문화'와 병렬할 수 있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연구방법을 옹호한 바도 있다. (이경훈, 『오딧세우스의 변명』,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7, 2005; 권보드래, 『'공숙사'와 문학의 질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7, 2005 참조).
2. 슬라보예 지젝, 김지훈 외 역, 『신체 없는 기관—틀리츠와 결과들』, 도서출판 b, 2006. 8-10쪽.
3. ↑ 비평한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성과를 나름의 관점에서 종합한 책들인 『해방전후사의 개인적』, 이나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에 포함된 '국' '문학' 연구자들의 논문 편수를 생각해보라. 어떤 문학연구자들은 자신과 다른 지향성을 가진 문학연구자들이 타 분야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며 심지어 그들이 '언제까지 아닌' '오류' 연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극사한 '언문학' 출판학 영화화 (등)인 학계와 인문학 전반의 현황을 잘 모르는 기우이거나, 인문학의 '본연'과 무관한 영역 (키키기 외식 또는 질투의 소산일 뿐이다).
4. ↑ 필자는 '문화론적 연구'로 지칭되는 모든 연구나 '디지털트리플링' 같은 새로운 영역의 전개가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어지 않았다. 그 중에는 새로운 형식이나 '과' 일종의 '본'으로서 태도도 산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전학 상반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이 '문화론적 연구'의 기본 지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을 지후의 피겨로 일단 돌리기로 했다.
5. ↑ 조성연은 『대중문화와 정견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에서 『문화론적 문화 연구의 최종과 성과들』 (1) 근대 문학의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 (2) 출판·인쇄·공숙·대중 문화의 융합을 조건 자체를 문제삼는 연구 (3) 탈장전적 경향의 대중문화 연구 (4) 탈장전적 보색으로서의 고전문학 연구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김동식, 『공숙·문학·문화사』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편, 『거울과 미로』, 천년의 시각, 2006)에서는 '공숙·문화론적 연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문화론적 연구의 배경과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6. ↑ 박현호, 『'문학' '문' 없는 시대의 문학연구』,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75호, 2006년 여름] 또 새로운 연구의 개화 또는 '해방'이 '문학의 위기가 연구 영역에서 현실화 된 것이라 파악했다.
7. ↑ 필자는 이미 '문학의 위기' (대중성과 대중문화의 문제, 그리고 '문학'의 자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을 논하고, 텍스트 읽기의 정치적, 영화와 문학, 미시사와 공숙 연구 등에
13. ↑ '문학이 정치적 변혁과 인간해방과 같은 큰 목적을 위해 기여해야 하며 기여할 수 있다는 식의 근대적 문학주의가'론 문학주의라면, 문학이 온전한 자율적인 체계이며 큰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는 식의 마르크주의가 '작은 문학주의'이다. 작은 문학주의는 텍스트에 나타난다는 미시장치의 장우들을 긴장한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때로 미시정치와 탈장치를 동일화하고, 탈장치를 변명하는 구실로 쓰인다.
14. ↑ 이는 가라타니 고진의 소론에 대한 황중연의 비판의 핵심과 지향이기도 하다. 황중연, 『문학의 역사학 이후』, 『현대문학』, 2006년 8월호.
15. ↑ 『FOCUS』 '문학의 시대' 이후의 문학비평: 이광호·류보선·김형중·김영찬, 『문학동네』, 2006 가을호 참조.
16. ↑ 황중연, 앞의 글, 211쪽. '문학연구'가 끝났다고 해서 '문학'을 글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미권의 포스트모던문학을 글이 떠올라 지 않더라도 근대문학 이후의 문학을 인정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17. ↑ 황중연, 앞의 글. '대학문화'와 교육의 전반적인 부실화, 대중화적 문화적 저열성과 기술적 낙후성, 권위주의적 정권의 상향한 언론들, 글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일회적 특권을 부여한 학교문화의 낡은 유산, 학력구분이 입신출세를 독려했는 사회화-이반 요인들을 떠나서 과거 한국문학의 위세를 설명하기만 할 뿐이다. 그렇게 저발전 사회의 종로 속에 자라난 문학이 과연 그렇게 훌륭할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18. ↑ 근래의 소설 수용의 변화에 대한 일련의 글들과 '피라 21', 2004년 봄호; 『세계의 문학』, 2007년 봄호 참조.
19. ↑ 근래 중요한 문학을 수상한 박용석, 박우영이나 김현희 등의 장편소설이 구현한 글쓰기 방법들 보면, 고전적인 의미의 '작가'나 '예술가'가 아니라 뛰어난 재구성하거나 폭력과 감성하고 '인용'하는 '글쓰기'으로서의 소설가가 주류의 변별에 오히려 옳다. 이는 전통사회에 역을 연 '이아'라고 봐도 무방해 할다.
20. ↑ 황정환,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비평과 전망』, 8호, 2004.6) 등에 대하여 이경훈과 권보드래, 앞의 글이 공숙론적인 텍스트 읽기가 왜 그러한 비판이 잘못한 것인지 보여준다. 그런데 그러한 텍스트 읽기 자체가 '공숙론적 연구'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와는 비판 자체가 유효하다. 겨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연 텍스트 읽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21. ↑ 『'박사정』 '문학을 통해 문학 이외의 것과 만나기 위해서라도 문학을 문함으로써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학행사'사상'에 부합하는 '탈신비평'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황중연, 『무엇이 한국문학의 보람인가—문학평론가 백낙청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131호, 2006년 봄, 294쪽.
22. ↑ 유중호, 『문학의 전략—무라카미 [村上] 현상을 놓고』, 『현대문학』, 2006. 6.
23. ↑ 재미있는 것은 황우기 현상이 비단 일본과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까지 걸친 '세계화'된 문화적 현상이며, 오늘날 무라카미 '후' 이후나 가요의 '오시'로 토바나나 등이 널리 읽히는 이 일본 문학의 세계적 유행의 전조이다. 그래서 현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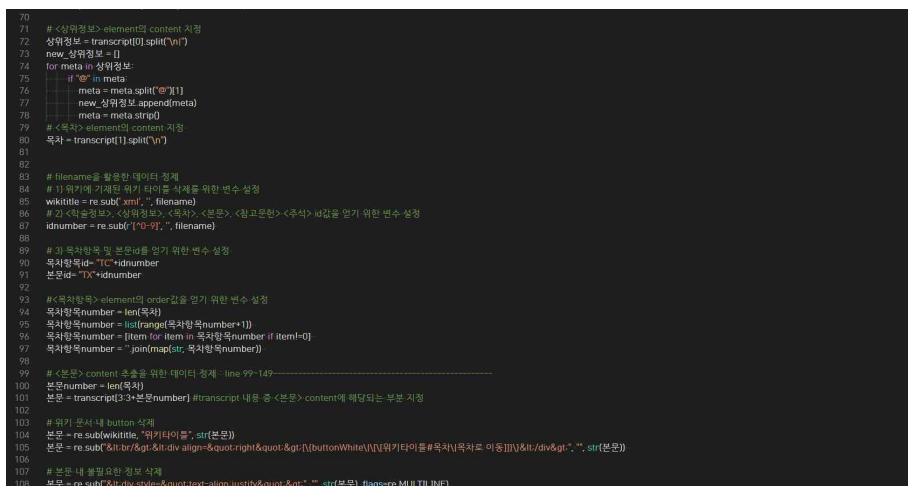
[그림 5-16] 학술논문 위키 페이지의 '주석' 예시

### ③ 위키 텍스트 데이터의 XML 데이터 변환

미디어위키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학술논문 XML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 해당 XML 데이터를 기존에 설계해둔 XML Schema 기반의 XML 데이터로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였다. Wiki → XML 변환 코드 구현 작업 정도로 언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키 → XML 변환 코드를 활용해서 위키에 입력된 학술데이터를 XML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림 5-17] 미디어위키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확보한 Wiki XML 문서 예시



[그림 5-18] Wiki XML 문서를 정형화된 XML 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Python 코드 예시

```

<?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stylesheet type="text/xsl" href=""?>
<학술정보 id="SP000"?>
<
  <상위정보 id="MD0001"?>
    <학원자 id="SP0001" />
    <제목 "문화론적 연구의 핵심 인식과 전망" />
    <부제 />
    <영문제목 "Recognition and Perspective of 'the Cultural Studies'" />
    <개제연월 "2007.02" />
    <학술지 id="journal" />
    <개제권호 "19" />
    <호수 "011-048" />
    <발행기관 id="group" />
    <저자 id="person" />
    <참여자 id="1" />
    <발행처 id="publisher" />
    <ISSN id="ISSN" />
    <DOI id="10.22366/ah.19.200702.001" />
    <Rissurl id="http://www.riss.kr/jnl?id=A104955487" />
    <WIKIurl id="http://www.klibeak.com/wiki/index.php/HDA000" />
    <주제어 id="keywords" />
  </상위정보>
  <내용 id="content" />
</
  
```

[그림 5-19] 미디어위키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확보한 Wiki XML 문서 예시

④ XML 데이터의 RDB 적재 및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Python 코드를 통해 위키 기반의 XML 문서를 정형화된 XML 데이터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 다음 해당 XML 데이터를 RDB(SQL)에 적재하였다. RDB(SQL)에 적재한 XML 데이터를 매개로 테이블 형식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해당 작업 과정에서 정리된 SQL 질의어(query) 가운데 일부이다.

- 질의어 예시1: Python 코드 변환 XML 문서의 RDB 적재를 위한 기본 table 생성

```

CREATE TABLE EAS_xml (
  id nvarchar(10) NOT NULL,
  xmltxt xml
  primary key(id)
)
  
```

- 질의어 예시2: <학술정보> id와 content를 자동으로 맵핑시키기 위한 trigger 생성

```

CREATE TRIGGER EAS_getid ON EAS_xml INSTEAD OF INSERT
AS
INSERT INTO EAS_xml(id, xmltxt)
SELECT
t.xmltxt.value('/학술정보/@id')[1], 'nvarchar(10)') AS id,
t.xmltxt AS xmltxt
FROM inserted t
  
```

● 질의어 예시3: <상위정보> 데이터 적재를 위한 테이블 생성

```

CREATE VIEW EAS_xml_meta AS
SELECT id,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id'[1], 'nvarchar(255)') AS 상위정보id,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식별자'[1], 'nvarchar(255)') AS 식별자,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제목'[1], 'nvarchar(255)') AS 제목,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부제'[1], 'nvarchar(255)') AS 부제,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영문제목'[1], 'nvarchar(255)') AS 영문제목,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게재연월'[1], 'nvarchar(255)') AS 게재연월,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학술지'[1], 'nvarchar(255)') AS 학술지,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게재권호'[1], 'nvarchar(255)') AS 게재권호,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쪽수'[1], 'nvarchar(255)') AS 쪽수,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발행기관'[1], 'nvarchar(255)') AS 발행기관,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저자'[1], 'nvarchar(255)') AS 저자,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참여저자수'[1], 'nvarchar(255)') AS 참여저자수,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참여형식'[1], 'nvarchar(255)') AS 참여형식,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ISSN'[1], 'nvarchar(255)') AS ISSN,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DOI'[1], 'nvarchar(255)') AS DOI,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Rissurl'[1], 'nvarchar(255)') AS Rissurl,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주제어'[1], 'nvarchar(255)') AS 주제어,
xmltxt.value('/학술정보/상위정보/초록'[1], 'nvarchar(255)') AS 초록
FROM EAS_xml

```

● 질의어 예시4: <본문> 데이터 적재를 위한 테이블 생성

```

CREATE view EAS_xml_contents as
SELECT id,
contents.query('.') AS 본문장절_내용,
xmltxt.value('/학술정보/본문/@id'[1], 'nvarchar(40)') AS 본문id,
contents.value('./@order', 'nvarchar(40)') as 본문장절order,
contents.value('./@id', 'nvarchar(40)') as 본문장절id,
contents.value('./@title', 'nvarchar(255)') AS 본문장절title,
contents.value('.', 'nvarchar(max)') as 내용
FROM EAS_xml CROSS APPLY xmltxt.nodes('/학술정보/본문/본문장절') AS R(contents)

```

● 질의어 예시5: <본문> 내 <page> 데이터 적재를 위한 테이블 생성

```

CREATE view EAS_xml_page as
SELECT id, 본문id, 본문장절id, 본문장절order,
page.value('./@number', 'nvarchar(40)') as 페이지number,
page.value('.', 'nvarchar(max)') as 페이지별내용,
page.query('.') as 페이지xml
FROM EAS_xml_contents CROSS APPLY 본문장절_내용.nodes('/본문장절/page') AS R(page)

```

● 질의어 예시6: <참고문헌> 내 데이터 적재를 위한 테이블 생성

```

CREATE view EAS_xml_paper as
SELECT id,
xmltxt.value('/학술정보/참고문헌/@id')[1], 'nvarchar(40)' ) as 참고문헌id,
pap.value('./@order', 'nvarchar(40)' ) as 논문order,
pap.value('./@id', 'nvarchar(40)' ) as 논문id,
pap.value('.', 'nvarchar(max)' ) as 논문_내용,
pap.value('./person/@id')[1], 'nvarchar(40)' ) as 인물id,
pap.value('./person')[1], 'nvarchar(max)' ) as 인물명,
pap.value('./paper/@id')[1], 'nvarchar(max)' ) as 연구논문id,
pap.value('./paper')[1], 'nvarchar(40)' ) as 연구논문명,
pap.value('./journal/@id')[1], 'nvarchar(40)' ) as 학술지id,
pap.value('./journal')[1], 'nvarchar(max)' ) as 학술지명,
pap.value('./group/@id')[1], 'nvarchar(40)' ) as 단체id,
pap.value('./group')[1], 'nvarchar(max)' ) as 단체명
FROM EAS_xml CROSS APPLY xmltxt.nodes('/학술정보/참고문헌/연구논문/논문') AS R(pap)

CREATE view EAS_xml_bible as
SELECT id,
xmltxt.value('/학술정보/참고문헌/@id')[1], 'nvarchar(40)' ) as 참고문헌id,
bib.value('./@order', 'nvarchar(40)' ) as 단행본_순서,
bib.value('./@id', 'nvarchar(40)' ) as 단행본_id,
bib.value('.', 'nvarchar(max)' ) as 단행본_내용,
bib.value('./person/@id')[1], 'nvarchar(40)' ) as 인물id,
bib.value('./person')[1], 'nvarchar(max)' ) as 인물명,
bib.value('./book/@id')[1], 'nvarchar(max)' ) as 연구서적id,
bib.value('./book')[1], 'nvarchar(40)' ) as 연구서적명,
bib.value('./publisher/@id')[1], 'nvarchar(40)' ) as 출판사id,
bib.value('./publisher')[1], 'nvarchar(max)' ) as 출판사명
FROM EAS_xml CROSS APPLY xmltxt.nodes('/학술정보/참고문헌/연구서적/단행본') AS R(bib)

```

● 질의어 예시7: <본문장절> 내 contextual element <term> 데이터 적재를 위한 테이블 생성

```

CREATE view EAS_xml_term as
SELECT id, 본문id, 본문장절id,
term.value('./@id', 'nvarchar(40)' ) as 용어id,
term.value('.', 'varchar(max)' ) as 용어name
FROM EAS_xml_contents CROSS APPLY 본문장절_내용.nodes('/본문장절/page/term') AS R(term)

```

## ⑤ RDB 데이터의 JSON 변환

RDB로 구축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CSV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JSON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해당 작업 과정에서 정리된 SQL 질의어(query) 가운데 일부이다.

- 질의어 예시1: EAS\_Node\_term 테이블에 class, uri 컬럼 추가 및 term 클래스 식별자를 RDB에서 TRXXX 형식으로 자동 부여하기 위해 id용문자, id용숫자 컬럼 추가 및 자동증가함수(IDENTITY) 사용.

```
alter table EAS_Node_term
Add class nvarchar(50), uri nvarchar(126), id용숫자 int IDENTITY(001, 001) NOT NULL, id용문
자 AS 'TR' + RIGHT(REPLICATE('0', 2) + CAST(id용숫자 AS VARCHAR), 3)
```

- 질의어 예시2: 'class' 컬럼에 'Term', 'relationEng' 컬럼에 'isMentionedIn', 'relationKor' 컬럼에 '언급되다' 데이터값을 추가

```
update EAS_Node_text
set class = 'Text', relationEng = 'isPartOf', relationKor = '포함되다'
```

- 질의어 예시3: EAS\_Node\_term 테이블을 활용해 Node\_term.json 생성

```
SELECT id용문자 AS [id], class AS [class], 용어name AS [name], uri AS [uri]
FROM EAS_Node_term
FOR JSON PATH, ROOT('Node_term'), INCLUDE_NULL_VALUES
```

- 질의어 예시4: EAS\_Link\_term2text임시2 테이블에서 '용어id'와 '본문장절id'의 컬럼 명칭을 각각 'sourceid', 'targetid' 컬럼 명칭으로 변경 후 EAS\_Link\_term2text 테이블로 데이터 복사

```
SELECT 용어id as sourceid, 본문장절id as targetid
into EAS_Link_term2text
FROM EAS_Link_term2text임시2
```

- 질의어 예시5: EAS\_Link\_term2text 테이블을 활용하여 Link\_term2text.json 생성

```
SELECT sourceid AS [sourceid], targetid AS [targetid], relationEng AS [relationEng],
relationKor AS [relationKor]
FROM EAS_Link_term2text
FOR JSON PATH, ROOT('Link_term2text'), INCLUDE_NULL_VALUES
```



```

2  {
3    ["class_field": "Paper", "name": "문화론적 연구의 인식과 전망", "url": "http://www.kbsk.com/wiki/index.php/HDA40011"},
4    ["SP007", "class_field": "Paper", "name": "서양문학 줄 수 줄은가?", "url": "http://www.kbsk.com/wiki/index.php/HDA40007"},
5    ["SP004", "class_field": "Paper", "name": "1980년대 문학 문화사 연구동향 논문(1)", "url": "http://www.kbsk.com/wiki/index.php/HDA40004"},
6    ["SP012", "class_field": "Paper", "name": "역사는 변경될 수 있는가?", "url": "http://www.kbsk.com/wiki/index.php/HDA40012"},
7    ["SP014", "class_field": "Paper", "name": "일관적인 문화이론을 설명하는 글쓰기", "url": "http://www.kbsk.com/wiki/index.php/HDA40014"},
8    ["SP101", "class_field": "Paper", "name": "근대문학의 경연, 그리고 '소설'이라고 불리는 대학산간민 글쓰기를", "url": "기"},
9    ["SP102", "class_field": "Paper", "name": "문학사 및 문학의 역사", "url": "기"},
10   ["SP103", "class_field": "Paper", "name": "문학을 설명하는 방법과 글", "url": "기"},
11   ["SP104", "class_field": "Paper", "name": "'문학'의 '문학'의 문학적 연구", "url": "기"},
12   ["SP105", "class_field": "Paper", "name": "문학의 역사-역사(1)의 11 문장을 놓고", "url": "기"},
13   ["SP106", "class_field": "Paper", "name": "근대문학의 방법", "url": "기"},
14   ["SP107", "class_field": "Paper", "name":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연구에 대한 시론", "url": "기"},
15   ["SP108", "class_field": "Paper", "name": "문학의 이해를 위한 글쓰기", "url": "기"},
16   ["SP109", "class_field": "Paper", "name": "문학의 한국문학의 방법론과 문학연구의 맥락적의 의미", "url": "기"},
17   ["SP110", "class_field": "Paper", "name": "문학의 독서와 글쓰기", "url": "기"},
18   ["SP111", "class_field": "Paper", "name": "근대 사색적인 담론구상체와 노동자들의 글쓰기", "url": "기"}
19 }
20
21
22 "Node_text": {
23   ["T01SP001", "class_field": "Text", "name": "1. 서론"},
24   ["T02SP001", "class_field": "Text", "name": "2. 문학사의 경연과 '문학론적 연구'"},
25   ["T03SP001", "class_field": "Text", "name": "3.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26   ["T04SP001", "class_field": "Text", "name": "4.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27   ["T05SP001", "class_field": "Text", "name": "5.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28   ["T06SP001", "class_field": "Text", "name": "6.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29   ["T07SP001", "class_field": "Text", "name": "7. 서론"},
30   ["T08SP001", "class_field": "Text", "name": "8.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1   ["T09SP001", "class_field": "Text", "name": "9.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2   ["T10SP001", "class_field": "Text", "name": "10.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3   ["T11SP001", "class_field": "Text", "name": "11.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4   ["T12SP001", "class_field": "Text", "name": "12.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5   ["T13SP001", "class_field": "Text", "name": "13.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6   ["T14SP001", "class_field": "Text", "name": "14.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7   ["T15SP001", "class_field": "Text", "name": "15.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8   ["T16SP001", "class_field": "Text", "name": "16.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39   ["T17SP001", "class_field": "Text", "name": "17.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40   ["T18SP001", "class_field": "Text", "name": "18.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41   ["T19SP001", "class_field": "Text", "name": "19. 근대 문학주의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42 }

```

[그림 5-20] SQL을 통해 자동적으로 변환한 JSON 데이터 예시

⑥ JSON 데이터의 시각화

RDB로 구축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SQL을 이용해 JSON 포맷의 데이터로 자동적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하였으며, 그로부터 [그림 5-20]과 같은 샘플 JSON 데이터를 편찬한 다음 그것을 다시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목적은 학술지식그래프를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서, 추후 유관 논문 자료가 모두 데이터로 구축될 경우 그것을 대상으로 한 인문사회 영역 전체 학술지형도를 그려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본 작업을 위해 활용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Sigma.js(<http://sigmaj.s.or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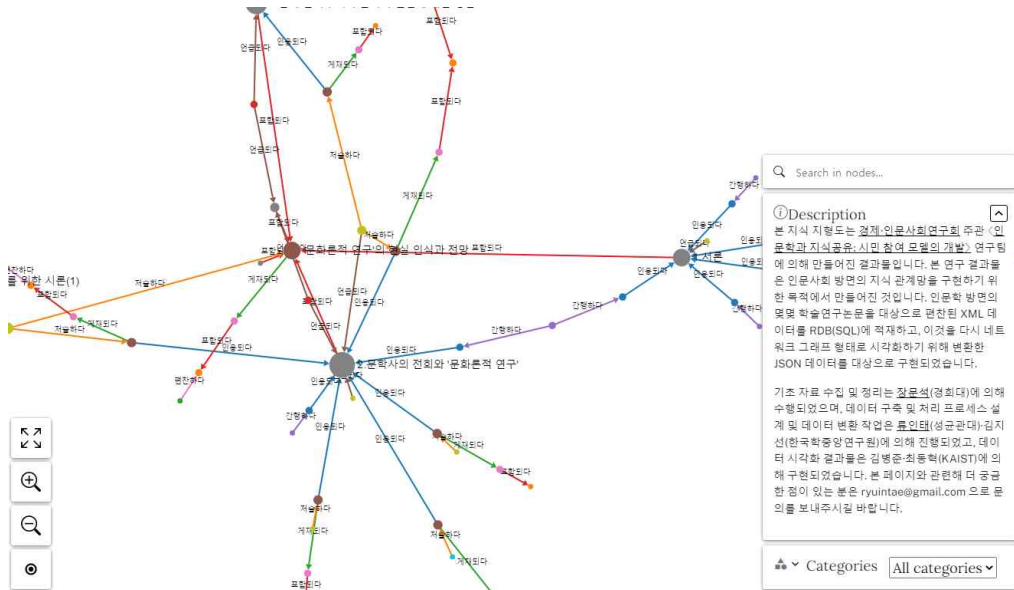
```

169
170 <script>
171
172 sigma.classes.graph.addMethod('neighbors', function(id) {
173   var i;
174   neighbors = [];
175   index = this.allNeighborsIndex.get(id).keyList[0].D;
176   for (i = 0; i < index.length; i++) {
177     neighborsIndex[id] = this.nodesIndex.get(index[i]);
178   }
179   return neighbors;
180 });
181
182 $(document).ready(function() {
183   $.getJSON('graph_data.json', function(data) {
184     //populate the cars dataset
185     $.each(data.nodes, function(i, node) {
186       nodeOption = '<option data-value="' + this.id + '>' + this.name + '</option>';
187       $('#dataset1').append(nodeOption);
188     });
189   });
190 });
191
192 // initial settings for graph and sigma renderer
193 var g = {
194   nodes: [],
195   edges: []
196 };
197
198 s = new sigma({
199   graph: g,
200   container: 'graph-container',
201   renderer: {
202     container: document.getElementById('graph-container'),
203     type: 'canvas'
204   },
205   settings: {
206     // default hoverLabelBGColor: "#f7f7f7"
207

```

[그림 5-21] JSON 데이터 시각화 코드 예시: Sigma.js 라이브러리 활용





[그림 5-22] 샘플 JSON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시각화 결과물<sup>49)</sup> 예시

현 시점에서 구현된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로서 학술지식그래프는 일종의 실험적 시도로서, 그 완결성을 보기보다는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추후 해당 결과물을 보완하기 위한 2차, 3차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5.4.4. 공공성 확대를 위한 2차 과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지식모델 개발

학술 지식을 대상으로 한 표준적 형식의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개발과 별개로 추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장선상에서 대중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외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였으며, 여러 사례 가운데 연구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Linked Jazz(<https://linkedjazz.org/>) 사례를 정리하였다.<sup>50)</sup>

49) url: <https://byungiunkim.github.io/PaperKnowledgeGraph/>

50) Linked Jazz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필자가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위키의 Linked Jazz 항목 페이지([http://dh.aks.ac.kr/~red/wiki/index.php/Linked\\_Jazz](http://dh.aks.ac.kr/~red/wiki/index.php/Linked_Jazz))에 정리된 여러 정보를 참고해 서술하였다.

#### 5.4.4.1 Linked Jazz 프로젝트: 연구 목적

Linked Jazz 프로젝트는 디지털 문화유산 자료를 매개로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Linked Open Data (LOD)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이루어진 연구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재즈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가운데 그들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와 문화 네트워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표면적 인상은, 네트워크 시각화 및 분석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아카이브와 라이브러리에서 추출된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 LOD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재즈 애호가들과 재즈나 대중음악에 관심을 가진 일반 대중들까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유통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매우 독특한 일면을 제공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림 5-23] Linked Jazz 메인페이지 모습 (확인: 2021년10월16일)

## 5.4.4.2 Linked Jazz 프로젝트: 연구 주체



[그림 5-24] 뉴욕 Pratt Institute School of Information의 위치

뉴욕 맨해튼은 1920년대부터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자리 잡은 재즈의 도시이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Pratt Institute School of Information(프랫 정보학부)에서 Linked Jazz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으며, Pratt Institute School of Information의 위치는 [그림 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재즈 공연장인 빌리지 뱅가드, 블루노트가 위치한 그리니치 빌리지 인근이다.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여전히 라이브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뉴욕의 중심에서 Linked Jazz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Semantic Lab은 Linked Jazz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연구기관이다. 도서관, 아카이브 및 박물관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맨틱 기술 방법론 및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본적 방향은 오픈 데이터 리서치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를 대표하는 연구자로는 Linked Jazz 프로젝트를 주도한 M. 크리스티나 파투엘리 교수와 매트 밀러 교수가 있다.

● 크리스티나 파투엘리(M. Cristina Pattuelli)

Linked Jazz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연구 책임자이며, 현재 Pratt Institute School of Information 소속의 부교수이다. 채플 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보 및 도서관 과학을 전공했으며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에서 철학 및 문화유산 연구를 전공하였다. 정보 시스템에

적용된 정보 구성 및 지식 표현 원칙 및 방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문화유산 자원에 적용되는 시맨틱 웹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매트 밀러(Matt Miller)

Linked Jazz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이며, 현재 Pratt Institute School of Information 소속의 조교수이다. 문화유산 자료를 다루는 기술 연구자로서,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 문화, 역사 유산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혁신 연구소에서 2017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5.4.4.3 Linked Jazz 프로젝트: 연구 기간

2011년 9월, Dublin Core 2011 컨퍼런스에서 Linked Jazz의 파일럿 버전 웹사이트가 공개되었다. 그 후, 재즈 뮤지션들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유관 디지털 도구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그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은 Linked Jazz 52nd street, Network Visualization Tool 등이 있다. 각각의 개발 시점은 아래와 같다.

- 2012 : Network visualizing Tool 개발
- 2013 : 52nd Street 개발
- 2014 : ECCO! TOOL 개발

기술 개발과 함께 프로젝트 관련 출판활동 및 학술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그동안 구축한 전체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5-1〉 Linked Jazz: 연도별(2011-2017) 연구 활동과 내용<sup>51)</sup>

연도	내 용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일럿 버전의 웹사이트 론칭</li> <li>● 09월: 'Dublin Core 2011 Conference' 파일럿 버전 결과물 대상 세미나 진행</li> </ul>

51) Linked Jazz 프로젝트와 관련된 간행물(Publications)에 관해서는 다음 정보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url: [https://linkedjazz.org/?page\\_id=123](https://linkedjazz.org/?page_id=123)

52) url: <https://er.educause.edu/articles/2014/6/linked-jazz-building-with-linked-open-data>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월: 뉴욕에서 디지털 인문학 강연을 포함한 세미나 약 8회 진행</li> <li>● 10월: 미국 정보 과학 기술 협회(ASIS&amp;T)에서 연례 회의 진행</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월: 새롭게 구현한 Linked Jazz 52nd Street, A LOD Crowdsourcing Tool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약 6회의 세미나 진행</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월: 새롭게 구현한 ECCO! Tool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약 7회의 세미나 진행</li> <li>● 06월: Lange, L. 및 Pattuelli, M.C. Linked Jazz 프로젝트에 대한 EDUCAUSE Review.<sup>52)</sup></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월: 디지털 인문학, 오픈 데이터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 약 9회 진행</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월: 약 3회의 세미나 진행</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월: 여성 재즈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약 5회의 세미나 진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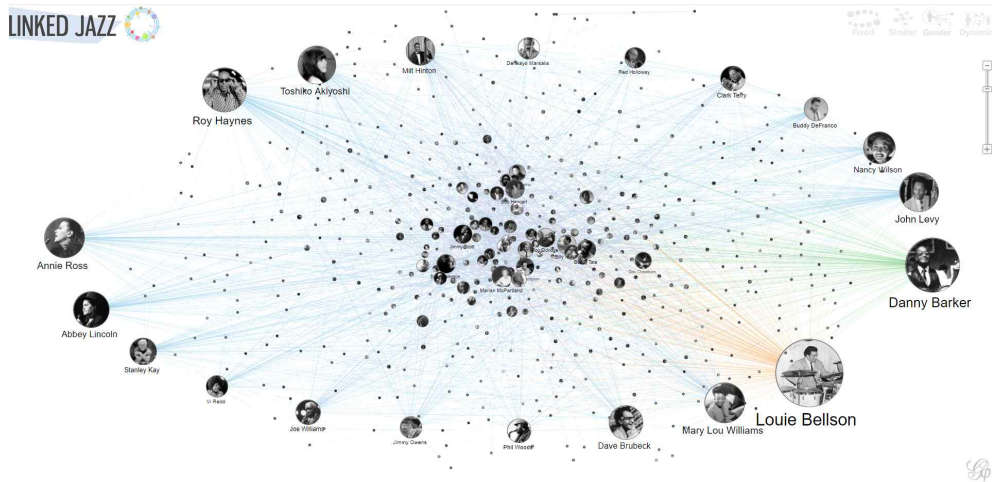
#### 5.4.4.4 Linked Jazz 프로젝트: 연구 대상

재즈라는 음악 장르의 역사와 문화적 특질을 연구하기 위한 지름길은 재즈에 몸담고 있던 뮤지션들에 관한 기록을 토대로 그들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다. 재즈 커뮤니티는 뮤지션, 멘토, 라이벌, 연인 및 친구 사이 등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정리된다. 그러한 관계를 정의하고 그로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 재즈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Linked Jazz 프로젝트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활동과 그것을 매개로 그들 각자의 삶이 반영된 사적 기록의 유의미한 연결점을 찾아 폭넓게 드러내는 결과물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LOD 구축에 있어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보유 관리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즈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고 그들이 이루고 있었던 재즈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구현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재즈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 5.4.4.4.1 Linked Open Data(LOD)

LOD가 적용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웹페이지(<https://linkedjazz.org/network/>)는 크기가 다른 수십 개의 프로필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도가 높은 뮤지션의 아이콘은 크지만, 덜 알려진 뮤지션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이콘의 크기가 작다. 개별 프로필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해당 뮤지션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연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일 뮤지션을 선택하면 그와 관계된 여러 연결고리가 확인된다. 이 연결고리는 재즈 뮤지션들 상호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우측 상단에는 4가지 필터가 있는데, 각각의

필터를 통해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변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림 5-25] LOD를 네트워크 형태의 시각화 결과물로 구현한 웹페이지의 모습

〈우측 상단의 4가지 필터〉

- Fixed mode: 가장 많이 연결된 뮤지션을 외부 둘레에 고정해 관계망 시각화
- Gender mode: 네트워크 내의 성별 분포에 초점을 두고 관계망 시각화
- Similar mode: 각 뮤지션이 연결된 관계 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시각화
- Dynamic mode: 사용자가 뮤지션을 추가하면 그들이 연결된 관계 시각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Free mode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Gender mode는 상대적으로 잊혀진 여성 재즈 뮤지션들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매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Gender mode와 함께 Dynamic mode에서는 주목받지 못했거나 활동 내용이 모호한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나 여성 재즈 뮤지션들의 활동 역사를 더욱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대화형 필터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만의 재즈 뮤지션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 5.4.4.4.2 여성 재즈 뮤지션

Linked Jazz 프로젝트는 여성 재즈 뮤지션과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2015년과 2017년 'Women of Jazz Wikipedia Edit-a-thons' 시리즈 및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물에서의 Gender mode 구현으로 이어졌다. Gender mode 네트워크는 남성과 여성 뮤지션들

시각적으로 구분해 출력함으로써, 성별을 기준으로 한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활동이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인터뷰 녹취록과 여러 맥락에서 수집한 출처정보 등을 종합한 것으로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데이터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풍부한 문화적 기록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와 관련된 소규모 연구로서 Zena Latto Project를 거론할 수 있다.

Zena Latto Project는 기록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어느 뮤지션에 관한 이야기를 재현한 작업으로, 제나 래토(Zena Latto)는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뮤지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1957년 공연이 이루어졌으나 기록이 거의 없던 여성 재즈 쇼의 전단지를 발견하고, 2016년 제나 래토와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나 래토라는 잊혀진 여성 뮤지션의 정체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재즈 내러티브에서 종종 소거되는 재즈곡과 덜 알려진 여성 뮤지션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현재 웹을 통해 공개된 제나 래토에 관한 기록은 소외된 인물이나 활동의 역사적 회복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로 여겨진다.

#### 5.4.4.4.3 기타 연구 대상

○ Local 496 Project: 1940년대에 만들어진 지역 496 노동조합의 공식 명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뉴올리언스 재즈 뮤지션 연합에서 분리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합원의 이름, 주소 및 약기가 포함되어 있다.

○ Linking Lost Jazz Shrines: ‘Collections as Data : Part to Whole’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Weeksville 유산 센터와 공동 작업을 통해, LOD 기술을 WLJSB (Brooklyn Weeksville Lost Jazz Shrines of Brooklyn)의 구술 역사 컬렉션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 컬렉션은 1930년대와 1960년대 사이의 센트럴 브루클린의 재즈 문화유산을 문서화한 2008년 연구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Linking Lost Jazz Shrines는 이러한 컬렉션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Linked Jazz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로부터 더욱 확장된 재즈 아카이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5.4.4.5 Linked Jazz 프로젝트: 연구 방법

##### 5.4.4.5.1 진행절차

① 발상, 텍스트 수집: Linked Jazz 프로젝트는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 부설 재즈학 연구소(Institute of Jazz Studies)에서 소장하고 있는 재즈에 관한 방대한 자료로

부터 시작되었다. 재즈 뮤지션 57인의 모습이 담긴 에스콰이어의 흑백 사진 A Great Day in Harlem(1958)을 보고 재즈 뮤지션 개개인의 위키피디아 문서는 있지만, 재즈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데이터베이스는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재즈학 연구소에 보관된 메리 로우 윌리엄스의 인터뷰 녹취록을 대상으로 한 LOD 구축 관련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즈학 연구소와의 관계가 발전했고, 재즈학 연구소의 기록 보관 담당자 안젤라 로렌스가 Linked Jazz 프로젝트 팀에 합류함으로써 두 기관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Linked Jazz 프로젝트 팀은 재즈학 연구소의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도서관(스미 소니언, 해밀턴,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러트거스, 미시간 대학교 등)에 소장된 재즈 관련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② Mapping Names: 자료 수집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재즈 역사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된 구전 역사 기록으로부터 개개의 재즈 뮤지션 이름을 추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름을 검색하고 기록하기 위해 재즈 디렉터리를 구문 분석하고 녹취록의 각 이름을 검색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작성되었다. 추출한 이름은 해당 이름의 URI와 연결한다. 이러한 매핑 작업을 통해 9,000개 이상의 재즈 뮤지션의 이름 및 관련 URI의 dataset을 구축하였다. 해당 dataset은, 대상 및 객체 그리고 술어(S-V-O) 형태의 트리플(Triple) 형식이다. LOD는 URI를 연결하는 동시에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온톨로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FOAF(Friend of a Friend) 온톨로지를 사용하였다. FOAF(Friend of a Friend) 온톨로지를 통해 재즈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가까운 친구, 자녀 그리고 멘토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각각이 단절되어 있던 재즈 뮤지션에 관한 정보를 그들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작업에 적용된 온톨로지는, 어느 뮤지션이 인터뷰에서 다른 뮤지션을 언급하면 두 뮤지션이 서로 알고 있다고 가정해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즈 뮤지션들을 연결해 그들 사이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Linked Jazz Network Visualization Tool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③ Crowdsourcing: 세 번째 연구 절차는 dataset에 이름이 명시된 재즈 뮤지션의 음악적·사회적 관계를 매핑하는 도구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뮤지션들 사이의 기본적 관계망은 이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뮤지션들이 어떠한 종류의 관계를 누구와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더욱 발전된 도구가 필요했다. 이 작업은 섬세한 성격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그리고 꾸준히 편찬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재즈에 관한 전문



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데이터를 편찬하는 작업은 한계가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즈를 잘 아는 대중들의 관심과 이해를 본 연구에 끌어들이고 그들이 데이터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클라우드소싱 도구를 구축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클라우드소싱은 '대중'(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서, 전문가 대신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아웃소싱 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으로서 재즈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고려할 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지식과 이해를 모을 경우 더 풍부한 결과물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트 밀러(Matt Miller)에 의해 구현된 Linked Jazz 52nd Street는 클라우드소싱을 사용해 재즈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도구는 주로 어느 재즈 뮤지션이 다른 재즈 뮤지션에 관해 언급한 짧은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어떠한 성격이었는지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리고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대중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연구의 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 5.4.4.5.2 개발도구

① The Linked Jazz Transcript Analyzer: 공개 액세스 아카이브의 인터뷰 녹취록을 업로드하고 Linked Jazz 이름 디렉토리를 활용해 인터뷰 녹취록에 인용된 개인 이름을 식별할 수 있다. 디렉토리에 없는 이름을 찾기 위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는데, 새로 발견된 이름은 이름 권한 파일에서 URI와 연관시키거나, 이름이 발견되지 않으면 Linked Jazz 네임스페이스에서 호스트하는 새로운 URI를 만든다. 또한 인터뷰 녹취록을 질문과 답변의 개별 세그먼트로 분해하고, 이후 Linked Jazz 52nd Street의 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림 5-26] The Linked Jazz Transcript Analyzer의 모습

② Name Mapping & Curator Tool: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개의 재즈 뮤지션 이름의 디렉터리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LINKED JAZZ'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filters for 'Perfect (965)', 'High (1,319)', 'Medium (2,498)', 'Low (1,725)', and 'Many (1,256)'. Below this is a list of musicians with their names and birth-death years, each accompanied by a globe icon, a 'VI' icon, an 'AF' icon, a question mark, a thumbs-up icon, and a trash icon. The musicians listed are: Martin "Chink" Abraham (1886 - 1981), Nathan Abshire (1913 - 1981), Buddy Ace (1936 - 1994), Pepper Adams (1930 - 1986), Nat Adderley (1931 - 2000), Joe Albany (1924 - 1988), Alvin Alcorn (1912 - 2003), Alger Texas Alexander (1900 - 1954), Roland Alexander (1935 - 2006), and Rashied Ali (1933 - 2009). On the right, a detailed profile for Pepper Adams is shown, including a photo and a bio: 'Park Frederick "Pepper" Adams III (October 8, 1930 - September 10, 1986) was a jazz baritone saxophonist and composer. He composed 43 pieces, was the leader on eighteen albums spanning 28 years, and participated in 600 sessions as a sideman.' Below the bio is a URL: 'http://id.loc.gov/authorities/names/n79115718' and labels: 'altLabel | Adams, Park, 1930-1986' and 'preLabel | Adams, Pepper, 1930-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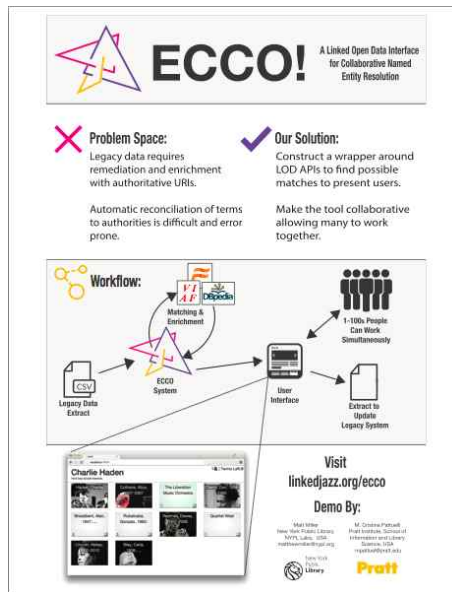
[그림 5-27] Name Mapping & Curator Tool의 모습

③ Linked Jazz 52nd Street: 아카이브에 저장된 재즈 관련 녹취록을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읽고 뮤지션들 사이의 관계를 직접 정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소싱 툴이다. 재즈를 잘 아는 대중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데이터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재즈 뮤지션이 다른 재즈 뮤지션에 관해 언급한 녹취록을 텍스트로 보여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리고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끔 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Linked Jazz 52nd Street' interface. The main content is a transcript titled 'Harold Ousley talks about Monty Alexander'. The transcript includes an interviewer's question: 'The mayor at that time.' and Harold Ousley's response: 'Was the mayor at that time. And the bus was on strike, the taxis were on strike, the subway, I had to walk from 86th Street all the way down to 31st Street. We were working in a club in a building down there. And then I worked other jobs around New York City with him. So that was a great experience. We had a lot of wonderful musicians in that band. George Coleman, the other saxophonist, and me. But they had a lot - it was a good experience, wonderful. You note one thing, you begin to - that's another level on the business because you're playing in venues that you don't get a chance to be in when you're trying to get to places. You know it's the top level basically. Carol Burnett had a party out in California that the band was invited to. So everywhere that Count Basie went it was a top place. Same with Lionel Hampton. So you get to experience that and meet people and just see what that setting is about. And it's a wonderful experience.' Another interviewer question is: 'And gosh, you made quite a bit of music with Jack McDuff.' and Harold Ousley's response: 'Oh yeah, Brother Jack McDuff and I met in Chicago because he lived there at the time. And he had a small band that we used to work with and rehearse. So that was my first time playing with Brother Jack McDuff. And then when I came to New York and Brother Jack McDuff came through I was affiliated with a gentleman named Lew Futterman that had a publishing company. So he would record a lot of the songs in the publishing company. And so Brother Jack McDuff recorded about three or four songs of mine, and then I recorded some other music. I had quite a few other songs that got recorded.' A third interviewer question is: 'Yeah, you've done quite a bit of writing. Do you sit at a keyboard when you write? Or how does it evolve?' and Harold Ousley's response: 'No, I write from a horn. I'll hear a song and when I hear it, if I feel good or get that feeling about it then I go to my horn and play it and then just put it on tape so I don't forget it. And then just kind of develop it from that point. Because a lot of times a song will just keep coming back to me, you know, and so I may write it and I may take me maybe, instead of writing it in one day or one sitting it's from time to time and I get little - - - and then I get the completeness of the song. And then it's - - -'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list of relationship types: 'Knows', 'Has Met', 'Acquaintance of', 'Close Friend of', 'Collaborated with', 'Influenced by', and 'Mentor of'. Each type is represented by a button with a corresponding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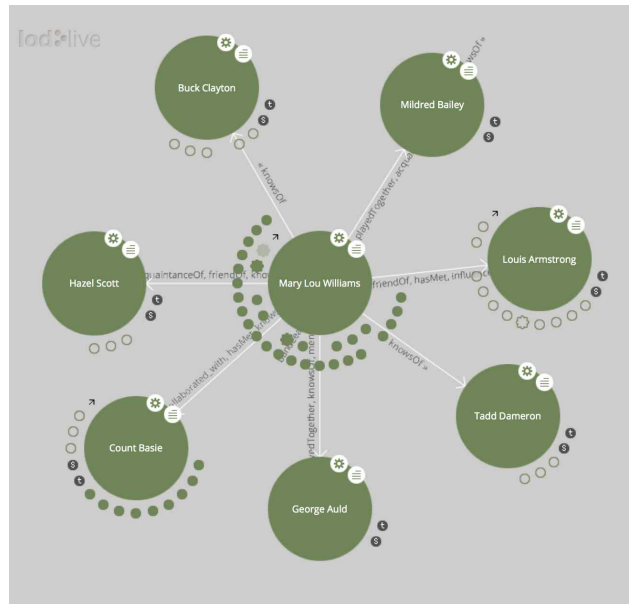
[그림 5-28] Linked Jazz 52nd Street의 모습

④ ECCO!: URI로 명명된 개체를 명확하게 조정하도록 설계된 공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가 큐레이션에 빠르고 쉽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점진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협업 워크 플로우를 지원하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계에 의한 자동화 매칭과 인간에 의한 큐레이션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부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한다.



[그림 5-29] ECCO!의 개념도

⑤ LodLive: RDF 브라우저 기능과 데이터를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의 작업 결과물이다. SPARQL 엔드포인트에 기반을 둔 RDF 리소스를 사용하는 최초의 네비게이터라 할 수 있으며, 시맨틱 웹에 대한 W3C 표준 소스를 몇 가지 실행 도구로 쉽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5-30] LodLive의 모습

#### 5.4.5. 제언: 지식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학술 데이터 개념의 이해와 확산 필요

##### 5.4.5.1 데이터 기반 생산-유통-소비의 인문지식 선순환 체계의 도모

인문지식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글쓰기 형식이 익숙하다.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편찬된 지식을 데이터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대중들이 지식을 ‘소비’하는 형식은 점차 선택과 조립에 기초한 모듈화 형식이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전문가로서 연구자들이 지식을 생산하고 생산된 지식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유통되고, 유통된 지식이 대중에게 자유롭게 소비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시스템은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으로서의 플레인 텍스트(plain text) 데이터가 대중이 소비하는 모듈화된 지식으로서의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로 연계 가능하게끔 구축되어야 하며, 그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고 그것을 다루는 여러 주체(연구자, 일반대중)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4.5.2 시민을 ‘위한’ 지식에서 시민에 ‘의한’ 지식으로의 공공성 확대

오랜 기간 학계는 분과 학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편찬된 지식의 공적인(official) 측면을 공공(公共)의 기준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학술활동이 온전한 ‘공공’이 아니라 제한된 ‘권위’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욱 빈번하며, 그로 인해 인문학술의 외연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公共) 개념을 구성하는 여타 요소로서 ‘공동체적(common)’, ‘공동적(public)’, ‘공개적(open)’ 측면이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분과 단위의 학회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지식 편찬 및 유통 체계가 ‘시민을 위한 지식 제공’의 일방적 프로세스였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로 편찬되고 공유되는 지식의 공론장은 ‘시민에 의한 지식 확산’의 쌍방향적 프로세스로서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결론





## 6. 결론

본 연구는 독과점적 지식유통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지식공유의 근원적 관계를 검토하고, 또한 지식 커먼즈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오픈액세스 정책 및 지식공유 플랫폼의 예시와 그 구축·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연구진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떠한 플랫폼이 가능하며, 그러한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세부과제에서는 인문학적 지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지식공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식 변화와 결정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시민사회의 인식변화를 인문학의 의미와 가치의 새로운 존재 방식,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공유의 필요성, 인문학적 지식의 공동생산과 지식공유의 관계, 다성적 이야기로서의 인문학적 지식과 그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시민과 인문학자 간 공동작업의 가능성 등의 맥락에서 논의한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학술 지식 오픈액세스라는 학계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식공유 플랫폼의 조건을 검토한다. 지식공유 플랫폼은 연구자의 요청,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에 근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 및 학회간 협의체가 지식공유 플랫폼 설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성 요소로 지식공유 플랫폼이 오픈액세스 학술정보의 안정적 제공, 전주기 투고-출판 플랫폼, 학문분야별 학술정보 공유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하였다.

제3세부과제는 인문사회 논문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정부나 준정부기관만이 아니라 학회, 연구자들, 기자들, 교사들, 학생들,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그것은 개별 학회들의 오픈액세스 전환이나 리포지터리의 구축을 넘어서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그러한 플랫폼의 구축 및 자립화는 총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남겨진 과제는 초기 자금의 확보이며 이에 정부나 준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제4세부과제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지식공유 플랫폼의 모델을 제안하고, 그 가능성을 이론적·기술적으로 설계한다. 지식에서 데이터로, 앎을 공유하는 형태의 전환, 소유와 기성(既成)에서 점유와 조립(組立)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공유 문화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시민 참여의 관점



에서 데이터 기반 지식 생산-유통-소비 및 인문지식 선순환 체계 수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분과 단위의 학회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지식 편찬 및 유통 체계가 '시민을 위한 지식 제공'의 일방적 프로세스였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로 편찬되고 공유되는 지식의 공론장은 '시민에 의한 지식 확산'의 쌍방향적 프로세스로서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국가적인 오픈액세스 선언, 디지털집현전 사업 그리고 블록체인·NFT 기술 등의 출현 등 학술생산의 사회적·기술적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학문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지식 생산의 조건과 유통에 대한 정책 연구는 쉽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진의 보고를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와 우선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1. 오픈액세스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정책 실천

- 한국연구재단·국립중앙도서관 등 2021년 8월의 정부 기관 등의 선언의 현실화·구체화
- 디지털집현전 사업 등과의 적실한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문사회과학자의 참여
- 학문분야별 자발적 오픈액세스 전환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마련

1. 기존 오픈액세스 플랫폼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정책 실천

- RISS, KCI, JAMS 등 공공기관 제공 플랫폼의 효율성 제고 및 영향력 확장
- 연구재단 지원 사업 관련 성과의 오픈액세스화

1.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정책 실천

- '연구자-정부-시민'의 거버넌스 및 학회지 편집인 및 학술정보 공유 협의회 구축
- '연구자 주도 + 시민 참여'의 새로운 지식공유 플랫폼의 구축 지원
- 정부기관 플랫폼과 '연구자 주도 + 시민참여' 플랫폼의 안정적 연결책 마련

1. 연구자 문화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실천

- 학회 및 학술지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
- 양적 평가와 영어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
- 학술활동의 공공성과 연구자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 참고문헌

### 【인용문헌】

- 고부응. 2016. “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21(1).
- 교육부 학술진흥과. 2018.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http://law.go.kr> (검색일: 2021.12.15.)
- 김선경 외. 2019.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활용한 오픈액세스 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문헌정보학 저널을 기반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 김지선 외. 2021.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 김해건. 2019. “제주대와 디비피아 협상결렬, 해결책은?” (2019.3.14.) 『제주대미디어』 <http://news.jejunu.ac.kr/> (검색일: 2021.12.15.)
- 남기원. 2021. 『대학의 역사』. 서울: 위즈덤하우스.
- 네그리 안토니오 외. 1997. 『디오니소스의 노동: 국가형태 비판』(2권). 이원영 옮김. 서울: 갈무리.
- 맑스. 칼. 2000.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2권). 김호균 옮김. 서울: 백의.
- 박서현. 2012. “공통적인 것의 존재론”,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연구공간 L 엮음. 서울: 난장.
- 박서현. 2020.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공유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1(2).
- 박서현. 2021. “코로나19 시대의 오픈액세스 출판 실천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395.
- 박숙자 외. 2020. “OA라는 형식이 학회에 제기한 질문”, 『상허학보』 60.
- 박숙자 외. 2021.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 연구 보고서.
- 반재영 외. 2020. “상허학회는 Open Acces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A 실무, 서른일곱 걸음”. 『상허학보』 60.
- 신승환. 2012.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학의 현재와 미래”. 『사회와 철학』 24.
- 신은정 외. 2020.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를 향하여: 오픈사이언스 권고 마련의 배경과 경과, 향후 전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https://www.unesco.or.kr/> (검색일: 2021.12.15.)
- 오스트롬. 엘리너 외. 2010. 『지식의 공유』. 김민주·송희령 옮김. 서울: 타임북스.

- 우지숙 외. 2010.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scienceon.kisti.re.kr/> (검색일: 2021.12.15.)
- 이광주. 1988. “베를린대학과 ‘학문의 자유’의 문제: 대학의 사회사(3)”. 『대학교육』 29: 42-51.
- 위키백과. 2019. “위키백과: 다섯 원칙” (2019.10.31.)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21.12.15.)
- 이현건. 2021.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주요 학술정보 기관 오픈액세스 공동 선언” (2021.8.17.)  
 『대학지성 In&Out』 <https://www.unipress.co.kr/> (검색일: 2021.12.15.)
- 이혜령. 2020. “한국여성문학학회, OA 이렇게 한다”.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국립중앙도서관,  
 2020.07.17.) <https://knowledgecommoning.org/documents?uid=18&mod=document&pageid=1> (검색일 : 2021.12.15.)
- 정경희. 2008. “국내 학술지 웹 DB 구독료 현황과 오픈액세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 \_\_\_\_\_. 2010. “오픈액세스 수입원 분석을 통한 국내 학술지의 성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 정과리. 1998. 『문명의 배꼽』. 문학과지성사.
- 채석진. 2019. “수치 만들기: 아카데미 캐피털리즘과 학문 노동의 재구성”. 『한국언론정보학회』 95.
- 최성희. 2018. “논문 구독료 인상에 속 앓는 대학도서관”. 『교수신문』. 2018.2.10. <https://kyosu.net/> (검색일: 2021.12.15.)
- 최예린. 2016. “돈 없으면 논문도 못 보나요?” (2016.3.6.).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 (검색일: 2020.12.15.)
- 최현. 2016.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 제주대학교SSK연구단 엮음.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땅, 물, 바람』. 경기: 진인진.
-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외. 2018.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 오픈액세스 출판 선언” (2018.4.20.)  
[http://kla.kr/jsp/info/association.do?procType=view&f\\_board\\_seq=55109](http://kla.kr/jsp/info/association.do?procType=view&f_board_seq=55109) (검색일: 2021.12.15.)
- 한국연구재단. 2021. “2021년도 학술지 계속평가·재인증 평가 신청요강(안)”.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검색일: 2021.12.15.).
- 홍정욱. 2015. “디지털기술 전환 시대의 인문학: 디지털인문학 선언문을 통한 고찰”, 『인문콘텐츠』 38.

- 황순민 2016. “논문도 맘껏 못보게하면서 연구하라니...” (2016.4.5.) 『매일경제』. <https://www.mk.co.kr/> (검색일: 2021.12.15.)
- 후설, 에드문트. 201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형적 현상학』. 한길사
- CC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cl.cckorea.org/about/#cc-%EB%9D%BC%EC%9D%B4%EC%84%A0%EC%8A%A4> (접속일: 2021.12.15.)

### 【영어 문헌】

- Bloemen, S., et al, 2015. *Europe and the Commons: A Commons Approach to European Knowledge Policy*, Berlin: Heinrich Boell Stiftung.
- Chan, L., et al, 2002. “Read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2.14.)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검색일: 2021.12.15.)
- Dodds, F. 2019. “The Future of Academic Publishing: Revolution or Evolution Revisited”, *Learned Publishing*, 32.
- Hackett, Edward J. 1990. “Science as a Vocation in the 1990s: The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of Academic Scien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1(3): 241-79.
- Jessop, Bob. 2007. “Knowledge as a fictitious commodity: insights and limits of a Polanyian analysis.” In *Reading Karl Polanyi for the 21st century: Market Economy as a Political Project*, edited by A. Buğra and K. Ağartan, 115-134. Basingstoke: Palgrave.
- Jessop, Bob. 2018. “On Academic Capitalism.” *Critical Policy Studies* 12(1): 104-109.
- Marx, Karl.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ECW*, Volume 29.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 of Our Time*. Boston, Massachusetts: Beacon Press.
- Slaughter, Sheila and Larry L. Leslie. 1997. *Academic Capitalism: Politics, Policies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Expanding and Elaborating the Concept of Academic Capitalism".  
Organization 8(2): 154-161.
- Slaughter, Sheila and Gary Rhodes. 2004. "The Theory of Academic Capitalism". In  
*Academic Capitalism and the New Economy: Markets, State, and Higher  
Education*, 1-34.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ocquville, Alexis de. 1835/2010. *Democracy in America*, Volume 3.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Fund, Inc.
- UNESCO 2021, "Draft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2021.11.8.)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841> (검색일: 2021.12.15.)
- Wallerstein, Immanuel. 1991. *Unthinking Social Science: The Limits of Nineteenth  
Century Paradigms*. Philadelphia, Pennsylvania: Temple University Press.
- Weber, Max. 2004. "Science as Vocation". *The Vocation Lectures*. Indianapolis,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1-02

##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

발행 2022년 1월 7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층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http://www.nrc.re.kr)  
ISBN 979-11-5567-533-5

---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